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32
창간 32주년 1994~2026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8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21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다시, 새로운 아침을 열다

해는 오늘도 따스한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힌다.
32년 전 정론직필의 첫 빛을 밝힌
현대불교신문은 수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시대와 호흡해 왔다.
창간 32주년을 맞아 다시
초심을 되새긴다.
우리는 어제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내일의 길을 가늠하며
새로운 시대를 밝힐
언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81명 확정

10월 15일, 직선직 선출
12개 교구는 무투표 당선
11월 9일부터 4년간 활동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의원 5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10월 15일 일제히 치러지면서 총 81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후보 등록 당시 16개 교구에서 경선이 예상됐지만, 후보자 자격 재심사에 따른 자격 상실과 후보 사퇴가 잇따르면서 24개 교구 본사 가운데 12곳에서 경선이 치러졌다. 지난 2022년 5개 교구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경선 교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에 따르면 10월 15일 오후 1~3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12개 교구본사에서 진행됐다. 선거가 치러진 교구는 직할교구를 비롯해 용주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통도사, 금산사, 백양사, 관음사 등이다.

선거 결과 △직할교구 상원·탄하·본연·현민 스님 △2교구 용주사 덕운·법진 스님 △5교구 법주사 각연·석중 스님 △6교구 마곡사 종봉·태진 스님 △7교구 수덕사 우봉·수암 스님 △9교구 동화사 덕유·혜범 스님 △10교구 은해사 호암·세림 스님 △11교구 불국사 성주·정수 스님 △15교구 통도사 혜원·보화 스님 △17교구 금산사 창엄·응묵 스님 △18교구 백양사 덕유·성진 스님 △23교구 관음사 도성·도윤 스님이 당선됐다.

경선이 예상됐던 교구 가운데 후보 사퇴와 자격 상실로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도 있다. 월정사는 효림 스님이 사퇴하면서 해량·삼혜 스님이, 쌍계사는 현담 스님이 사퇴하면서 능원·각림 스님이 각각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해인사는 미등록 사설사암 운영 등의 이유로 후보 자격을 상실한 진우 스님과 선거 전날 종인 스님의 사퇴로 일규·응기·향록 스님이 당선됐다. 고운사는 도륜 스님의 사퇴와 태원 스님의 직권 제적에 따른 후보 자격 상실로 혜오·범종 스님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교구는 신흥사(삼조·대현 스님), 월정사, 직지사(자성·진웅 스님),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도명·담산 스님), 고운사, 화엄사(연규·우경 스님), 송광사(시공·일화 스님), 대흥사(설도·향문 스님), 선운사(동산·재안 스님), 봉선사(보관·성우 스님) 등 12곳이다.

앞서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20명 및 비구니대표 10명의 중앙종회의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직능대표로는 율원 분야에 효명·경암 스님, 선원 분야에 진각·법주 스님, 강원 분야에 무경·진허 스님, 교육 분야에 서봉·법성 스님, 포교 분야에 성행·영일 스님, 사회 분야에 도림·선지 스님, 복지 분야에 성화·법륜 스님, 문화 분야에 원충·향성 스님, 법제 분야에 정범·현무 스님, 행정 분야에 진화·각진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비구니대표 종회의원은 정관·진상·수경·법해·설해·은광·주석·금해·혜능·서원 스님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 종회의원 30명과 직선직 종회의원 51명의 선출이 마무리됐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은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활동한다.

창간 32주년 특집호
A·B섹션 40면 발행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A6·7면

창간특집
재난시대와 불교
B1·2·3·5·6·7·9면



현대불교 AI 영상 공모전 B10·11면



대장경 판각 고불식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
팔만대장경 정신 잇는 '대장경 판각' 시작
법보종찰 해인사는 기후 위기와 재난, 전쟁과 핵 위협, 급변하는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새로운 불안 등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위기 앞에서, 지구의 안녕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인사에서 '대장경 판각'의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일 시 : 2026년 10월 29일(목) / 오후 2시
장 소 : 해인사 법계탑 마당
법보종찰 해인사
대장경 판각 조성 원만성취 만일 기도
대장경 판각 조성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며, 만일 동안 쉼없이 기도합니다.
만일기도에 동참하시어 수승한 인연을 맺고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입재 : 불기 2570년(2026) 10월 29일(목) 낮 12시 30분
기도접수 문의 : 055-934-3105~7 / 해인사 종합접수실

한중일 불교계, 불국사서 세계평화 염원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불교 수행 통한 사회 기여' 주제
각국 불교지도자 등 267명 참석
세계평화기원법회·학술강연회 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중일 불교계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불국사 일원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열고 교류와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를 다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는 삼국 불교지도자와 관계자 등 267명이 참석한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각국의 수행 전통과 경험을 나누고,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한다.

대회 첫날인 20일 오후 4시에는 삼국 교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일정과 의제를 공유한다. 삼국 불교계의 공동 실천과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확정하고 차기 일본대회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각국 회장단 회동과 환영만찬, 축하공연을 통해 우의 증진 시간을 갖는다. 축하공연에서는 '불국토 경주'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기대를 모은다.

둘째 날에는 석굴암 참배에 이어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각국 전통에 따른 예불을 올리고 세계평화와 인류 화합을 염원하는 기원문을 발표한다. 법회 후에는 범영루 앞 잔디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불국사 도량을 참배하며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한다.

이날 오후에는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학술강연회와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된다. 학술강연회에서는 불교 자비와 지혜의 실천으로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은 한국 측 종단협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조성 스님, 일본 측 대승사 주지 코미나미 묘카쿠 스님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한국 △종단협 부회장 만청 스님 △종단협 상임이사 화응 스님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중국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호파한정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추상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동활이 스님이 나선다.

10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회 기본 개요를 설명한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이번 대회는 천년 불국토 경주에서 개최되고, 다른 대회보다 동참 인원이 많아 의미가 크다"며 "삼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새롭게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수여식 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 단행

진우 스님, 10월 14일 임명
총무국장 구산 스님 등 17명
"한국불교 발전·화합에 최선"

조계종이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 기획국장에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 철인 스님, 포교국장에 현수 스님, 교육국장에 진호 스님, 복지국장에 진정 스님, 재무국장에 보각 스님, 문화국장에 명원 스님, 사회국장에 자하 스님, 사서국장에 하원 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연구소 사무국장에 영범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에 진효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에 정관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관태·무경·만경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우승 스님이 소임을 맡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현묵 스님, 호법부 호법과장 동원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혜담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은 제38대 집행부로 유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장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위상을 되살리고 국민 평안과 K-불교 세계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해지고 있고, 한국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교는 1700년 역사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길잡이 역할을 해왔고, 국민들에게도 불교적 DNA가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자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해탈과 성불에 이르는 불교의 목적인데, 최근 그런 점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불교를 이끄는 조계종이 이를 다시 부흥시켜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평안을 도모하고, 나아가 K-불교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의 가교 역할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국장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이라며 "화합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포교와 전법을 잘할 방법을 연구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교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총무국장 구산 스님은 국장 스님들을 대표해 "총무원장 스님 이하 부실장 스님의 지도 아래 각 국장 스님들과 화합하고,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한국불교를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구룡사·여래사 회주 정우 스님(왼쪽 사진)과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10월 12일 조계종에 네팔 대홍수 피해지원 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정우·명성 스님, 네팔 피해 지원 동참

10월 12일, 진우 스님 예방
지원 기금 각 1억·5000만원

구룡사·여래사 회주 정우 스님과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힘을 보탰다.

구룡사 주지 성륜 스님과 여래사 주지 각심 스님은 정우 스님을 대신해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성금을 모아준 정우 스님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스님은 "피해 규모가 막대해 수습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필요 물품과 생활 시설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도 명성 스님을 대신해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피해 지원 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광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자 하신 명성 스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명성 스님의 뜻을 잘 이어 네팔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지난해 경북 산불로 전각 전소 등의 피해를 본 의성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며 '고운사 산불 피해 복구 기금' 5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현희 기자

"소나무재선충 피해 막아야"

진우 스님, 산림청과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및 산림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하수 산림청 차장의 예방을 받고,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방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사찰 주변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아짐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산림청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물었다.

이에 임 차장은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몸 안에 서식하다가 나무 틈에 들어가 나무를 죽이며, 매개충은 최대 2㎞를 이동할 수 있다"며 "보전돼야 하는 주요 나무들을 중심으로 2㎞ 내외의 산림을 방어 구역으로 설정해 솎아베기와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재선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천태종은 10월 9일자로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을 임명, 사령장을 수여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웬만한 건 그냥 넘기자"

10월 11일 봉은사 개산대재 개막
진우 스님, 조사 다례재서 법문
19일까지 전통문화 행사 풍성
국가무형유산 생전예수재 봉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1일 봉은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개산 1232주년 역대조사 다례재'에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 12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개산대재의 의미를 오늘날의 수행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법문을 펼쳤다.

봉은사는 10월 1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산 1232주년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하며 19일까지 이어지는 개산대재의 시작을 알렸다. 개산대재는 사찰의 창건을 기념하고 역대 조사들의 원력과 수행 정신을 기리는 불교의례다. 신라 원성왕 때인 794년 연회국사가 창건한 봉은사는 오랜 세월 도심 속 수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해 왔다.

다례재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며 불자들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살아가는 데 웬만한 것은 그냥 넘기자"며 "마음을 넉넉하고 평온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인 삼독심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커지는 만큼, 순간순간 마음을 내려놓는 선명상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5초라도 마음을 내려놓으라"며 짧은 순간이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권했다. 선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설명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권하기도 한 진우 스님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인연을 쌓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삼독심이 커져 버리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 없다"며 부처님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조사 진영 앞 헌다를 준비하고 있다.

봉은사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역대 조사들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전통불교의례와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나눴다. 특히 사찰의 역사와 수행 전통을 되새기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로 10월 11일에는 '제12회 봉은사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가 경내에서 열렸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해 '행복한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가족과 함께 사찰의 가을 풍경과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전통문화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통문화체험관 앞마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차 명상과 탈 만들기, 다식과 종이꽃 만들기 등이 운영됐다.

10월 18~19일에는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의식이 진행됐다.

봉은사 사천왕 캐릭터 공모전 시상도 했다. 앞서 봉은사는 사천왕상을 소재로 전통 불교문화에 현대적 디자인을 융합해 고유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공모전에서는 장진아 씨가 우수상, 윤상태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원명 스님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온 생애 던진 무애행, 영원한 죽비소리로"

봉은사, 명진 스님 49재 봉행
대종사 법계증 등 영단에 봉정

"명진 스님은 말로만 부처님 법을 외치던 저희에게 몸으로 행동하며 부처님 법을 보여준 참된 수행자였습니다. 내 안위를 넘어 자비로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황남수 전 봉은사 신도회장의 조사 중에서)

명진 스님을 추억하는 목소리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스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그리움을 전한 이들은 생전 몸소 보여준 자비와 연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8월 22일 입적한 명진 스님의 49재가 10월 9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거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전 봉은사 주지 진화·원명 스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생전의 뜻을 기렸다.

49재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하고, 상좌 대표 선용 스님이 헌다를 올렸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신학철 백기완재단 이사장은 대표로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하던 명진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도 함께 들으며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사부대중을 대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하는 모습.

특히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는 봉정 의식도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10월 6일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자격을 추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법계증과 25조 가사, 휘장을 영단에 봉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명진 스님의 삶을 어떤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격외'의 시간이자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허문 자유인의 걸음으로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선방의 적막과 저잣거리의 소란을 둘로 보지 않으셨고, 불의 앞에서는 추상같은 사자후로 일주문 밖을 흔드는 죽비였으며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그늘이 돼 줬다"며 "흙탕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난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연꽃이 바로 스님의 삶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종사' 법계 추서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체의 상과 이름을 벗어던진 스님께 명예가 무슨 무게를 더하겠습니까마는 온 생애를 던져 무애행을 펼치신 스님께 세상과 종단이 바치는 가장 정중한 헌사"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10월 12일 입재식 후 참가자들이 수행 정진에 나섰다. 가을 안거는 11월 11일까지 이어진다.

30일 가을 안거…선·교 함께 닦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교직원·학생 대상 11월 11일까지

동국대가 학기 중에도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30일 가을 안거에 들어갔다. 참선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며 선(禪)과 교(敎)를 함께 닦는 수행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0일간 동국대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홀에서 가을 안거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부생 등이 참여하는 비숙박형 수행 과정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 전통인 간화선과 무문관 수행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적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경험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통불교 수행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교육·수행·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가을 안거는 방학 기간에 집중됐던 기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학기 중에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대 구성원들이 업무와 수업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을 안거에는 21명이 참가 신청했다.

10월 12일 열린 입재식에서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일상에서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 스님은 "바쁜 학기 중에도 선명상홀에 와서 한 시간이라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조한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자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수행을 이어가는 경험을 쌓는다. 전체 일정 중 70% 이상을 참여하면 수료증을, 70% 미만 참여하면 동참증을 수여한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학기 중 수행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봄 안거 등으로 수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로 일상에 쉼표 조계종은 10월 14~16일 서울 조계사에서 '2026 불교문화대전'을 열었다. '마음의 쉼'을 주제로 진행된 불교문화대전에서는 불교 가르침과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 쉼 토크', 음악회, 강연, 불교도서전, 팝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배희정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敎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錦明,雪峯,東佑,雲山,瑞峰,會梵,一雲,道光,祥明,雪山,觀正,法京,碧山,月峰,慧周,無德,古潭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敎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宗正禮敬室長 東虛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敎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AI·명상 만남…마음돌봄 미래 보다

박훈 연구원의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참관기

동국대 종학연구소 9월 두 차례
AI 등 활용 명상 체험 행사 진행
과학기술 접목 마음돌봄 인기 UP
'기술 어떻게 활용하나' 화두 던져

박훈 동국대 선학과 박사수료생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 2026 마음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는 9월 19~20일 서울 토포하우스에 이어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IF ZONE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뇌파 측정과 뉴로아로마, 뇌파만다라, AI상담, 소셜로봇, 로봇명상, VR명상, 싱잉볼 반응형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다.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기보다, 평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어쩌면 요즘 무심코 지나치고 있던 자신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 방향을 가리켜 주는 느낌이었다.

참가자들은 향기를 맡기 전과 후의 뇌파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살펴봤다. 막연하게 '요즘 내 마음이 이런 것 같다'고만 생각했던 상태를 눈앞의 데이터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바라봤다.

싱잉볼의 울림에 따라 빛과 파동이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앞에서는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소리는 공간에 퍼지고, 그 울림은 화면 위에서 잔잔한 파동으로 이어졌다. 기술이 고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에 머물도록 돕는 장면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을지, 인간의 판단과 관계를 약화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삶이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이 경전 한 구절을 떠올려본다.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의 굴레를 더한다."

AI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을 통제하고 소외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의 불편을 덜고, 마음을 살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한다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의 모든 책임을 개인의 선한 마음에만 맡길 수는 없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기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설계하고 교육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AI가 나아갈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IF ZONE에서 열린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에서 한 참가자가 AI로봇에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보여준 AI 마음돌봄은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거나 단정적으로 진단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뇌파와 그래프는 마음의 전부를 설명하는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싶다.

AI시대의 마음돌봄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시작은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누구를 돌볼 것인지 묻는 우리들의 지금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기자칼럼

불교, AI 윤리 주체로 거듭나야

유튜브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영상이 종종 눈에 띈다. 탄허·성철 스님 등 유명 스님들의 생전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실제 법문과는 무관한 주술적인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기만적 콘텐츠다.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축적한 소중한 데이터마저 영리 목적으로 무단 활용되기도 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는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소수자 차별, 개인정보 유출,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AI 독점에 따른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I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르면 내년쯤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불교계가 AI 윤리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불교계는 AI 윤리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속도는 내지 못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의 '불교 AI 윤리 선언' 제안은 불교계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톨릭이 '로마 콜'과 교황 회칙 등을 통해 AI 윤리를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온 것처럼, 불교계도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일 스님이 제안한 '조계종 AI 윤리 7대 강령' 채택을 비롯해 상설 AI윤리위원회 신설, 사찰 실무 지침 마련 및 종립 교육과정 연계 등 6대 실행과제를 종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불교 고유의 존재론(불성·연기·무아)과 실천론(자비·지혜·중도·방편)에 기반을 둔 윤리 기준은 AI 시대의 소중한 지남(指南)이 될 것이다. '모든 존재의 불성'에 근거한 존엄성, 연기적 상호 조건성, 관계론적 사유를 담아냄으로써 기술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심리적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스님의 제안이 종단의 구체적 종책과 살아있는 규범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불교계가 AI 윤리의 주체로 거듭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배희정 편집국 기자

300년 고찰…"수행환경·조망권 침해 우려"

석불사, 10월 12일 행정심판 청구
경관 심의 여부와 절차 의문 제기


석불사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

한강 변에 위치한 300년 고찰 서울 마포 석불사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상황에 놓여 수행환경과 한강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는 10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2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과 마포구청의 건축허가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웅전과 미륵부처님이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조성된 석불사는 도심 속 포교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불사 정면에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한강 조망권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석불사 한강조망권보호추진위원회(회장 박정수, 이하 위원회)는 사찰 수행환경과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은 물론, 증축 계획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경관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뒤늦게 증축 계획 사실을 안 석불사는 주민들과 마포구청에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8월 13일 건축허가 관련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내렸다.

위원회가 전달받은 마포구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25년 제11차·2026년 제1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2025년 심의에서는 보강 계획 등으로 보류됐으나, 이후 심의에서는 조건부 의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만 시공 안전, 하수량, 차량 진출입 등에 대한 검토일 뿐 한강 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련한 경관 심의 조건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측 지적이다.

위원회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과 역사·문화자원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공공 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 온 한강 풍경까지 개발의 이익 앞에서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충건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운영팀장은 "해당 증축 계획은 경관 심의를 포함해 관련 검토를 거쳐 승인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희 기자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승에 자비나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9월 29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 왓파오(Wat Phao)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 스님 280여 명에게 쌀 2000㎏, 라면 80박스 등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4월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NGO 공모사업 '지속가능! 공공가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로터스월드의 라오스 사찰 지원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현희 기자



노래로 마음 잇는 '외국인 노래자랑'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10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외국인 한국 노래자랑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9개국 출신 13명이 참가해 'K-SONG'을 주제로 가요와 가곡, 민요, 찬불가,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노래를 선보였다. 이날 금상과 인기상은 노란색 수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필리핀 출신 덱스터 파텐테 씨가 차지했다. 박지운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땅 한 평 원력'

동국대 일산병원에 1080만원
산사문화축제 유공자에 감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관 건립 기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0월 11일 대웅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관 건립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 1080만원은 일산병원이 추진하는 신관 건립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을 위해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다.

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공부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부대중의 정성이 병고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료환경 개선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한 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땅 한 평의 원력' 기금 조성을 통해 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원 이날 정기법회에서 10월 3일 봉행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기념 산사문화축제'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힘쓴 천주현 신도회장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올해의 포교사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장병 마음 보듬는 자비 보살

팬데믹에도 군포교 이어가
자발 참여 이끌며 군법당 '활기'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남원 호국홍제사 군법당에서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포교사들과 장병들이 함께한 모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병들의 발길이 뜸했던 남원 호국홍제사 군법당에 이제는 매주 30여 명의 장병이 찾는다. 따뜻한 면담과 정성껏 마련한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어 온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군법당을 활기차게 일궈 낸 주인공은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이들은 9월 12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장충국 팀장을 비롯해 박갑기·강석훈·강일수·황숙주·이형수·이승규·김성규·임경란·최상덕·곽혜숙·김영희·유혜숙·이정순·이효순 포교사 등 15명이 팀을 이루고 있다.

처음부터 법회가 활기를 띤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장병들의 법회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팀원들은 단 한 명의 장병만 참석하더라도 매주 법회를 열고 참선 교육을 이어갔다. 연꽃 컵등 만들기 체험을 마련하고 장병들에게 단주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을 이끌었다. 꾸준히 법회를 이어간 정성이 쌓이면서 참여하는 장병들도 점차 늘어났다.

이들의 활동은 법회 운영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포교사들은 인생 선배로서 장병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건넸다.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 고민부터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장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심과 소통은 장병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법회에 소극적이었던 장병이 스스로 법회 운영을 돕는가 하면 전역 후 사찰에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제대 후 포교사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장병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팀원들에게 포교사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안겼다.

장충국 팀장은 "처음에는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한 장병이 어느새 표정도 밝아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크고 작은 변화가 지금의 법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발길을 이끈 또 다른 힘은 정성껏 마련한 간식이다. 추석에는 송편을 직접 빚어 나누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맞춤형 간식을 준비해 장병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나눔은 장병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법회에 늦게 참석한 동료에게 자신의 햄버거를 기꺼이 내어주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군법당이 종교 활동의 공간을 넘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장 팀장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생활을 하는 젊은 장병들에게는 가족의 손길이 그리울 수 있다"며 "포교사들은 장병들을 손주나 아들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교2팀은 장병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법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포교사들의 신심과 열정으로 이어진 법회가 꾸준한 소통과 나눔을 바탕으로 군법당의 활기를 되살리고 있다. 박지운 기자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⑫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현덕 스님은…1973년 통도사 비로암으로 입산, 원명 지종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통도사 총무국장과 용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23년 3월부터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통도사 가풍은 ‘소통’…전통 지키고 미래 열어”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계율과 수행의 전통을 이어온 불보종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역사문화도량이자, 승가교육과 문화포교, 지역사회 복지까지 다양한 역할을 아우르는 총림으로 든든히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모시고 있는 도량으로, 어른을 중심으로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생활하는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미래로 잇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10월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을 만나 통도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Q 2023년부터 교구를 이끌며 느끼신 소회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대중과 함께하며 뒤에서 모신다는 마음으로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보다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도사는 총림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회에서 큰 방향을 논의하고 종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면 종무소에서 실행합니다. 7국장을 비롯해 과장 스님들이 상주하며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오랜 세월 자리 잡았습니다. 또 종무원과 신행단체, 봉사자 등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통도사가 여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 통도사는 불보종찰이자 종정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도량입니다.

종정예하를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대중과 함께 공양하고 생활하시며 수행하고 공부하는 모습만으로도 통도사의 가풍이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통도사가 수행과 전법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하려면 어른을 중심으로 대중이 화합하는 가풍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Q 세계유산인 통도사의 가치를 보전 · 계승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오랜 세월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종정예하께서 과거 통도사의 어려운 시기에 수행도량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학, 문화와 예술을 두루 살피며 차 문화와 한글, 한지와 옻칠 등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데도 힘써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찾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 역시 불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Q 관람료 무료화 이후 방문객이 늘면서 편의시설 부족 등이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통도사 방문객이 28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주차와 교통 문제가 심각해 신도들조차 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도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수행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을 찾는 국민의 편의와 통도사의 수행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Q 통도사는 영축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인격 완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문화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영축문화축제도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라 통도사의 전통과 불교문화가 오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종정예하 모시며 대중과 함께하는 교구”
임회 · 종무회의 시스템 바탕 안정적 운영
세계유산 보전과 문화포교 · 수행환경 보호
불교대학 1500명 ‘기록’…“참불자 되게”
출가 · 교육 · 복지까지 미래불교 토대 마련

를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찾아내고 제대로 자리매김해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일입니다. 통도사는 우리의 본래면목을 찾아 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Q 출가자 감소 속에서 통도사의 승가교육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계획입니까.

출가자 감소는 통도사만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가는 도피가 아니라 대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린다면 출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출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리고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영축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대학원, 승가대학 등을 통해 율학·염불·교학을 아우르는 교육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Q 통도사 불교대학에는 올해 역대 최다인 1500명이 등록했습니다.

교육의 조건은 스승과 도량, 도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스님들이 직접 강의하고 훌륭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도량도 좋고, 무엇보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열심히 발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데도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통도사를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포교입니다. 불교대학이 강의만 듣는 곳이 아니라 참된 불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불교계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는 등 성보 보존과 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많은 성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박물관이 노후하고 공간도 좁아 제2수장고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대중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을 개최하는 등 통도사의 성보와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물론 현대의 유물과 문화까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Q 앞으로 통도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통도사는 불교계에서 비교적 일찍 자비원을 시작했고 양산뿐 아니라 울산과 마산 등에서 요양원과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와 함께 스님들의 노후복지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또 어린이법회와 어린이합창단을 다시 운영하고 청소년 포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바탕에는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한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도사의 ‘통(通)’처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통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한다면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종정예하를 잘 모시고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종책에 발맞추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통도사를 찾는 분들이 행사만 보고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그 인연이 공부로 이어지고, 공부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통도사가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15일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에서 종정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는 올해 4월 24일 방문객 편의 증진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는 매년 가을 개산대재를 봉행하며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과 불법 전승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통도사 불교대학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500명이 재학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 열린 입학식 모습.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하고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10월 15일 직선직 의원 선거를 끝으로 최종 확정됐다.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2곳에서 경선이 치러졌고, 나머지 12곳은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11월 9일부터 4년간 종단의 입법기관이자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 개정과 종단 주요 현안 심의 등 입법·의결 활동을 맡는다. 〈편집자 주〉

직선대표

직할교구



현민 스님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역) 호압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장
현) 재단법인 불교방송 상임이사



탄하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성조암·정수사 주지
현) 청룡사 주지



상원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연 스님
역) 동도선사 주지
현) 현성정사 주지

2교구 용주사



덕운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사회국장
현) 석남사 주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법진 스님
역) 보림사 주지, 총무원 조사국장
현) 백운사 주지

3교구 신흥사



삼조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백담사 주지, 불교신문사장



대현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낙산사 총무
현) 화암사 주지

4교구 월정사



삼혜 스님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현) 법흥사 주지



해량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중대사자암 감원
현)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5교구 법주사



각연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
현) 용화사 주지



석중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보현정사 주지, 교육원 연수국장

6교구 마곡사



태진 스님
제14·18대 중앙종회의원
역) 관촉사·갑사 주지
현) 태고사 주지



종봉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쌍계사 주지, 마곡사 성보박물관장
현) 관촉사 주지

7교구 수덕사



우봉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기획실장
현)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역) 용봉사·화계사 주지
현) 영탑사 회주

8교구 직지사



자성 스님
역) 대둔사·개운사 주지
현) 용문사 주지



진웅 스님
역)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현) 직지성보박물관장

9교구 동화사



혜범 스님
역) 칠불사·적천사 주지
현) 송림사 주지



덕유 스님
역) 불영암 주지
현) 성불사 주지

10교구 은해사



호암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유가사 주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현) 인각사 주지



세림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중앙승가대학교 총무국장
현) 덕사 주지

11교구 불국사



정수 스님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역) 흥국사 주지
현) 불국사승가대학 학장



성주 스님
역) 총무원 감사국장
현) 오어사 주지

12교구 해인사



향록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초심호계위원
현) 송학사 주지



일규 스님
역) 총무원 미디어홍보실장
현) 호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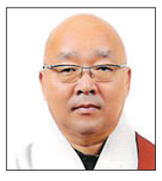


응기 스님
역) 해인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해인사 도감

13교구 쌍계사



각림 스님
제15·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능원 스님
역) 군종특별교구장, 보광사·보리암 주지

14교구 범어사



도명 스님
역)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현) 여여정사 주지



담산 스님
역) 총무원 총무국장, 미륵암 주지

15교구 통도사



보화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사회부장
현) 월봉사 주지



혜원 스님
역) 통도사 자비원장
현) 해남사 주지

16교구 고운사



범종 스님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사회부장
현) 관음사 주지



혜오 스님
역) 석수암 주지
현) 보덕관음사 주지

17교구 금산사



창엄 스님
역) 인취사 주지
현) 죽림정사 주지



응묵 스님
역) 선덕사·실상사 주지
현) 영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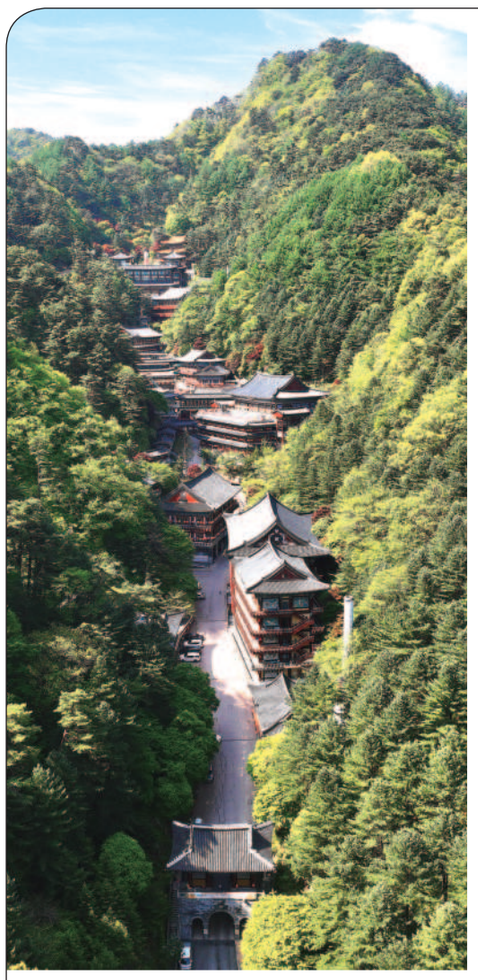
18교구 백양사



덕유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현) 용흥사 주지, 민추본 사무총장



성진 스님
역) 군종교구 부교구장
현) 성관사 주지, 도반HC 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 도 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부 원 장 김월도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구성해
교육부장 김광언
재무부장 이보광
사회부장 김진철
규정부장 박거홍
기획실장 곽수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용구
종의회부의장 이개문
황세열
총무분과위원장 조용문
법제분과위원장 정월중
재무분과위원장 정도웅

감사원
감 사 원 장 방경혜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중앙신도회
회 장 이충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홈페이지 www.cheontae.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19교구 화엄사



연규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운흥사 · 용화사 · 해동용궁사 주지
현) 향일암 주지



우경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화엄사 승가대학 중강 및 학감
현) 사성암 주지

21교구 송광사



일화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시공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쌍봉사 주지
현) 만경사 주지

22교구 대흥사



설도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도갑사 주지
현) 백련사 주지



향문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용덕사 주지
현) 미황사 주지

23교구 관음사



도성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불교상담개발원장
현) 법화사 주지



도윤 스님
역) 성당사 · 영랑사 주지, 관음사 총무국장

24교구 선운사



재안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개암사·동국사 주지, 한국문화연수원장
현) 내소사 주지



동산 스님
현) 상원사 주지

25교구 봉선사



보관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봉영사 · 회암사 주지
현) 수국사 주지



성우 스님
역) 상원사 주지

직능대표

율원



효명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쌍계사 · 혜원정사 주지
현) 조계종 계단위원, 불교신문사 사장



경암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달마사·경국사·장춘사 주지
현) 홍제암 감원

선원



진각 스님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통도사 교무국장·기회국장
현) 표충사 주지



법주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백양사 재무국장
현) 신흥사 주지

직능대표

강원



무경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법주사 교무국장·재무국장
현) 안심사 주지



진허 스님
역) 직할교구사무국장
현) 능가사 주지

교육



법성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문화국장
현) 신륵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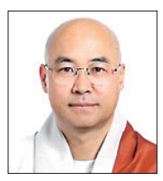


서봉 스님
역) 해인총림 율원장
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포교



성행 스님
제15·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현)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청계사 회주



영일 스님
역) 정광중고 교법사
현) 정광고 교장

사회



도림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정수사 주지
현) 장안사 주지



선지 스님
역) 지구촌공생회 대구지부장
현) 죽림사 주지

직능대표

복지



성화 스님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현) 장안사 주지



법륜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현) 묘적사 주지, 사회복지 봉선복지재단 운영위원장

문화



향성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백련정사 주지
현) 백담사 주지, BBS 불교방송 이사



원충 스님
역) 삼정사 주지
현) 화광선원 주지

법제



정범 스님
제14·15·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옥천암 주지 ·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현) LA달마사 주지



현무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제8교구본사 직지사 재무국장
현) 학도암 주지

행정



진화 스님
제14·15·16·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송광사·증심사·봉은사 주지
현) 증심사 회주



각진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흥복사 · 정각사 주지
현) 봉은사 부주지

비구니대표



정관 스님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현) 소림사 주지



진상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봉녕사 총무국장
현) 봉녕사 주지 · 세주묘엄문화원 이사장



수경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총무원 문화부장·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법해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청안사 주지
현) 진관사 주지 · 진관사 수륙재보존회 회장



설해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 용해사 · 구암사 주지
현) 부석사 주지



주석 스님
현) 대운사 주지·문화예술법인쿠무다 이사장



은광 스님
역) 운문사 승가대학 정교수
현) 운문사 주지



금해 스님
역)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현) 관음선원 주지

혜능 스님
역) 총무원 상임감찰
현)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 원장

서원 스님
역) 보현선원 주지
현) 대둔사 주지, 직지사 문화국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벽산 암현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보명**
(원로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성림**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용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오대산서 나를 돌아보다

10월 8~10일, 오대산문화 축전
진신사리 이운식·삼보일배 회향


10월 8일 월정사 오대산문화축전에서 봉행된 수계법회.

천년의 숲 오대산에서 불교의 지혜와 현대 문화가 만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인광 스님)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했다. '나를 묻다,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은 10월 8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으로 막을 올렸다.

주지 인광 스님은 별도의 진산식 대신 문화축전 인사를 통해 "가풍 있는 화엄공동체의 수행과 전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행공동체인 4교구의 원융무애한 종풍 진작을 위해 승가화합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계법회에는 교구 35개 말사에서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계를 받아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한 보살행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탄허 대종사의 선서 정신을 기리는 전국휘호대회와 탑돌이 한마당도 열려 불교의 수행 전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졌다.

'마음그라운드'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좌선, 전나무숲 삼림욕, 걷기 명상, 차 명상과 다도, 요가 명상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대산 숲길을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9일에는 '화엄선불장-부처의 하루, 우리의 하루'를 통해 불교의 지혜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불교합창제와 뮤지컬 갈라 콘서트도 이어져 축제에 음악적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날에는 부도헌다례와 사찰음식 프로그램 '구름 위의 식탁', 월드뮤직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축전의 대미는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가 주관한 삼보일배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이 장식했다.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진신사리를 모신 행렬을 따라 걸으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직지사, 사명 대사 호국정신 계승

10월 10일, 천년 수향식·헌향재
산사음악회로 화합의 장 펼쳐져


10월 10일 직자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에서 열린 '천년 수향식'.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가 개산 1608주년을 맞아 호국성사 사명 대사의 정신을 기리고 전통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문화대제전을 봉행했다. 개산의 역사를 되짚는 한편, 전통 향례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직지사는 10월 10일 대웅전과 사명각, 만덕전 일원에서 '천년 수향식'과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 헌공다례'를 봉행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천년 수향식은 청수 의식과 수향화, 〈삼국유사〉 찬문을 읊는 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통 가마에 천년의 향을 담아 사명각으로 옮기는 이운 행렬이 펼쳐졌다.

사명각 앞 광장에서 열린 사명당 문화대제전 헌공다례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국난 극복에 앞장선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명 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을 대독하는 순서도 진행돼 나라의 위기 앞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과 실천을 되새겼다.

주지 장명 스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백성을 구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명 대사의 용기와 지혜, 호국정신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평양성 수복에 공헌했으며, 전쟁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을 귀환시키는 등 호국 안민의 실천에 앞장섰다. 사명당 문화대제전은 전란 속에서도 백성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명 대사의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열리고 있다.

오후에는 만덕전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가수 송창식, 조영남, 한영애 등 대중가수와 지역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선보였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동화사 승시 '화제 만발'

10월 9~11일, 제16회 승시 개최
미디어파사드·단기출가 등 '화제'


동화사는 10월 9~11일 영산재와 승시, 선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불자들을 맞이했다.

스님들의 옛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승시가 팔공산 동화사 일원에서 열렸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주최하고 팔공산 승시 축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화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영산회상 수륙대재로 막을 올렸다. 동화문 주차장에는 과거 스님들의 장터를 재현한 승시 장터가 마련돼 전통문화의 정취를 전했다.

통일대전 법당에서는 단기출가 체험 프로그램인 '잠깐, 출가했습니다'와 싱잉볼 명상 체험이 운영됐다. 일상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삶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해가 진 뒤에는 미디어파사드가 화려한 빛으로 산사의 밤을 수놓았으며, 한복 DJ파티에서는 전통 의상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졌다.

주지 선광 스님은 "승시가 전하는 나눔의 지혜, 선명상이 건네는 비움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은 연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밝은 치유와 환희심을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승시는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을 넘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치유의 장으로도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숲속 걷기 명상과 108배 체험 등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에는 승가 씨름대회와 승가 법고대전, 사찰음식 시연 등 불교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지리산 물들인 천년 화엄의 빛

10월 9~11일, 제22회 화엄문화제
국보 괘불재·추모재로 전통 계승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6 제22회 화엄문화제'에서 괘불재가 봉행되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6 제22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를 주제로 불확실한 시대에도 각자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그 빛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화엄사를 지켜낸 고(故) 차일혁 경무관의 추모재를 비롯해 국보 괘불재, 구례향제줄풍류, 요가대회, 화엄음악제, 라인댄스,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9일에는 국보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을 모시는 괘불재가 봉행됐다. 괘불재에는 화엄사 사부대중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나라의 평안과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발원했다.

괘불재에 이어 구례향제줄풍류 공연이 펼쳐져 전통음악의 멋과 흥을 선사했다.

10일에는 제6회 지리산대화엄사 요가대회가 열렸다.

문화제의 백미인 '제22회 화엄음악제'는 보제루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음악제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육법공양을 비롯해 생황과 정가, 현대무용,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졌다.

11일에는 제3회 구례군 라인댄스 동호인대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이어 제6회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가 '함께 걷고, 함께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문화제는 천년고찰 화엄사가 간직한 불교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의 문화예술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통과 현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각자의 마음에 밝힌 희망의 등불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지 성 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신축 템플스테이체험관 투시도(안)

벽 암 지 홍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봉선사, 세 스님 모시고 새 원력

10월 9일, 1057주년 개산대재서
회주·수좌·강주 추대식 봉행


봉선사는 10월 9일 회주 일면 스님, 수좌 의정 스님, 강주 정원 스님을 추대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개산 1057주년을 맞아 선대 조사들의 원력을 기리고 문도 화합과 교구 발전을 위한 원력을 다졌다. 특히 두산 일면 대종사를 회주, 월암 의정 대종사를 수좌, 취봉 정원 대종사를 강주로 각각 추대하며 교구본찰의 수행의 교육 전통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봉선사는 10월 9일 큰법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057주년 개산대재 및 추대식'을 봉행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수많은 큰스님들의 수행과 원력, 봉선사를 아끼고 지켜온 사부대중의 정성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며 "봉선사의 1057년 역사가 앞으로도 천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법등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실 밀운 대종사는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잘 지켜야 이뤄지는 것이지 법당 와서 절 많이 한다고 이뤄지는게 아니다"라며 "평상시 계를 잘 지키면 거기서 힘이 나와서 모든 게 원만해진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추대식에서는 주지 호산 스님과 입승 자현 스님, 학감 해진 스님이 각각 세 스님에게 가사를 봉정했다. 사부대중은 삼배의 예로 추대를 축하했다.

회주로 추대된 일면 스님은 "봉선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사찰로, 앞으로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봉선사를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좌로 추대된 의정 스님은 "전국의 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주로 추대된 정원 스님은 "교육 분야에서 쌓은 경험으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화엄경을 바탕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이 광동학원 발전을 위해 각각 1억원을 쾌척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법주사 "마음 등불 이어가자"

10월 9일, 1474주년 개산대재
국화향연·사찰음식 '백미백락'도



10월 9일 국화가 만발한 법주사에서 열린 1474주년 개산대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10월 9일 팔상전 앞 특설무대에서 1474주년 개산대재와 가을국화향연을 열고,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일상 속 자비와 화합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개산조 의신 조사와 중창조 진표율사, 중흥조 벽암 대선사의 원력을 기리는 법회에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 국화와 음악을 더해 불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뤄졌다.

조실 지명 대종사는 법어에서 "속과 법의 불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법주사를 창건하고 중창하며 법등을 계속 전승해 오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설했다.

주지 정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인연의 겹들이 이 순간을 이루듯, 국화 또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인내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법주사 도량에 퍼진 국화 향기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자비의 마음이 가득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회주 도공 대종사는 축사에서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그 발자취가 깊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며 "역대 조사의 법맥이 계승되도록 도량을 수호하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석 법주사 신도회장은 "신도회도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은혜를 되새기며 도량을 외호하고, 이웃과 자비를 나누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백미백락'에서는 수정암·용화사·평화사와 법주사 신도회가 준비한 사찰음식, 보은군 가족센터의 협조로 마련한 베트남·태국·중국·일본 음식이 선보였다. '산사의 미락'에서는 개심사의 사찰음식을 전시·시식하고 각 말사는 먹거리와 불교용품 장터를 마련해 국화향연에 함께했다.

오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음악회'가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무위사, 600년 자비 원력 '수륙대재'

10월 9~10일, 제9회 수륙대재
마당극으로 세종 애민정신 조명



무위사는 10월 9~10일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의 평안을 발원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모든 생명의 평안을 발원했던 국행수륙재의 숭고한 뜻이 600년 세월을 넘어 강진 월출산 무위사에서 이어졌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적광전 일원에서 '2026년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수륙대재는 9일 괘불 이운을 시작으로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시련과 대령, 영가의 번뇌를 씻어주는 관욕에 이어 상단·소청상위 의식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금강경 독송과 중단·소청중위, 하단·소청하위 의식이 봉행됐다. 마지막으로 봉송과 회향을 통해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부대중의 평안을 발원하며 이틀간의 의식을 마무리했다. 의식과 작법은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맡아 전통 불교의례의 장엄함을 더했다.

원로의원 보선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새겨 전쟁과 갈등을 멈추고, 과거에 떠난 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무위사 수륙대재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지정하신 국행수륙재의 숭고한 뜻을 이어오는 불교의례"라며 "오늘의 간절한 기도가 모든 영가의 고통을 씻고 평안에 이르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수륙대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국악 역사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이 선보였다.

세종대왕이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발원했던 역사적 배경을 무위사 수륙대재와 연결해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녕사서 펼쳐진 사찰음식 한마당

10월 9일, 제16회 사찰음식대향연
경연대회·비빔밥 퍼포먼스 '눈길'



봉녕사는 10월 9일 제16회 사찰음식대향연을 열고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새겼다.

사찰음식을 만들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10월 9일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제16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정성 어린 솜씨가 담긴 요리가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맛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춰 사찰음식 고유의 정신을 담아내는 데 정성을 다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이 갖고 있는 수행 정신을 잘 표현한 요리에 점수를 높게 주려고 했다"며 진상 스님과 함께 출품작들을 하나하나 시식하며 평가를 진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펼쳐진 '비빔밥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지역 대표 인사들이 시민들과 비빔밥을 함께 만들며 화합의 장을 이끌었다. 시민들은 함께 만든 비빔밥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장 큰 기쁨으로 꼽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탁발순례를 이어갔다. 하심(下心)의 모습을 직접 마주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손 모아 행렬에 함께하며 부처님의 공양 정신을 몸소 느꼈다. 이외에도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다선일미 차명상', '소리선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사찰음식은 지구와 우주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담긴 '오래된 미래'의 음식"이라며 "청명한 가을날, 천 년 역사를 품은 봉녕사 도량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차,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부산 불자, 삼귀의계·오계로 새롭게 서다

'제9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
조계종부산연합회, 10월 10일 개최
1500여 명 "계 지키는 불자로 성장"

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봉행한 '제9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에는 1500여 명이 동참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1500여 명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계율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10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불자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청정한 승가에 귀의하고 오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충(忠)과 효(孝)를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법회는 부산 지역의 대덕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석의 의미를 더했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대율사(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 법미 대율사(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 효명 대율사가 3사(三師)를 맡아 청정 계율을 내렸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도일·하림·지일·정관·덕림·성광 율사 등 7명의 스님은 존증아사리로 등단해 수계 제자들의 서원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법어에서 "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를 지키려는 실천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심과 원력, 수행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수계자들의 앞날을 축원했다.

갈마아사리 심산 스님은 "수계를 받는 데서 나아가 계를 지키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받은 계가 불자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수아사리 원허 스님은 "계는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라며 수계를 통해 받은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 동참자들에게는 축하를, 행사 준비에 힘쓴 스님들과 관계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며 "그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수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계대법회의 주제는 충과 효"라며 "충과 효를 새롭게 일깨우고 실천해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 모두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홍법사, 선명상센터 기공…"마음 평안 앞장"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기공식 개최
90평 규모 2층, 내년 3월 완공 목표


부산 홍법사가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

부산 홍법사가 시민들의 마음 치유와 선명상 수행을 위한 선명상센터 건립에 나섰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산 스님을 비롯해 한국선명상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 양재생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 등 지역 교계 및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하는 선명상센터는 90평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선명상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선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법사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고귀한 뜻을 이어 온 세상을 밝히고 평안으로 회향하고자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건물을 보존하는 것보다 창건주의 뜻이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센터가 시민들에게 평안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 모으는 단결이 필요하다"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선명상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은 "선명상센터 건립 소식을 접하고 부산에서 많은 이들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 도량을 찾아 수행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공식에 이어 홍법사 대광명전에서는 청솔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청솔합창단은 이날 '님의 소리', '귀의하는 마음' 등을 선보였으며, 조민정 씨의 피아노 연주와 앵콜곡 '인생은 60부터야'가 이어졌다. 음악회는 주지 심산 스님과 참석자들이 함께 '바람부는 산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영도서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한국불교문화협회, 10월 13일
부산 발원사 특설무대서 개최


도회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물과 육지를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법석이 부산 영도에서 열렸다.

(사)한국불교문화협회(이사장 호법 스님)는 10월 13일 부산 영도 발원사에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5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

행사는 부산불교어산회의 시련(侍輦)과 취타대 공연, 영가를 자리에 모시는 삼보례 및 안좌게로 시작됐다. 이어 개식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합창단 단원의 육법공양이 진행됐다.

영가법문에서 정여 스님은 "삶과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원망과 아쉬움 또한 무상의 바람 앞에 흩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법이니 본래 부처요 청정한 존재임을 깨닫는 찰나에 무명의 사슬을 끊고 반야용선에 올라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한다"고 법문했다.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은 "시방법계 오탁악세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모든 영가와 바닷속 수중영가, 땅속에 묻힌 영가들을 위해 부처님 법력으로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며 "이 법회의 공덕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중생이 재앙을 여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영도는 수많은 사람의 애환을 품어온 공간"이라며 "먼저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륙재는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김해 태국사찰 불자들의 공연과 인도인 스레스타만달 양, 국제다문화학교 학생 아프린 양의 공연이 펼쳐졌다. 미룡사 합창단과 BTN합창단이 '민들레 미소', '아리랑', '나무대성인로왕보살' 등의 음성공양으로 영가를 위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안국사, 전법도량 '발돋움'

10월 10일, 삼존불 · 후불탱 점안
"불성 꽃피우는 도량으로 도약"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후불탱을 장엄해 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삼존불과 후불탱을 봉안하고, 도심 속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발돋움할 것을 발원했다.

안국사는 10월 10일 4층 대법당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석가모니불을

주지 영산 스님은 "지난해 3월 제3대 주지로 부임한 이후 신도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가꾸는 데 힘써 왔다"며 "불교대학과 선명상, 다도, 합창단 등을 마련하고 대법당 불단 장엄과 신중단 조성, 원불과 인등 봉안 등을 추진해 오늘의 불사를 성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산 스님은 "도심 포교당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힘쓰고,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영산 스님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신심으로 짧은 기간에 불사를 성취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국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불성의 꽃을 피우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앞으로 도량을 더욱 알차게 가꿔 창원을 넘어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반야사 1기 불교대학 입학식

10월 11일, 신입생 35명 입학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는 10월 11일 대웅전에서 제1회 '그냥 그대로'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신입생 35명과 함께 불교 교리와 명상 수행을 통한 마음공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지 혜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사를 이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대학을 열고자 하는 염원을 품어 왔다"며 "오늘의 결실은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과 많은 분의 정성이 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그대로'라는 말에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불교적 지혜가 담겨 있다"며 "오늘의 입학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대학장 경문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나 실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교리를 배우는 것과 기도·명상 등 실천 수행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불교 공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냥 그대로' 불교대학은 1년 2학기, 총 30주 과정으로 매주 2시간씩 불교 교리와 명상, 선화 그리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0회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10월 5일, 김해문화의전당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10월 5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찬란한 가야, 빛나는 김해'를 주제로 제10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최은희 안무가의 '고요의 파문' 공연에 이어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이 '모든 사람이 한때 나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해 보라'를 주제로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전했다. 2부 '국악의 향연'에서는 '금관가야의 태평성대'를 주제로 창작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이사장 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과 맑은 자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명상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명상을 통해 발견한 맑고 밝은 에너지가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는 1부 '탄생 & 고요한 움직임'과 2부 '국악의 향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주석 스님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10월 13일, 세종청사 법문



대운사 주지이자 쿠무다·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석 스님이 10월 13일 세종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에게 불교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했다.

주석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의 의미를 현대인의 삶에 맞춰 설명했다. 스님은 "타인에게 베풀기 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자비와 나눔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 원칙을 지키는 지계바라밀과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승화하는 인욕바라밀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특히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청사 법문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각회 법회에 이은 주석 스님의 지속적인 전법 활동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지역 어르신 '무료 효 관광'

10월 3일, 남해 해수욕장으로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견강암 주지)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했다.

정각원은 10월 3일 제5회 사상구 관내 어르신 무료 효(孝) 관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숙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적적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다.

행선지는 경남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이며 부산 관내 거주하는 73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번 나들이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각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45인승 관광버스 13대를 동원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돕기 위해 정각원 소속 봉사회원 60여 명이 동행해 봉사했다.

부산정각원 이사장 향공 스님은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가유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10월 9~11일 사흘간 봉행
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
임법 스님 "수륙재로 평화"

유제만 동해지국장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국가무형유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무주고혼의 천도와 국태민안, 중생의 평안을 발원하며 동해 삼화사에서 사흘간 봉행됐다.

삼화사수륙재보존회(회장 임법 스님·삼화사 주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2026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첫날 열린 법요식에는 회장 임법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철규 국회의원, 이정학 동해시장,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장 등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개성왕씨중앙종친회 왕봉식 회장과 임원, 동국대 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음식을 베푸는 전통 불교의례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국가 차원에서 설행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망자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을 함께 기원하는 의식이다.

첫날 의식은 천신과 신중들에게 도량의 옹호를 청하는 신중작법으로 시작됐다. 이어 높이 13.5m, 폭 7.5m에 이르는 대형 괘불과 불패를 모시는 괘불·불패 이운 의식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의례에 동참하며 무주고혼의 극락왕생과 국가의 평안, 모든 중생의 안녕을 발원했다.

삼화사 주지이자 수륙재보존회장인 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륙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법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현 수륙재추진위원장은 봉행사에서 "국행수륙대재를 통해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고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은 상원사 주지 혜량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수륙대재를 "산 자와 영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이루는 의미 있는 법회"라고 설명하고 행사에 함께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수륙재 전승과 보존에 기여한 불자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삼화사는 "앞으로도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며 불교문화유산의 의미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의 넋 위로한 부여수륙재대

10월 10일 구드래 선착장 일원
제72회 백제문화제 일환 봉행

백제부여불교수륙대재보존회(회장 태설 스님·고란사 주지)와 부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무량사 주지) 및 신도회는 10월 10일 부여 구드래 선착장 일원에 마련된 야외 법석에서 제72회 백제문화제와 함께하는 '불기 2570년 부여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와 충청남도, 부여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백제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되새기고, 지역의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문에 나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수륙대재가 영가를 위한 공양과 천도를 넘어 살아 있는 이들의 삶에도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의식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한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게 하시고, 부여의 백제문화와 불심이 길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태설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우리가 봉행하는 수륙대재는 백제 역



대 군왕과 충신, 이름 없이 전장에서 쓰러져간 무명장졸과 수많은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뜻깊은 불교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여수륙대재가 백제문화의 정신과 불교의 자비를 전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 법석의 공덕으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 지역의 평안과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선상 유등과 천도재에서는 백마강 위에 추모의 등불을 밝히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참석 대중은 수륙대재의 공덕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하며 수륙대재를 회향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상량

10월 9일, 상량의식 봉행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0월 9일 광주 서구 운천로 신축 대웅전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상량의식'을 봉행했다. 2024년 기공 이후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이어온 불사가 전통 목조건축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전통 목조건축물이다. 외7포와 내9포의 공포형식을 갖추고 배흘림기둥과 귀솟음 등 전통 건축기법을 적용해 장엄함과 안정감을 살렸다.

광주지원은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 지원의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정식 상량법회를 봉행한 뒤 우주탑 조성, 부처님과 후불목탱화 등 후속 불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체 도량 불사는 향후 2~3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원사, 고종황제·명성황후 추모문화제

10월 11일, 중악단 특설무대서
사단법인 등록…내년 창립 예정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11일 중악단 앞 특설무대에서 제15회 고종황제·명성황후 추모문화제를 봉행했다. 신원사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 오늘 다시 계룡산에서'를 주제로 열렸다.

문화제는 고혼 위령재와 추모 법요식, 문화공연으로 구성하고 범패작법과 바라춤에 이어 위패 이운과 안좌·헌작이 진행됐다. 종묘제례악 보존회와 황실 후손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은 위패 이운을 지원했다.

신원사는 중악단 산신대제 보존을 위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내년 봄 창립 기념 산사음악회와 국회 학술발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실 후손과 학계,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묘제례악과 결합한 중악단 궁중제례를 복원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암사 삼소사계, 인문학으로 마음 살피다

10월 10일, '삼소사계–가을' 성료
인문학 강연–국악 공연 펼쳐져



정선 정암사에서 인간의 인식과 기억을 탐구하는 인문학 강연과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이 어우러졌다.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는 10월 10일 '2026 정암사 인문학 콘서트 삼소사계-가을'을 개최했다. '인식: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실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문화심리학과 기억에 대한 성찰을 국악 공연과 연결해 산사를 찾은 사부대중에게 인문학과 전통예술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1부 강연은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가 맡았다. 한 박는 '심리학과 기억: 내면의 편향성 발견'을 주제로 인간의 기억과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 그 안에 작용하는 편향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2부에서는 '가을 산사의 호젓한 서정, 국악 콜라보'를 주제로 공연이 펼쳐졌다.

유제만 동해지국장

광주 광덕사 '네팔 구호 기금 마련 음악회'

10월 8일, 누리하제 인문학당 주최



종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온 광주 누리하제 인문학당이 네팔 대홍수 참사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자비와 나눔의 뜻을 모았다.

광주 광덕사(주지 동진 스님)와 누리하제 인문학당(공동대표 민판기)은 10월 8일 광덕사에서 '네팔 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기타와 에어로폰, 국악과 치유음악, 세계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음악을 통해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광덕사 신도가 후원한 남성복 재킷 300벌을 판매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네팔 재난구호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감이 실질적인 자비나눔으로 이어지고 실천의 장이 돼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효 문화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전주 금선암, 6회 금선 보은문화제
어르신 1000명에 자비나눔 펼쳐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과 금선자비공덕회(회장 김영돈)는 10월 11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6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공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금선 보은문화제는 효 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마당"이라며 "신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를 향한 온정의 손길도 전해졌다. 금선자비공덕회 김영돈 회원은 송광사 백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동원에프앤씨 동원순대국밥집 권동원 대표는 조지훈 전주시장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용 봉사와 바라밀 건강봉사단의 건강 상담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서 꿈 키우길"

천은사, 구례북중 전교생에 장학금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10월 12일 구례북중학교 도서실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교생 25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생들에게 햄버거와 음료수 등 간식도 함께 전하며 따뜻한 격려를 나눴다.

수여식에는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과 신은호 구례북중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신은호 구례북중학교장은 4년째 이어지는 천은사의 지속적인 장학사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천은사의 구례북중학교 장학사업은 2023년 500만원의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진 영탑사, 음악·나눔 가을축제

10월 9일, 제2회 산사음악회



당진 영탑사(주지 원정 스님)가 10월 9일 제2회 산사음악회를 열고 불자와 지역 주민, 방문객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의 문은 이음새경기민요단이 열었다. 친숙한 민요로 흥을 돋운 후 이어진 당진시충남합창단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을 선사했다. 신촌블루스와 한영애의 무대는 또 다른 감동을 줬다.

공연 사이에는 '영탑사 자비나눔' 전달식이 열렸다.

유재상 충정지사장

보원사지서 펼쳐진 자비 법석

제7회 무차평등 수륙대재



서산 보원사(주지 단경 스님)는 10월 10일 서산 보원사지에서 '제7회 무차평등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특히 49일간 이어진 기도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하며 불교의 평등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되새겼다.

이번 무차평등의 가르침은 자비나눔으로 이어졌다. 수륙대재 설행위원회는 49일간의 기도 기간에 모은 '칠칠금' 1000만 원을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또 운산면 어르신 180가구에 각 햅쌀 4kg과 화장지 24롤을, 세광마을에 쌀 200kg을 지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청화 대종사 유품, 무안군 품으로

유물 · 유품 193건 326점 기증



무안군(군수 김산)과 청화 대종사 문도회인 벽산무주회는 10월 13일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청화 대종사 기념관 유물·유품 기증·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증·기탁식은 청화 대종사(1923~2003)의 수행과 사상을 후대에 전승하고, 개관을 앞둔 무안 혜운사 청화기념관의 전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산무주회 문도스님들이 보관해 온 청화 대종사의 유물·유품은 총 526건 877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증유물 130건 195점과 기탁유물 63건 131점 등 모두 193건 326점이 무안군에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년 내 불교 AI 윤리 선언 채택해야”

10월 12일, 전자불전연구소 주관
‘AI 인과 · 업’ 주제 학술대회 개최
보일 스님 “기본 원칙 합의 필요”
7대 원칙과 6대 실행 과제 제시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이 10월 12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교 AI 윤리 선언’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맞춰 2년 내에 ‘불교 AI 윤리 선언’을 채택하고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은 10월 12일 서울 남산책방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주최·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주관 학술대회에서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초래될 사회 전반의 심리적 패닉(공황)에 대비해 불교계가 선제적으로 기본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의 대응이 일회성 이벤트나 단발성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식 윤리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일 스님은 이날 ‘불교 AI 윤리 선언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기존 ‘자비롭고 지혜로운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불교인 선언문(가안)’(2025)을 계승하고 불교 고유의 존재론·실천론적 기반을 반영한 ‘조계종 AI 윤리 선언(가안)’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7대 원칙으로는 △자비 △연기적 책임 △지혜와 정견 △중도 △인간 존엄과 불성 △방편과 다원성 △지속 실천을 제시했다.

이어 선언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7대 원칙을 반영한 초안 채택은 물론 △총무원 산하 상설 윤리위원회 신설 △사찰 실무 지침 제정 △종립 교육과정 연계 △아시아 불교 AI 헌장 등 국제 협력 확대 △백서 갱신 및 성과 지표 공유 등 ‘6대 실행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일 스님은 가톨릭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종단 차원의 조속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가톨릭이 2020년 ‘AI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시작으로 2026년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대비해 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단 역시 불성·연기·무아라는 존재론적 기반과 자비·지혜·중도·방편이라는 실천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윤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톨릭의 신-인간 구도와 달리 ‘모든 존재의 불성’에 기반한 존엄성과 연기적 상호 조건성, 관계론 중심 사유를 적용한 유연한 윤리관을 정립하자는 취지다.

보일 스님은 “AI 기술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가톨릭이 목소리를 내는 현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불교 역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신적 자산과 역량을 결집해 서구 유일신 전통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AI 윤리를 수립하고, 이를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게 인과와 업이 있는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진선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불교의 업설과 파핏의 관계 R을 토대로 한 AI 사용자 윤리 예비 고찰’을,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의 시대와 불교윤리의 가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의 목적은 진리 깨닫는 것”

제4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성파 스님 “차는 진리 탐구 이정표”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9일 해장보각에서 ‘제4회 통도사 차문화대학원 추계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가 ‘남방록에 나타난 센노 리큐의 차사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차 문화와 불교 선 사상의 관계를 조명하고 선차(禪茶)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9일 해장보각에서 ‘차와 선이 만나 도가 되다’를 주제로 ‘제4회 통도사 차문화대학원 추계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석학들이 각국의 선차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남방록(南方錄)에 나타난 센노 리큐의 차사상’을 통해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되고 음식은 굶주리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다도의 본뜻”이라며 “일본 다도의 본질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길이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 한 잔의 차 속에 참된 맛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쿠라모토 가오리 교수(일본 와세다대학)는 ‘남방록에 보이는 문답과 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쿠라모토 교수는 “일본 다도의 고전인 〈남방록〉은 선종의 수행, 그리고 공안(公案) 문답의 구조를 다도에 적용해 초암차(草庵茶)를 선수행으로 이론화한 것”이라며 “복잡한 형식보다는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선의 정신을 차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오등 스님(중국 절강공상대학 동아불교문화센터 소장)은 ‘현대 중국 사원에서 선다문화의 실천 형태’를 발표했다. 스님은 “현대 중국 사원에서 차는 ‘다선일미’라는 관념적 차원을 넘어 대중 교화의 훌륭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며 “사찰에서 대규모 다회를 열어 말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불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자연스럽게 사찰로 이끌고 승속(僧俗)이 차를 매개로 소통하는 공공의 실천 체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개회 법문에서 “진리라는 것은 국경도, 사람의 구분도, 고금과 동서도 관계없이 다 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차 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는 진리를 탐구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라는 시비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목적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 즉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며 수행으로서의 다도 정신을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수행 공간에는 차를 마시는 전통이 늘 함께하고 있다”며 “통도사가 한국 차의 성지로서 의미 있는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열게 된 만큼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대중들에게 많은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일타 스님 생애와 사상 조명

은해사·대각사상연구원 세미나
10월 21일 동국대 혜화관서

영천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동곡 일타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2026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사회로 진행되며,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원로의원)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이 ‘일타 스님의 생애와 사상-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겸임교수 법장 스님이 ‘일타 스님, 율사로서의 위상’,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일타 선사의 수행론-선사상과 선풍을 중심으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일타 스님의 교화행’,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일타 스님’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 교수, 김보과 동국대 강사, 김은영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율사로서 계율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수행자로서 선의 길을 굳건히 걸으신 일타 큰스님의 발자취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바탕으로 율사로서의 위상, 수행론, 교화행을 살펴보고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큰스님의 인연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배희정 기자

뇌허불교학술상에 윤소희 교수

수상작 ‘불교음악의 세계’
12월 24일 동국대서 시상식



‘2026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윤소희 동국대 한국음악학과 교수가 10월 14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윤 교수가 지난해 출간한 〈불교음악의 세계〉(동국대학교출판부)다.

뇌허불교학술상은 〈불교평론〉이 한국불교학의 태두인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매년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불교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불교음악의 세계〉는 고대 인도의 음성 행법부터 한국의 역사적 전승, 그리고 현대의 AI 음악과 명상 치유까지 불교음악의 전모를 집대성한 책이다. 불교음악의 형성과 전개, 불교신행과 음악, 21세기 불교음악을 조명하며 불교사와 음악사, 수행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불교음악의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보여준다.

심사위원회는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불교음악의 교리적 기원과 역사, 세계 각국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 600여 쪽에 이르는 이 분야 최초의 역저”라며 “이 책의 가치는 방대한 문헌과 음악 자료,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불교사와 음악사, 수행과 문화적 실천을 연결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역사적 전승과 오늘날의 신행을 함께 살피고, 한국불교음악의 특성을 세계불교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한 성과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소희 교수는 “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술상의 수상 소식을 듣고 한참을 고개 숙여 합장했다”면서 “역대 수상자에 비하면 부족한 제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며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00여 년 동안 불교가 한민족 문화의 토양이 됐듯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21세기를 물들이는 K-뮤직의 뿌리는 불교음악”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넓고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금은 1000만원이며 시상식은 12월 24일 오후 5시 서울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열린다. 배희정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창원 정인사
주 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정인사 정인학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 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반야사 불교대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양주 회암사지·언해불서, 세계유산 '시동'

회암사지 예비평가 충족 '가능성'
국가유산청 권고사항 보완 예정
경북불교문화원 학술대회 개최
추진위 발족 후 국내 후보 신청


경북불교문화원이 10월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양주 회암사지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배희정 기자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불교계와 경상북도가 '언해불서(諺解佛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며 국내 불교문화유산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이 다각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회암사지: 14세기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 고고유적' 예비평가 결과,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기준(ii 및 iii)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등재기준 (ii)는 건축·기술·예술 등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iii)은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를 뜻한다. 이코모스는 향후 등재 시 고려할 권고 사항으로 유산의 경계 확장과 등재기준 논리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언해불서 등재를 위한 움직임에도 시동이 걸렸다. (사)경북불교문화원(이사장 도륜 스님)은 10월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훈민정음과 한글불서'를 주제로 한글불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언해불서의 제작·유통, 보존·복원, 장정, 목판 인쇄기술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낙천 배재대 교수는 '불전 언해서를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 주제 발표를 통해 언해불서의 제작·유통 과정과 한글 확산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김영학 경희대 교수는 'Physical AI 기반 언해불서의 물리적 보존·재현 모델 구축 및 이야기 사서삼경 비교를 통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적 가치 규명'을 주제로 훼손된 문헌의 복원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새로운 보존·재현 방안을 제시했다. 홍순천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박사는 '한국불서의 장정형태'를 통해 불서의 장정에 나타나는 특징과 가치를 살폈으며, 박영덕 충청북도무형유산 각자장은 '기록과 각자'를 주제로 목판본 언해불서의 제작 역사와 각자 기술의 특징을 발표했다.

김무봉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참석자들은 언해불서를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의 실제 사용과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으로 평가했다. 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문헌의 역사성뿐 아니라 제작과 유통 과정,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언해불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감대를 모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불교문화원 이사장 도륜 스님은 "언해불서의 유산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도록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불교계는 12월 '언해불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내년 2월 국가유산청에 세계기록유산 국내 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묵에 담아낸 '형상 없는 경계'

반세기에 걸쳐 수묵화의 한 지평을 열어온 김대열 작가(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화업 50년을 결산하는 전시를 연다.

세종뮤지엄갤러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서울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에서 김대열 작가 기획초대전 '무상지경(無象之境, 형상 없는 경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최근작 30여 점과 이전작 40여 점 등 총 7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말과 글을 넘어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적 깨달음을 수묵으로 구현한 김 작가의 작품세계를 펼쳐보이는 자리다.

이 20㎝에 달하는 초대형 붓에 먹을 머금고 빠르게 뻗어나가는 필묵의 변화와 효과로 순간의 깨달음을 담는다. 섬세한 수묵의 농담 조절은 화면 가득 담박하고 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표작 '좌간운기(坐看雲起, 앉아서 구름 이는 곳을 바라보다)'는 중국 당대 시인 왕유(王維)의 시 '종남별업(終南別業)'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지·필·묵만으로 몰입의 깊이를 온전히 살려냈다는 평을 받는다. 풍부한 수묵의 조화와 일갈하듯 빠른 붓놀림이 자아내는 공간은 "물길이 다한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 이는 곳을 바라보다"는 시적 운치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김대열 화백 회고전 '무상지경(無象之境)'
10월 28일부터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서
화업 50년 여정 이전작 · 신작 등 70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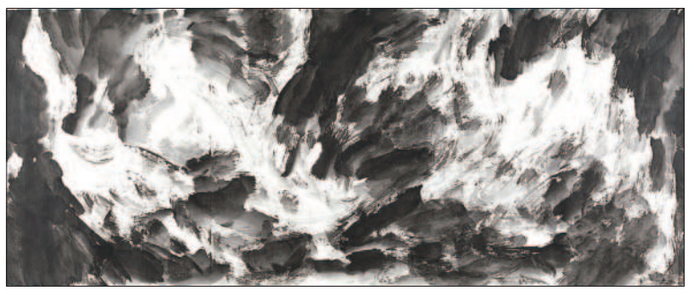
선종 사상과 현대 미학적 요소의 접점을 수묵화로 표현해 온 작가는 그간 '상외지상(象外之象)', '대상무형(大象無形)', '무상유상(無象有象)' 전시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도 형상 너머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선종의 깨달음, 본성(本性)을 탐구하기 위해 선어록(禪語錄)과 선지식을 찾아 공부하고 화두를 받아 간화선 수행을 거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대로 있음'인 동시에 언어를 뛰어넘는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화면을 압도하는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운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원통 지름 10cm, 털 길

김 작가는 작업노트를 통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알아차려 '참나'를 찾아가고자 한다"라며 "예무지경(藝無止境, 예술에는 끝이 없다)"이라는 말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김대열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부를 졸업한 뒤 국립대만사범대 학학원에서 석사, 단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를 지내고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와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선종사상과 시각예술〉 등 4권의 학술서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창작 활동과 학문적 연구를 병행해 왔다. 배희정 기자


좌간운기(坐看雲起), 화선지에 수묵, 144X362㎝, 2026.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⑥⓪ 망상분별(妄想分別)

착각과 왜곡의 병

妄 想 分 別

초기 불교 경전은 인간이 겪는 근원적 고통의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그 핵심에는 '빠판짜(Papañca)', 즉 '망상분별(妄想分別)' 또는 '희론(戱論)'이라 불리는 정신적 메커니즘이 있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면 촉(觸)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느낌[受]과 지각[想]이 생겨난다. 그러나 마음이 여기에 언어와 개념을 덧씌우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번져 나가며 관념을 증폭시킨다. 빠판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주관적 해석을 덧붙이고, 스스로 지어낸 관념의 굴레에 갇혀 고통을 키우는 '착각의 공장'이다.

이러한 망상분별은 오늘날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서 임상적 정신병리, 나아가 사회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개인적 차원에서 빠판짜는 '자의식 과잉'과 '반추적 사고'로 드러난다.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거듭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그렇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실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되풀이하며 고통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심화되면 현실 인식의 왜곡과 맞물려 정신병리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비현실적으로 확신하는 '과대망상',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강박장애'가 그 예다. 물론 이러한 질환을 망상분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각각 복합적인 원인과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이 지어낸 해석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인간은 그 해석이 구축한 세계에 갇힐 수 있다.

빠판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집단적 편견과 적대적 해석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됐다.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가르는 진영 논리, 편향된 정보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태는 집단화된 망상분별의 한 양상이다. 복잡한 현실을 선악의 단순한 서사로 재단하는 음모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처럼 마음이 빚어낸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왜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있다. 여실지견이란 선입견과 자의적 해석을 앞세우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듯한 서사를 덧붙이는 대신, '지금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정직한 자기 직시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이어지는 빠판짜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된다.

마음이 그려낸 관념의 그림자를 실재와 혼동하지 않는 것. 생각을 곧바로 '나' 혹은 '진실'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것.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정념(正念)은 망상분별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 지 진 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회 주 눌암 지정
주 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4~10/2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초발심자경문	시우송강	도반
2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3	기도	일타	효림
4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무비 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6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야마나 테츠시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법	우룡, 김현준	효림
8	붓다의 오리지널 명상법	일중	조계종출판사
9	근본중송	나가르주나	지식을만드는지식
10	도표로 읽는 화엄경	정병삼, 옥나영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밀교,즉신성불의 길	화령	운주사
2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무언화	덕조	조계종출판사
5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 사진	김영사
6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7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법구경 이야기 (1)	무념, 응진 역	옛길
9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10	디가니까야 (1)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이거, 내 얘기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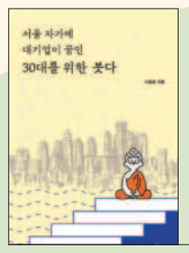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처의 생각하지 않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양지윤 옮김
포레스트북스
1만8800원



불교는 인생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뵐케 무호 지음
심지애 옮김
페이지2북스
1만9800원



서울 자가에 대기업이 꿈인 30대를 위한 붓다
이형준 지음
그린비
1만5000원

최근 몇 년 사이 '힙(Hip) 불교' 열풍을 타고 젊은 세대를 위한 불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부처의 생각하지 않는 연습〉 〈불교는 인생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이 꿈인 30대를 위한 붓다〉는 제목부터 그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렵고 낯선 불교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성공을 향해 달리다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을 직접 호명한다.

세 권의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의 고민과 질문에 답을 찾아 가면서, 동시에 불교가 젊은 세대의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편집자 주〉

생각이 너무 많다면

〈부처의 생각하지 않는 연습〉은 〈초역 부처의 말〉로 출판 시장의 불교 열풍을 이끈 코이케 류노스케의 신간이다.

책은 '부처의 마음'에 주목한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잡념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수행법을 소개한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집중은 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 SNS 속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생각을 그만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된다. 저자는 이러한 상태를 '생각병'이라고 부른다. 부처가 인간의 번뇌를 탐욕·분노·어리석음으로 설명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번뇌가 끊임없는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에 대한 분노,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가 생각의 소음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생각하지 않는 연습'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에 가깝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말하고, 듣고, 보고, 읽고, 먹고, 접촉하는 일상의 감각을 다시 살피는 것이다. 무심코 보는 대신 제대로 보고, 소리를 흘려듣는 대신 온전히 듣는다.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난다'고 단정하는 대신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한 걸음 물러선다.

이 작은 거리 두기가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이다.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와의 대담은 불교 수행의 통찰을 현대의 언어로 연결한다. 인간의 행동과 선택 상당 부분이 과거 경험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설명은 '알아차림'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2500년 전 부처가 들여다본 마음의 작동 방식이 오늘날의 뇌과학과 만나는 지점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독일 출신의 일본 선종 승려 뵐케 무호의 〈**불교는 인생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한층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살아야 할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은 저자는 죽음의 현실을 일찍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스님이 된 그의 삶은 이 책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어린 시절 삶과 죽음을 고민했던 경험과 수행 과정 등을 담담히 소개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전한다.

저자는 불교를 '게임'에 빗대 설명한다. "인생이 게임이라면 불교는 그 게임에서 미련 없이 나오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흔히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게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죽음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게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게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게임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저자는 '왜 자살로 게임을 끝내면 안 되는지' '다음 생은 정말 존재하는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게임 법칙은 같은지, 다른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게임(인생)'의 원리를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입시, 취업, 결혼, 승진, 재테크와 같은 삶의 단계마다 사회는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조차 잊는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다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좌선과 호흡,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그 기준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여기서 불교는 '믿어야 하는 종교'라기보다 '써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에게 불교의 수행법은 삶의 기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자가에 대기업" 그다음은?

인기 드라마 제목을 차용한 〈**서울 자가에 대기업이 꿈인 30대를 위한 붓다**〉는 호기심과 반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라고?

의외로 저자는 고등학교에서 15년 가까이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신규 교사 강사로도 활동하며 〈10대를 위한 자존감 수업〉 〈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글쓰기〉 〈마음 근육을 키우는 하루 10분의 기적〉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펴냈다.

저자는 그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만 28세에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부동산과 주식 공부에도 매진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뜻밖의 공허함이었다.

"이게 다인가?"

그러다 우연히 서점에서 붓다의 생에 관한 책을 만났다. 왕자의 삶을 버리고 29세에 궁전을 떠난 고타마 싯다르타. 완벽해 보이는 삶이 주는 공허함, 존재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질문,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6년의 방황.

저자는 완성된 성인 '붓다'가 아닌 흔들리고 망설이고 실패하면서 답을 찾아 나섰던 인간 '싯다르타'에 자신을 겹쳐본다. 그리고 싯다르타가 겪은 혼란과 좌절, 깨달음 이후의 여정을 들여다본다.

1부에서는 완벽해 보이던 왕자 싯다르타의 삶에 금이 가는 순간을, 2부는 궁전을 떠난 그가 답을 찾아 헤매는 6년을 탐색한다. 3부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싯다르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인지, 4부에서는 깨달음 이후 붓다가 된 이의 45년 여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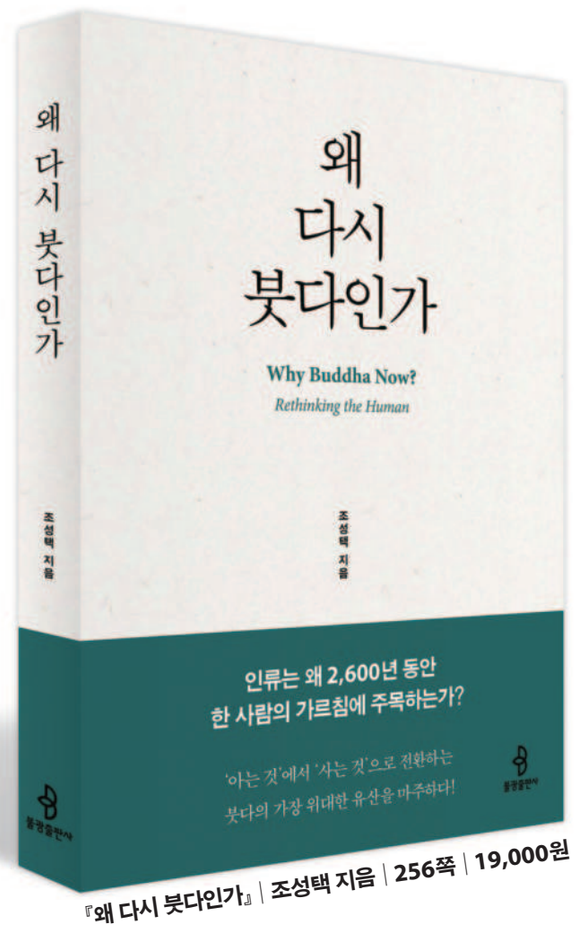
부처님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소개하며 각각의 에피소드에 저자의 짧은 해설을 덧붙이고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설계도 위를 걷고 있는가?' '당신의 라훌라는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부록으로 담긴 '30일 성찰 노트'에 질문의 답을 적어나가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그려진다.

저자는 행복을 위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거나 '서울 자가'나 '대기업'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좇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성공의 기준이 내 안이 아닌 바깥에 있을 때 끝내는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며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내 삶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지혜는 어떻게 삶이 되는가?



『왜 다시 붓다인가』 | 조성택 지음 | 256쪽 | 19,000원

만들어진 것은 달라질 수 있다!

'나'와 '세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고
왜 괴로운지 알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믿는 '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괴로움'도 원인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다.
붓다의 이 통찰은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 준다.

☆★☆ 이 책에 대한 찬사 ☆★☆

"쉽고 명쾌하게 푼 붓다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가 직면한 불안과 고통을 바라보는 '살아 있는 지혜'임을 보여 준다." _ 성해영 서울대 교수(『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저자)

"깨달음을 해설하는 흔한 저술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과 '붓다의 가르침'을 잇는 치열한 여정이 담긴 약도다." _ 강성용 서울대 교수(『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저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벽돌책’에 도전해 볼까?

두꺼운 책은 첫눈부터 독자를 압도한다. 분량을 가늠하는 순간 선뜻 손이 가지 않지만, 묘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책의 두께에는 저자가 들인 시간과 출판사가 감당한 공력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제록 도장 깨기〉와 〈밀교, 즉신성불의 길〉은 ‘벽돌책’의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는 천 년을 이어온 선어록을 다시 읽고, 다른 하나는 밀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을 한눈에 펼쳐 보인다. 올해가 가기 전, 조금은 묵직한 책 한 권을 골라보면 어떨까. 읽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래 남는 질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깨기

고광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760쪽 / 3만2000원

스무 번 번역으로 푼 ‘임제록’
‘12처(處)’ 중심, 핵심 선어 해석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는 전사(前史)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붓다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가 관심을 받으면서, 그전에 출간했던 〈할!〉도 ‘역주행’하며 완판됐다. 〈임제록〉을 19번이나 번역·퇴고해 펴낸 책이었지만 스님은 이참에 내용을 더 다듬기 위해 다시 번역을 시작했다.

대체 〈임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스무 차례나 번역하고 퇴고한 것일까?

〈임제록〉은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의 법문을 제자 삼성 혜연이 기록한 선어록이다. 달마에서 혜능, 마조와 백장, 황벽으로 이어진 조사선의 흐름을 계승한 임제의 가르침은 이후 임제종이라는 거대한 선맥으로 이어졌다. 한국 선불교 역시 임제의 법맥을 잇고 있다.

그만큼 익숙한 책이다. 동시에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하다. 임제의 말은 거침없다. 상대의 생각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듯한 ‘할’이 등장하고, 때로는 부처를 죽이고 조사까지 죽이라[殺佛殺祖]고 한다. 그래서 〈임제록〉은 오랫동안 선의 파격과 자유를 상징하는 텍스트로 읽혀왔다.

그런데 가장 익숙한 구절이 고광 스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흔히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문장이다.

“부처님은 무아(無我)를 깨달았는데, 그 제자가 없던 자아(自我)도 만들어서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은 스님은 이 문장이 등장하는 구절을 모두 찾아 읽었다. 니까야와 〈아함경〉을 함께 살피고, 한역 경전의 용어와 어원을 추적하면서 ‘처(處)’라는 한 글자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중요한 인식 구조인 ‘12처’를 해석의 중심축으로 세운다. 12처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나’와 ‘대상’을 구분하는지를 살피는 틀이다. 고광 스님은 ‘처’를 장소가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성립하는 인식의 작용으로 읽는다.

그러면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의미가 달라진다. 어디서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지침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세계가 과연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지, ‘나’라는 존재 역시 어떤 인식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하나의 질문이 〈임제록〉 전체를 읽는 열쇠가 된 셈이다.

고광 스님은 12처를 중심으로 ‘진정견해’, ‘무위진인’, ‘살불살조’ 등 임제의 핵심 선어를 새롭게 풀이한다. ‘진정견해’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지 않는 견해로, ‘무위진인’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아를 참된 자기로 붙잡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직접 살피는 말로 읽는다.

‘살불살조’ 역시 마찬가지다. 부처와 조사를 실제로 부정하라는 극단적인 선언이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나 깨달음마저 하나의 실체로 붙잡는 순간, 그것 역시 집착이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결국 임제의 파격은 무엇인가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한 파격이다. 불교에 기대고, 수행에 기대고,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기대는 순간조차 다시 돌아보라는 것이다.

고광 스님은 익숙한 번역을 의심하고 다른 경전과 대조하면서 임제의 말을 다시 살려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선어록을 ‘공부해야 하는 고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생각을 비춰보는 거울로 만나게 된다.

책의 두께가 부담스러운 독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도 좋다. 한 문장을 읽고 멈춰도 된다. 오히려 그 한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면 이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미 만난 셈이다.

여수령 기자



밀교, 즉신성불의 길

화령 정사 지음 / 운주사
880쪽 / 5만5000원

밀교의 세계 한 권으로 집대성
역사·경전·철학·수행 등 망라

비밀불교(秘密佛教). 밀교(密教)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진언과 다라니, 손가락으로 맺는 수인, 화려한 만다라, 호마와 같은 독특한 의례와 수행…. 누군가에게는 신비롭고 매력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낯선 불교의 한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밀교, 즉신성불의 길〉은 신비주의나 주술적 불교라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불교사상의 전체 흐름 속에서 밀교를 살펴보는 책이다.

두꺼운 분량만큼 다루는 범위도 넓다. 밀교의 기원과 역사에서 시작해 경전과 철학, 만다라, 진언과 수인, 관법에 이르기까지 밀교의 거의 전 영역을 한 권에 담았다. 그러나 이 책이 백과사전식 개론서와 다른 점은 그 많은 내용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어낸다는 데 있다.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즉신성불(即身成佛)’로 모인다.

말 그대로 ‘이 몸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무엇이고, ‘성불’은 무엇인가. 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밀교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핀다.

밀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별개의 불교가 아니다.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사상적 전개 속에서 형성됐으며, 중관의 공사상과 유식사상, 여래장·불성사상, 화엄사상 등 앞선 불교의 다양한 성과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면서 독자적인 교리와 수행체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밀교를 이해하려면 진언이나 만다라 같은 외형적인 특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놓인 사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책이 많은 지면을 들여 밀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밀교의 수행법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낯설고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상적 토대에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핵심은 몸과 말과 마음이다. 밀교에서는 이를 신밀(身密)·구밀(口密)·의밀(意密)이라고 한다. 손으로 결인하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 관법을 행한다. 몸과 말과 마음을 따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부처의 몸·말·마음과 상응하도록 한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바꾸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말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서 삶의 분열이 생긴다.

밀교의 삼밀수행은 바로 이 분열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다.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이 지점에서 ‘즉신성불’의 의미도 달라진다. 즉신성불은 특별한 신통력을 얻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죽고 난 뒤 다른 세계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몸과 삶을 떠나 별도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일까. 아자관, 월륜관, 오상성신관, 오자엄신관, 준제법을 비롯해 진언과 결인, 본존관, 다라니 염송, 만다라관, 오륜탑관, 호마법 등은 각각 따로 떨어진 신비한 의식이 아니다.

각 수행법은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로 하고, 수행자 자신과 부처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책은 각 수행법이 어떤 교리적 배경에서 비롯됐고, 무엇을 관하며, 수행자가 무엇을 체득하고자 하는지까지 설명한다.

그래서 밀교 수행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일종의 ‘전체 지도’ 역할을 한다.

밀교라는 넓은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이 책의 묵직함을 기꺼이 감수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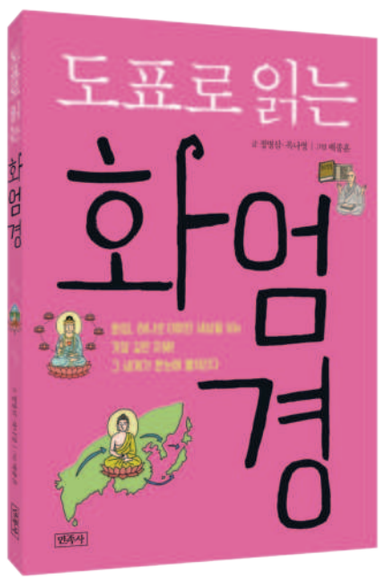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총지종 정사로 동국대 역경위원, 총지종 교육원장, 보디미트라 ILBF(국제재가불자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80권 『화엄경』, 한 권으로 읽는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화엄의 세계
복잡한 사상과 선재동자의 여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읽는다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방대한 『화엄경』의 전체 구성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한눈에!

화엄이 말하는 핵심 사상
어려운 교리를 그림과 해설로 쉽게!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입법계품」의 장대한 구도 여행까지!



글 정병삼·옥나영 | 그림 배종훈 | 192쪽 | 18,500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기복 아닌 작복의 기도로

지금 이 세계戒

⑨ 잘해 왔고 잘했어요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절한 하루가 될 날이다. 바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입시에 대한 집중과 열정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한 나라다. 어려운 역사를 거치고 가난했던 과거를 보냈던 기억에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 이런 입시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학입시를 다루는 경우도 많지만, 결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당장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도의 잘못을 탓하거나 불만을 말하기 전, 지금은 곁에서 힘이 되는 응원을 해 주고 함께 이 시기를 보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줘야 한다. 어차피 지금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수능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0월이 되면 한 해 중 기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워진다. 전국의 기도처와 특별한 기도도량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불자와 비불자 모두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간절히 합장을 한 채 하나 된 기도와 축원을 올린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대학입시 기도이다.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시절을 보내 본 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과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대학에 합격하냐"며 다소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항상 말한다. "기도하기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기도하기에 바라는 일이 무엇이든 이뤄진다"고.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분명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것은 복을 빌어서 얻는 '기복(祈福)'적 행위다. 하지만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기복의 그것이 아닌, 자신의 간절한 발원(마음)과 그에 따른 수행(노력),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혹은 대상)이 하나가 되어 복을 만드는 '작복(作福)'의 기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연기(緣起)'와 '업(業)'이다. 과거 인도 베다에서의 업은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는 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여겼다. 그런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카스트'라는 신분제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런 결정된 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태어나 살아가며 행(行)하는 자신의 삶에 의해 업이 형성되고 그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법을 설하셨다. 즉, 결정론이었던 업을 수행적으로 이끌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과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고정된 자신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의 개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수행)에 따라 그 삶과 모습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바뀔 수 있기에 '무상(無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수능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자신의 내일을 보다 나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곁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해달라는 허망한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그 노력만큼만 성취하고 만족할 수 있게 지켜 달라는 작복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 "
> **수능시험 앞두고 입시 기도 열기 뜨거워**
> **수험생 노력 결실로 이끄는 작복의 기도**
>
> **수능 후 펼쳐질 일도 삶의 전부는 아니야**
> **다시 해야 할 일 찾고 나아가는 이들 되길**
>
> **'되는' 삶 좇지 말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
> **자신 믿고 행함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
>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교육제도와 현실에 의해 12년간의 교육을 받고 그 끝에서 대학이라는 사회로의 출발점을 위해 수능을 치러야만 한다.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마음껏 놀거나 쉬어 보지도 못한 채 열심히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수행자의 삶과 같이 보내온 고 3의 시간이 큰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공부와 노력을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는 것뿐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혹시라는 걱정과 의심을 'Only Don't Know(오직 모를 뿐)'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Only Do(오직 할 뿐)'한다면, 숭산 큰스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은산철벽의 수능도 단번에 꿰뚫어 내일의 참된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피겨 김연아 선수) "생각이 많아지면 자세만 헝클어져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역도 박혜정 선수) 그동안 수없이 연습해 온 노력의 궤적이 있기에 그것을 믿고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해 온 노력을 자신이 의심하고 걱정한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창시절에 해 온 '노력의 여정이 값진 보상이 될 것이다("The journey is the reward." 스티브 잡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다. 정말 다양한 일과 감정이 차츰 아이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현실도 삶의 전체는 아니다.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삶이 바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삶의 전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그 순간'이 다시금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혹여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모든 것이 점철되고 굳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다시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자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커서 ○○이 될 거예요", "○○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되거나' '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되어서 시작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무언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무언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관념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있다.

수능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는다.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학과인지도,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도 모른 채 대학의 이름만을 좇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새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비로소 대학생이 되어서도 무엇을 배우는지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된다. "대학생만 되면 ○○를 할 거야",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라는 말은 마치 새빨간 거짓말처럼 되어버리고, 다시 '하는' 삶이 아닌 '되는' 삶을 좇아 허겁지겁 내달리기 바쁜 일상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다.

삶은 수행이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그것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통해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수행에 앞서 인욕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난 후 정진과 선정을 닦아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지금은 눈앞의 수능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해 온 자신을 굳게 믿어, 필연적인 수능을 모든 수험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치르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사유해 보고, 하려는 것을 찾아 스스로 나아갔으면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는 가르침과 같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워 온 수많은 공부와 지식을 이제 자신의 토대로 삼아 그 끝에서 자신만의 한 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자.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잘해 왔고 잘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공부의 노력과 참아 온 시간을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하루에 쏟아내고 타인에 의한 자신이 아닌, 자신에 의한 자신의 하루를 만끽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를 합장하며 발원합니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사부대중 일동

금강경 독송 정진기도 첫째주 월, 화, 수요일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무로 따뜻하게, 감으로 달콤하게, 버섯으로 깊게

비움과 치유의 계절
가을 식재료 3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가을빛이 깊어가는 산사의 공양간은 겨울을 앞두고 제철 식재료를 손질하는 손길로 분주하다. 일교차가 커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산사의 밥상에는 무와 감, 버섯처럼 계절의 기운을 머금은 식재료가 오른다. 강한 양념으로 맛을 내기보다 재료가 지닌 맛을 살리는 사찰음식. 무와 감, 버섯을 통해 산사의 가을 밥상을 들여다봤다.

쓰임새 많은 가을의 맛, 무

가을이 깊어지면 산사 공양간에서 자주 만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무다. 무콩나물국이나 버섯을 넣은 맑은 국은 서늘해진 날씨에 따뜻한 기운을 더하는 음식이다. 수분이 풍부하고 특유의 시원한 맛을 지닌 무는 국과 나물, 김치 등 다양한 사찰음식에 두루 쓰인다.

무에는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은 무가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다. 다만 무를 먹는다고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국물과 균형 잡힌 식사는 환절기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는 겨울을 준비하는 저장 식재료로도 요긴하다. 가늘게 썰어 말린 무말랭이는 물에 불려 무치거나 조림으로 만들고, 무청은 말려 시래기로 활용한다. 무김치도 겨우내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담가 둔다. 버릴 것 없이 손질해 두고 먹는 방식이다.

들깨를 더해 고소한 맛을 내거나 채수로 담백하게 끓여낸 무 요리는 재료를 과하게 꾸미지 않고도 충분한 맛을 낸다. 제철에 거둔 식재료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산사의 밥상에는 자연이 내어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도 담겨 있다.

설탕 대신 자연의 단맛, 감

가을 산사의 풍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감은 제철의 맛과 영양을 함께 전하는 과일이다. 감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단단한 감은 아삭한 식감으로 즐기고, 잘 익은 홍시는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운다.

자연의 맛 살린 사찰음식에서 찾는 계절의 지혜
천천히 씹고 맛 살피는 한 끼 속 소박한 가르침

산사에서는 수확한 감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잘 익은 감은 홍시로 먹고, 껍질을 벗긴 감은 곶감이나 감말랭이로 만들어 두고두고 즐긴다. 제철에 거둔 식재료를 바로 먹는 데 그치지 않고 말리고 익혀 저장하는 과정은 계절의 풍요로움을 오래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다.

감은 사찰음식의 양념으로도 활용된다. 잘 익은 홍시는 무나 무청을 무칠 때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준다.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도 재료의 풍미를 살릴 수 있어 담백한 맛을 추구하는 사찰음식과 잘 어울린다. 과일의 단맛을 활용하면 양념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홍시와 곶감은 먹는 시기에 따라 식감과 풍미가 달라지는 것도 매력이다. 수분이 많은 홍시는 부드럽고 촉촉하며, 곶감은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맛이 농축된다. 자연이 익힌 감의 단맛은 인공적인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음식에 풍미를 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철 과일을 양념으로 활용하고 남은 식재료를 저장해 먹는 산사의 방식은 자연의 맛을 존중하고 음식의 쓰임을 넓히는 지혜다.

깊은 감칠맛과 풍부한 식감, 버섯

버섯은 가을 밥상에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다.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은 국과 찌개, 나물, 전골에 두루 쓰인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에서는 버섯을 우려낸 채수가 국물 맛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과 식감이 다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비롯해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부 버섯은 비타민 D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표고버섯은 말리는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한다.

버섯의 장점은 영양뿐 아니라 맛을 내는 방식에도 있다. 표고버섯은 특유의 향과 감칠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깊게 하고, 느타리버섯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나물이나 볶음 요리에 어울린다. 새송이버섯은 쫄깃한 식감을 살려 구이나 조림으로 즐기기 좋다. 여러 버섯을 함께 넣으면 각기 다른 향과 식감이 어우러져 음식의 맛이 한층 풍성해진다.

사찰음식은 파와 마늘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강한 양념보다 식재료가 지닌 맛과 향을 살리는 데 무게를 둔다. 버섯은 이러한 조리법에 잘 어울리는 재료다. 충분히 우려낸 버섯 채수에 제철 채소를 넣고 끓이면 복잡한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이 난다.

재료를 다듬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맛이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은 공양간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을 더 넣어 맛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재료가 지닌 맛을 알아차리고 필요한 만큼만 더하는 것. 가을 버섯 밥상은 비움이 곧 부족함을 뜻하지 않으며, 절제 속에서도 충분한 풍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와 감, 버섯은 특별한 조리법이나 값비싼 재료 없이도 계절의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한다. 제철 식재료를 알맞게 먹고, 남김없이 활용하며,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고를 헤아리는 일은 산사의 공양간이 전하는 소박한 가르침이다.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천천히 씹고 맛을 살피는 한 끼. 가을 공양간이 전하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 문화가 있는 날' 현장

"홍시로 단맛 내고 무청도 살리고"

두유버섯전 등 사찰음식 실습
제철 재료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잘 익은 홍시로 단맛을 내고, 무와 무청은 함께 무쳐 먹는다. 버섯에 두유를 더해 전을 부치기도 한다. 익숙한 식재료에 새로운 조리법을 더하자 평소와 다른 음식이 완성됐다.

가을이 무르익은 10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조리실습실. '사찰음식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찰음식 장인 향밀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가을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이날 실습 메뉴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오롯이 담아낸 두유버섯전과 홍시·무·무청무침. 설탕 대신 홍시로 단맛을 내고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법을 배우며 사찰음식을 일상 밥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날 향민 스님은 사찰음식의 기본 정신과 가을 식재료 다듬는 법을 차근차근 전하며 수강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인스턴트와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식재료 본연의 맛을 일상 밥상으로 이끄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사찰음식 문화가 있는 날'에서 사찰음식 장인 향밀 스님이 시민들에게 가을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보고 일상 밥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설탕 대신 과일이나 조청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도 사찰음식 특징 중 하나다.

설탕 대신 홍시, 무와 무청은 함께

이날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메뉴는 홍시·무·무청무침이었다. 잘 익은 홍시를 양념에 활용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조리법이 눈길을 끌었다.

김유경 참가자(양천구 신정동)는 "무생채를 만들 때 설탕이나 물엿 대신 홍시를 갈아 넣어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며 "무와 무청의 아삭한 식감에 홍시의 부드러운 단맛이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무와 무청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평소 익숙하게 먹는 식재료라도 손질법과 조리법을 달리하면 쓰임새가 넓어진다. 참가자들은 향밀 스님의 설명에 따라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며 사찰음식의 조리 과정을 익혔다.

두유버섯전 실습도 이어졌다. 두유를 활용해 버섯전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다. 평소 아침마다 두유를 즐겨 마신다는 한 참가자는 "두유를 이렇게 음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집에서도 가족을 위해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직접 만들며 배운 건강한 식습관

이번 프로그램에는 평소 식생활을 돌아보고 사찰음식을 일상에 활용해 보려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심은진 참가자(서초구 서초동)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자주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철 음식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참여했다"며 "입맛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입에 넣었을 때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음식을 내 몸에 더 많이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아이의 식습관에도 사찰음식을 활용해 볼 생각"이라며 "아이에게 자극적인 맛 대신 자연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늘 배운 조리법을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별 재료보다 중요한 건 활용 방법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사찰음식 문화가 있는 날'은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그 특징과 조리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사찰음식의 방식을 일상 식생활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실습에 사용한 무와 무청, 홍시, 버섯 역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다. 설탕 대신 과일의 단맛을 활용하고 한 가지 재료를 여러 방식으로 조리하는 법을 익히면서 사찰음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밀 스님은 "사찰음식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며 "익숙한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더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상에 머무는 사찰음식 레시피

두부버섯전

■ 재료
생표고 2개, 양송이 3~4개, 느타리 한 줌, 청양고추 1개, 시금치 한 줌, 두유 1C, 밀가루 1C, 소금 약간, 채수 약간

■ 조리 방법
1.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은 다지듯이 잘게 썰고, 느타리 버섯은 잘게 찢어 다진다.
2. 시금치도 다듬어서 잘게 썰고 청양고추도 다진다.
3. 재료를 전부 섞어 밀가루와 두유를 넣어 반죽한다.
4. 반죽이 너무 되직하면 채수를 조금 넣어 농도를 조절하고 소금 간한다.
5. 한 숟갈씩 떠서 전을 지진다.
6. 다 구워진 전을 초간장과 함께 낸다.



홍시·무·무청무침

■ 재료
무 1개, 무청 30g, 홍고추 2개, 고춧가루 3T, 집간장 2와 1/2T, 식초 2T, 매실청 1T, 조청 1과 1/2T, 통깨 1T, 홍시 2개

■ 조리 방법
1. 무는 가늘게 채를 썰고 무청은 송송 썬다.
2. 홍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빼고 곱게 채를 썬다.
3. 홍시는 으깨어 고춧가루, 집간장, 식초, 매실청, 조청, 통깨를 넣어 양념을 만든다.
4. 큰 볼에 홍시양념과 무, 무청을 넣고 잘 버무려 낸다.

자료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98호 | A18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능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 면적 : 1500평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100평 (건축 조성 7년 되었음)
- 법구, 냉장고, 세탁기, 집기류 일체 보시합니다.
- 바다 인접, 교통편리, 주차장 500평
- 가액 : 10억원

스님 직접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0억원

010-4585-6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03번지
- 대지 700평, 사용할 수 있는 밭 500평
- 건물 : 9동, 향토방 2동
- 차량진입, 주차장, 남향평풍처럼싸여 있고, 큰 비가와도 안전한 도량
- 자두, 매실, 감나무, 뽕나무, 돌배, 두릅, 머위, 고사리 등등 다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 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
- 부 지 : 총 633평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306.6평, 전 26.6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 액 : 현금 1억 9천만원 (대출 2억 포함)

원해 스님 010-6766-6982

사 찰 안 내

팔공산 사찰부지 · 수행처

- 갓바위 차량 약 10분 거리
- 토지 약 500평 (대지 · 농지 포함)
- 주택 28평, 정원 및 주차 공간
- 조용한 자연환경
- 사찰 · 수행공간 활용 검토 가능(인허가 별도)
- 가액 : 6억 원

010-8822-5239 석미송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고성(창원 근접)
- 부지 : 359평(종교부지, 대지, 전)
- 건물 : 대웅전 10평, 삼성각, 종각, 요사채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수행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
- 부지 : 총 2460평(대지152평, 전2308평, 계획관리지역)
- 즉시 법회 가능(국도에서 700m, 산속)
- 차량진입 양호, 건물3동, 삼태기 모양(자연장 적지)
- 드룹, 취나물, 곤드레, 곰취 등 식재
- 접근성 최고 : 대형병원 10분 IC, KTX역 10분거리, 대형마트 10분거리
- 가액 : 평당 27만원(협의 가능, 스님 건강 문제로)

010-3231-4499
010-4580-846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사 부근
- 규 모 : 총 588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시 설 : 시수도, 지하암반수
- 대 출 : 3억원
- 가 액 : 8억 5천만원

010-5309-911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쳔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쉬었을 때, 전립선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287개 병증 목차 수록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 감초, 산사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우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소리쟁이잎,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헛개환 [지구자(枳椇子)]



재료명: 헛개열매, 오갈피뿌리, 적화수오뿌리,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국화, 표고버섯, 뽕나무뿌리, 녹차, 두충, 대추, 감초, 칡, 산사열매, 맥아

간 해독으로 활력을 찾읍시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98호 | A19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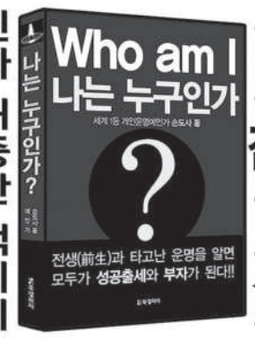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꼭 읽어봐주세요 진짜 귀중한 책이니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경북 안동 사찰 좋은 인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576-4450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사찰 인수자 연락 요망(전월세 가능)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부전 스님 모십니다

지역:울산 백련암
급여:월 200만원
연령:60세 이상, 70세 이하
불공, 제사 집전하실 분
조석 예불(없음)
사시 불공(때에 따라서 함)

010-3034-2113

비구니 기도스님 모심

- 서울 도심포교원에서 정성과 사명감을 가진 분이라면 나이 불문
- 초보자도 가능함
- 경력자 우대

02-338-21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국내 최초 슬로우조깅 전용 설계

관절 부담은 덜고 매일 30분, 더 가볍게

40~60대를 위한
슬로우조깅화



- 제로 드롭 18mm 쿠션 설계
- 특허출원 기술 (Patent Pending)
- 대표가 100km 신고 검증 완료
- 중족부 착지 자연유도

화이트 · 브라운 · 블랙

정가 ~~85,000원~~
판매가 75,000원

오늘부터 슬로우조깅을 시작하세요
마하몰 1688-9099
www.mahamall.co.kr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인생의 성공 실패, 고민 해결 '사주와 육효 18문답' 속에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사업운	매매운	승진	합격
궁합	결혼운	택일	이사	개업
한 해의 길월·흉월		한 달의 길일·흉일		

◆ 강의 주요 내용
1. 1년 완강 / 사주와 (주역)육효 강의
2. 주 2회, 하루 2시간 강의 / 수강료 : **1개월 50만원**
3. 개강일 : **12월 26일** (월요일) 13:00
4. 강의교재는 「**사주와 육효 18문답**」으로 진행 (책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 핵심 요점도 함께 강의)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사주와 육효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인생의 고민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고 싶은 분
- 재물, 사업, 취업, 결혼, 이사, 개업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은 분

2026 특별판매!
5만 5000원
택배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341-4867 | 수강료 1개월 5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 네이버 검색 '서경철학관'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종교법인

약천사

- 빙의 퇴마
- 기공 치유
- 자극요법 치유
- 최면 치유
- 염력 치유

- 우울증
- 약물중독
- 확실한 치유
- 불면증
- 공황장애

*기술전수 합니다. *중매상담(무료)

약손 현오 스님
예약 직통 010-7170-5508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43-10

사전에 오늘의 불교 충실히 담기길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⑭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3)
스님·승려·중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 '스님', '승려', '중'을 찾으면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 항목 기본 화면엔 욕망과 조롱이 담긴 관련 속담 27개가 이어져, 자세한 설명을 찾으러 온 독자가 옛 조롱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한 종교를 이해할 때 공간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절과 교회가 수행과 신앙의 공간을 알려 준다면, 스님과 목사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을 알려 준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종교의 첫인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은 불교의 종교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 '스님', '승려', '중'을 차례로 검색해 본다.

'스님'을 입력하면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높임의 뜻을 알려 주는 풀이이므로, 그 대상을 알려면 '승려'를 다시 검색해야 한다. "불교의 출가 수행자"라는 설명이 나온다. 집을 떠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무슨 수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혹시 예문에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읽어 본다. 예문은 단 하나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었다."

승려는 뜻풀이에서도 떠나고, 예문에서도 또 떠난다. 물론 출가는 승려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집을 떠난 뒤에는 수행하고 배우며 가르침을 전하는 삶이 이어진다. '승려' 항목은 그 삶의 시작을 거듭 짚으면서도 다음 장면은 보여 주지 않는다. 어디를 떠나왔는지는 알겠지만, 그 뒤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전의 설명은 그 출발점에서 멈춰 버린 느낌이다.

이번에는 '중'을 찾아본다. "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이제야 어디에서 살며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다. 비하적 쓰임을 알리는 설명도 있다. 말의 역사 정보에 관련 속담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할 만큼 정보가 많다. 앞선 두 항목에서는 짧았던 설명이 이곳에서는 화면을 가득 채운다.

'스님'을 알려면 '중'으로

'스님'에서 출발해 '승려'를 거쳐, 정작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중'에서 만나게 된다. 같은 사람을 가리켜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존중이 되기도 하고 모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심해서 써야 할 이름이라고 알리면서 그 말에 더 구체적인 설명과 풍부한 정보를 모아 두었다면, 사전의 안내는 어딘가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어긋남은 다른 종교인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더 뚜렷해진다. 〈우리말샘〉의 '승려'와 '목사'가 그렇다. 각각의 종교인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승려'는 앞서 본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뜻풀이의 전부다. 반면 '목사'에는 "개신교 성직자"라는 설명에 더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를 관리하며,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한다"는 직무가 자세히 담겨 있다. 단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

이를 대조한 이유는 글자 수를 똑같이 맞추자는 데 있지 않다. 승려에게도 목사처럼 '성직자'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종교마다 수행과 성직,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 설명도 달라야 한다. 다만 한쪽은 어떤 사람인지 짧게 밝히고 끝내면서, 다른 쪽은 핵심 역할과 공동체 안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려 준다. 그 차이를 묻는 것이다.

'수행자'라는 말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에게 수행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까.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모습일까. 그 말만으로 예불과 법회, 가르침을 전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활동까지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사전은 이미 아는 사람보다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목사' 뜻풀이엔 자세한 직무, 승려는 부족
예문도 배움·공동체 의미 없이 단절만 보여
'중' 속담선 조롱·비하·혐오 마주하게 돼
사전에 상세한 설명 담고 실제 용례 보태야
불교 어휘 관심, 구체적 수정으로 이어지길

고립만을 보여주는 예문

뜻풀이 아래 예문으로 내려가면 두 종교인은 더욱 대조적인 장면에 서 있다. '승려'에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었다"가, '목사'에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제시된다. 한쪽은 승려가 되는 순간에 있고, 다른 쪽은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에 있다. 한쪽에서는 떠나는 모습이, 다른 쪽에서는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문장이 유일한 예문이라는 점은 아쉽다. 마치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는 사진첩에서 집을 떠나는 날의 사진만 한 장 꺼내 놓은 것과 같다. 그 사진이 거짓은 아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중요한 일상은 보여 주지 못한다.

출가 뒤에는 새로운 배움과 정진, 수행 공동체, 가르침을 나누는 관계가 있다.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다'가 만나는 문장에서는 오직 이전 관계의 단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문 하나를 읽었다고 곧바로 승려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떠나온 곳을 보여 주는 만큼 새롭게 몸담은 공동체와 그 안의 일상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조롱과 모욕 가득한 속담

'중' 항목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중' 항목 아래에는 관련 속담 27개와 그 풀이가 별도로 '펼치기'를 누르지 않아도 기본 화면에 제시돼 있었다. 그곳에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가 안 남는다", "중도 개[소]도 아니다", "중을 보고 칼을 뽑는다", "중 쳐 죽이고 살인한다" 등 욕망과 조롱, 비하와 폭력을 담은 속담이 계속 이어진다. 앞에서는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사람을 소재로 삼은 거친 말들이 줄을 잇는다. 자세한 설명을 찾으러 온 독자가 옛 조롱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는 구조다.

역사 속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다. 사전에는 불편한 언어도 기록할 책임이 있다. 다만 옛말을 보존하는 일과 오늘의 검색 화면에 그 말을 어떻게 펼쳐 놓을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박물관이 과거의 유물을 보관한다고 해서 시대적 배경 설명도 없이 모두 현재의 생활용품처럼 진열하지는 않는다. 사전도 그 말이 놓였던 시대와 맥락, 오늘날 사용했을 때의 문제를 함께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유사한 표현은 묶고, 시대와 사용 맥락을 함께 설명하며, 각 표현의 현재 쓰임을 살펴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를 표시하면 된다. 원하는 이용자만 펼쳐 읽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늘의 종교인을 이해하려는 검색과 옛 언어 문화를 알아보려는 검색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그 옛말들이 조롱과 혐오로 가득하다면 사전의 화면은 그 차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종교인의 현재를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상세한 설명을 '중'에만 두지 않고 중립어인 '승려'에도 담는 것이다. '승려'에 출가와 수행뿐 아니라 교법을 실천하고 전하는 역할을 함께 담으면 된다. 예문에도 출가 다음 장면이 필요하다. 기존 문장을 없앨 이유는 없다. 여기에 수행하고 법문하며 법회를 이끌고 가르침을 전하는 실제 용례를 찾아 출전을 확인하고 보태면 된다.

훌륭한 스님들의 미담으로 사전을 채우자는 요구가 아니다. 목사의 설교가 특별한 선행이 아니듯, 승려의 법문과 교화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종교인의 일상적인 활동이다. 그 평범한 현재가 사전에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호칭의 높낮이만이 아니다. 그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풍경을 보여 줄 것인가도 중요하다. 오늘의 이름 아래 오늘의 삶을 놓는 일. 사전이 해야 할 작은 정비이지만, 독자가 만나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관심이 변화로 이어지기를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도 불교 어휘의 사전 기술에 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개선의 뜻을 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가운 일이다. 사전을 고치는 일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만큼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관심이 구체적인 수정으로 이어져, 사전 속에서도 오늘날의 불교를 조금 더 충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제25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지관止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2026. 11. 7(토) 10:00~18:00 동국대학교 본관 남산홀(430석)

주최 밝은사람들연구소
후원 조계종 미래본부, 안국선원
협찬 도서출판 운주사

참가비 없고, 당일 현장 접수합니다.
문의 010-2391-5629

좌 장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
발표1 초기불교 : 정준영 (서불대 불교학과 교수)
발표2 대승불교 : 안성두 (전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발표3 티베트불교 : 조석효 (경남대 학술연구교수)
발표4 불교·명상과학 : 미산 스님 (김완두,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
발표5 심 리 학 :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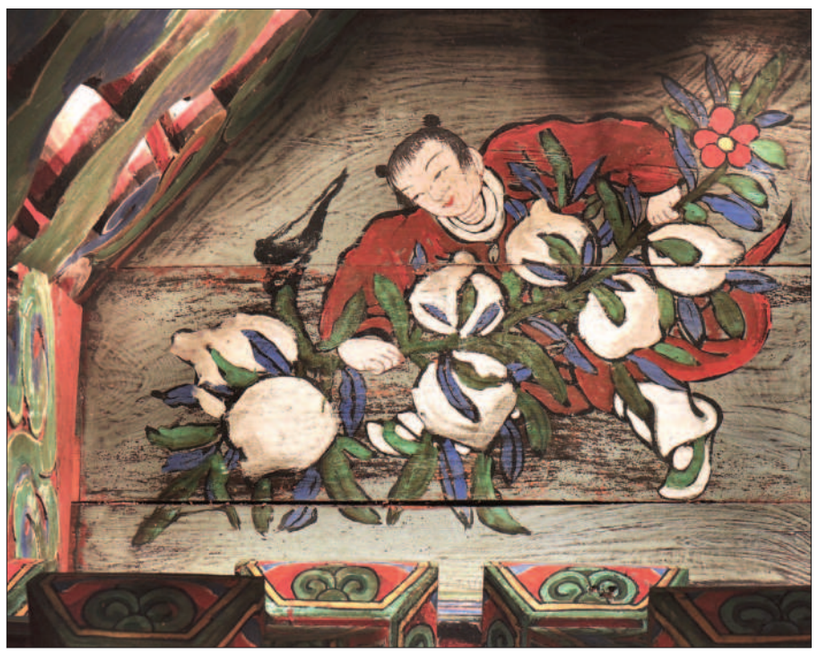
● 유튜브 채널 "밝은사람들연구소"에서 지난 학술연찬회 강연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하시면,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밝은사람들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공양비천, 천도 가지 공양 올리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⑲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비천벽화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천정의 천도 공양비천.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천정의 석류 공양비천.

한 사찰 내 세 불전건축에 걸쳐 총 45점 비천벽화 조성한 사례는 남양주 흥국사가 유일하며 최대 비천벽화 속에 도교적 신선 담아

	제작 시기	평균 크기	비천 수	비천 구성	조형 특성
대웅보전	1888년	166×90cm	11점	주악:10, 공양:1	비천 모두 남성, 주악비천 중심
시왕전	1888년	130×55cm	15점	주악:10, 공양:3, 가무:2	훤칠한 천동, 천녀의 주악비천 중심
영산전	1892년	85×80cm	19점	주악:9, 공양:6, 가무:3, 신선:1	과일 공양 올리는 여섯 분의 동자비천 인상적

〈표〉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구성과 현황

남양주 흥국사, 경산화소의 본거지

한국산사의 비천벽화는 완주 송광사 대웅전, 합천 해인사 명부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현존한다. 비천벽화는 하나의 전각에 보통 10여 점씩 집단 형식으로 조성된다. 세 전각을 하나로 합친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경우 비천벽화를 무려 42점이나 조성했다. 하나의 전각에 기악과 가무, 공양비천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어 장관을 연출한다. 한 전각에 현존하는 비천벽화 최대 최다의 사례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수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어디일까? 그곳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남양주 흥국사다.

남양주 흥국사는 다섯 규정소(糾正所), 곧 오규정소 중의 하나였다. 오규정소는 조선시대에 승풍을 정화하고 규율을 감독하기 위해 다섯 곳의 큰 절에 설치한 감독기관이다. 조선 중기에는 봉은사, 용주사, 봉선사, 개원사, 중흥사 등에 설치했다. 1790년 조선 후기의 오규정소는 봉은사, 용주사, 봉선사, 백련사, 흥국사(남양주) 등의 다섯 곳이었다. 규정소는 왕실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비는 원당(願堂) 성격도 가졌다. 규정소의 '규정(糾正)'은 잘못을 밝혀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남양주 흥국사는 규범을 갖춘 오규정소 중의 한 곳이었고, 동시에 예술인을 배출하던 화소사찰(畵所寺刹)이었다.

화소사찰은 불화를 그리는 화원, 곧 불모(佛母)들을 전문적으로 길러 배출하는 화원 양성 사찰을 말한다. 화소사찰은 화원 양성과 불모 화맥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소가 경산화소, 북방화소, 남방화소 셋이다. 북방화소는 금강산 일대를 화원 활동 중심지로 삼은 화소다. 북방화소 중심에 유점사가 있었다. 남방화소의 중심 사찰은 마곡사였다. 마곡사는 지금도 전국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불모들의 비림을 조성하여 화맥과 화풍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어 한국 불교미술사의 성소로 조명되고 있다.

경산화소는 서울·경기지역 불모 양성소로 중심 사찰이 바로 남양주 흥국사다. 그 무렵 흥국사 화원들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 "흥국사 중은 아궁이에 불 때면서도 부지깽이로 시왕초를 그린다." 경산화소의 본거지였던 남양주 흥국사의 위상은 대웅보전과 영산전, 시왕전 등을 장엄한 벽화에 투영돼 있다. 전국의 사찰 중에서 비천벽화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배경도 그 같은 경산화소의 중심 사찰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대웅전 · 영산전 · 시왕전에 45점 비천벽화

흥국사는 오늘날 몇 점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을까? 흥국사 비천벽화는 모두 불전건물 내부 빗반자천정에 조성했다. 대웅보전 천정 빗반자에 11점, 시왕전에 15점, 그리고 영산전에 19점 등 총 45점의 비천벽화를 간직하고 있다.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을 천진난만한 동자와 동녀로, 무속인의 모습으로, 전문 예술인의 모습으로, 신선의 경지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장면이 경이롭다. 여러 화원의 저마다 다른 개성과 안목, 표현, 채색 등으로 비천벽화의 흐름과 양식 등을 한자리에 결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사찰의 세 건축공간에 걸쳐 다양한 붓질로 해석한 비천벽화 45점을 펼쳐 놓은 곳은 남양주 흥국사가 유일하다. 하나의 소재로 세 곳의 불전장엄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의 계승과 흐름이라는 불교미술사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구성과 현황은 〈표〉와 같다.

세 불전의 비천벽화 제작 시기는 거의 동일한 시기로 본다. 대웅보전과 시왕전은 1888년 제암 스님과 벽암 스님의 단청불사 때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며 영산전의 비천벽화는 그로부터 4년 후인 1892년 제암 스님이 영산전을 창립하여 단청불사할 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附)흥국사사적〉에 임진년(1892년) 제암대덕이 공사비를 모금해서 영산전을 창립하고 단청불사를 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1892년 5월에 그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사 공양비천 벽화의 백미

남양주 흥국사 세 불전의 비천벽화 중에서 종교교의와 장엄예술의 미를 두루 갖춘 수작은 영산전의 비천벽화다. 영산전의 비천벽화 19점 중에서도 어간 출입문 위의 주악비천 세 점과 순수한 동자로 표현한 공양비천 여섯 점의 벽화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간 출입문 위의 주악비천은 원형고리로 장식한 선녀머리의 여성 비천이다. 해금, 횡적 등을 연주한다. 천의와 표대 자락이 뒤엉킨 곡선이 음악의 선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색채, 구도, 형태 묘사, 분위기, 선율 등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종교와 예술이 만난 장엄예술의 극적인 승화 장면을 잘 보여준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비천벽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 동자로 표현한 다양한 공양비천의 해맑음과 천진난만한 표정에 있다. 뭉게구름 위에 천연스럽게 앉아 잘 익은 커다란 석류를 두 손으로 받쳐 든 동자의 해맑은 표정을 보라. 익어 터진 석류의 씨앗이 곧 저 동자이고, 동자가 곧 씨앗이다. 석류는 다남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또 다른 공양비천 동자는 머리 위로 붉은 쟁반을 두 손 받쳐 들고 간다. 붉은 쟁반에는 하얀 천도(天桃) 두 개와 부처님 손 모양으로 생긴 불수감 두 개를 담았다. 천도는 장수의 상징이고, 불수감은 다복의 염원을 담고 있다. 민간신앙에서 석류와 천도와 불수감은 '삼다(三多) 문양'으로 불린다. 다남, 다수, 다복의 상징성 때문이다. 석류와 천도와 불수감을 앳된 동자가 공양 올리는 장면으로 표현한 비천벽화 속에 민간의 간절한 기복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산전 비천벽화 속엔 특별한 장면도 눈에 띈다. 오방색 옷차림을 한 동자가 한 손엔 도끼를 들고 다른 손엔 약초 바구니를 들고 가는 특별한 벽화다. 모티프는 하선고(何仙姑)로 보인다. '선고'는 도교적 선녀를 말한다. 하선고는 쉽게 말해 하씨 성을 가진 선녀의 의미다. 중국의 팔선 중에서 유일한 여성 선녀로 알려진다. 팔선도에서 하선고는 한 손엔 도끼를 들고 어깨엔 꽃바구니를 멘 모습으로 묘사한다. 공양비천의 벽화 속에 도교적 신선 개념이 중첩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승려 장인 중심의 화원 집단이 민간 장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엄미술에서 종교적 교의 자리에 민간의 기복 염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벽화 속엔 두꺼비와 함께 등장하는 특별한 천인도 보인다. 그 인물은 역사 속 실존인물로 유해섬이라는 사람이다. '해섬'은 바다에 사는 두꺼비라는 뜻이다. 두꺼비 등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하마선인'으로 불리곤 했다. 두꺼비는 발가락이 세 개라 '삼족섬'으로 불렀다. 벽화 속 두꺼비의 발가락을 세 개 표현하고 있어 재밌다. 두꺼비는 어디든 유해섬을 데려다주지만 한번씩 물속으로 도망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끈에 엽전을 달아 낚아 올렸다고 한다. 엽전을 물고 있는 두꺼비 형상은 재물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삼족섬은 부의 화신으로 민가에서 환영받았다. 벽화 속 유해섬과 두꺼비의 표현은 재물과 복록을 바라는 민간의 기복을 반영한 것이다.

영산전 벽화의 압권은 천도 가지를 든 동자상이다. 동자의 붉은 상의가 강한 인상을 남긴다. 동자는 자연스럽게 부러진 큰 나뭇가지를 두 손에 들고 앞으로 성큼 나아간다. 가지는 천도 나뭇가지다. 무성한 잎은 여전히 짙푸르다. 한 송이 붉은 꽃도 생기 가득하다. 가지에는 일곱 개의 탐스러운 천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가지가 부러진 이유를 알 것 같다. 곤륜산의 서왕모가 궁중의 요지에서 신선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 때 신선들 앞에 내놓은 불로장생의 반도(蟠桃)가 저 복숭아 이런가? 부처님께 천도를 공양 올리러 가는 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환희로운가? 공양비천 동자의 발을 보라. 뒷굽이 한껏 들려 있다. 한국산사 공양비천 벽화의 백미다. 환희의 공양예경을 올린다. 영산전 벽화 속에 보현행원의 붉은 꽃이 피었다.



노재학 작가

2027년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돌로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6월 말은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계절입니다.
예약접수중
출발일 : 1차 6월23일~7월01일
2차 7월05일~7월13일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
-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
2차 27년1월21일 출발~26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4월08일 출발~4월17일 도착
27년 5월24일 출발~6월02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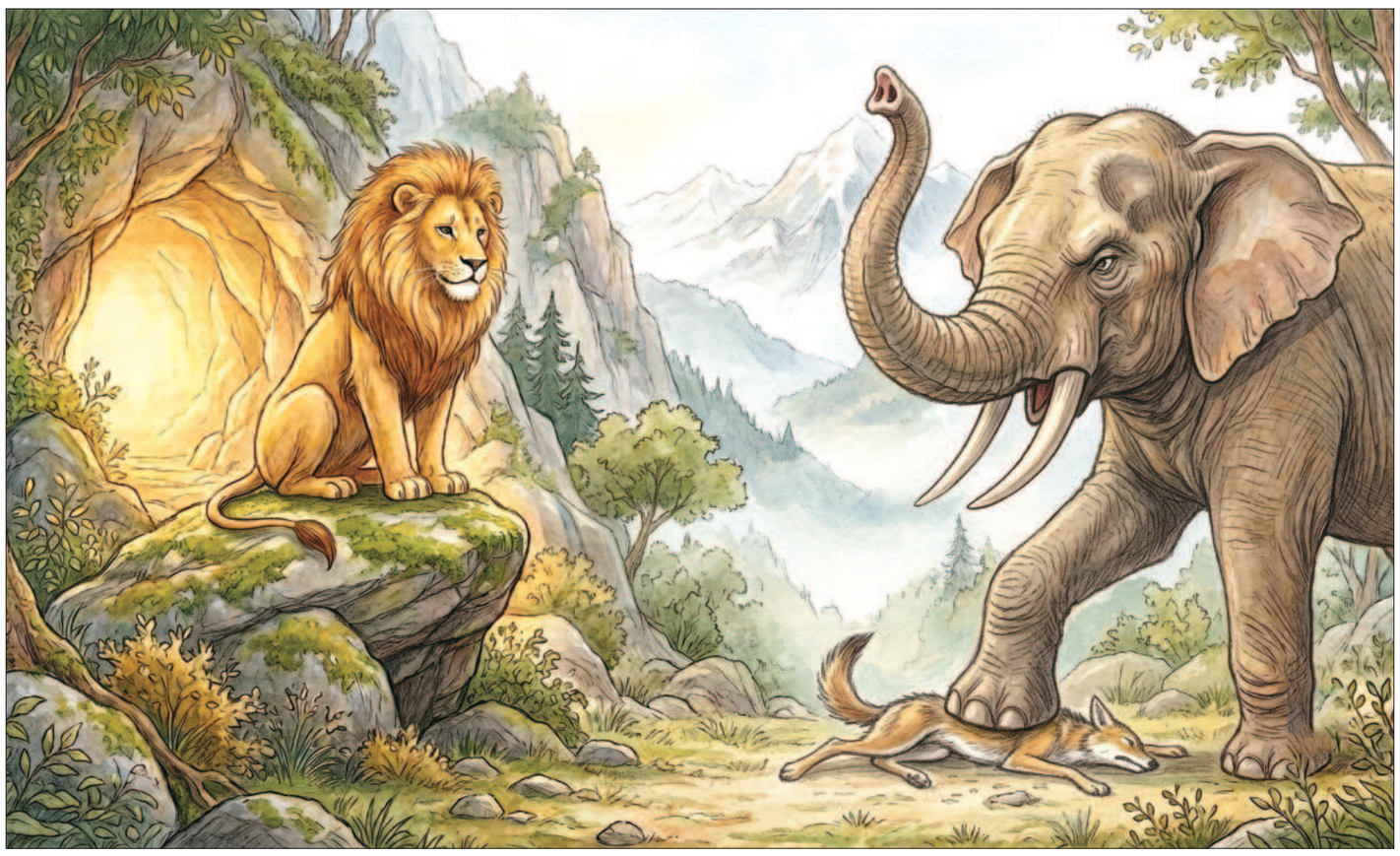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승냥이의 교만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⑪ 교만의 끝 :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자 흉내 내다 자멸에 이른 승냥이
강자와 자신 동일시한 자의 오만함
교만이 초래한 비극 보여주는 동화
'강자 동일시' 현상, 경쟁이 만든 욕망
타인 모방 아닌 행복 본질 성찰 필요

만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잘나가는 주변 사람 이야기만 하는 이가 있다. 어제는 국회의원, 또는 시장과 만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대학 교수와 오랫동안 술을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했다는 식이다. 권력이나 명성이 있는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이니 말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주위에서 목격하게 된다. "우리 아들은 의사고 동생은 검사야"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자랑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존재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앞서 말한 일종의 인정 욕구인 것이다. 어느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이 그 대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의 권위와 검사의 권력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위험한 감정이다. 여기에 빠지면 자칫 주변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불교 동화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화는 교만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승냥이가 사자 흉내를 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원래 제목은 '비로차 자타카(Viroca Jātaka)'이다. 여기서 '비로차'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다.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불리는 비로자나불(Vairocana) 역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이상하다. 교만을 떨다가 자멸한 승냥이를 빛나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된 사연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주 오랜 옛날 히말라야 산기슭 황금 동굴에 용맹하고 자비로운 사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동굴로 돌아오다가 한 승냥이와 마주치게 된다. 겁에 질린 승냥이는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말한다.

"위대한 백수의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고기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자는 승냥이를 거두고 사냥한 먹이를 함께 나누면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승냥이는 너무 잘 먹은 탓인지 몸이 점점 비대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른다.

'사자와 나는 똑같이 네발 달린 짐승인데,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왜 내가 매번 사자가 사냥해 온 고기나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하지. 나도 사자처럼 코끼리를 직접 사냥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마침내 승냥이는 사자에게 직접 코끼리를 사냥하겠다고 말한다. 승냥이의 오만함을 알아차린 사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승냥이여, 그대의 몸으로는 결코 코끼리와 대적할 수 없다.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승냥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내가 얻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지내라."

이처럼 말렸지만, 승냥이는 말을 듣지 않고 코끼리를 사냥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냥이는 황금 동굴에서 나와 사자처럼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지나가던 코끼리의 정수리를 향해 용맹스럽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수리에 닿기도 전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코끼리는 땅에 넘어진 승냥이 머리를 커다란 발로 사정없이 밟아버렸다. 결국 승냥이는 온몸이 부서진 채 숨을 거두게 된다. 무모한 장면을 지켜본 사자가 말한다.

"그대의 머리가 쪼개지고 박살 나는구나. 그대의 모든 늑골 또한 파괴됐다. 오늘 참으로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교만의 늪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 전생의 승냥이는 지금의 데바닷타이며, 사자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교만의 끝, 자멸

동화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당시 부처님의 사촌인 데바닷타는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게 된다. 마치 동화 속 승냥이가 사자가 물어다 준 사냥감 덕분에 살이 찐 것처럼, 데바닷타 역시 부처님 덕분에 승가에서 위세와 영예를 누린 것이다.

그런데 세력이 조금씩 커지자 교만해진 데바닷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 덕분에 얻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중에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는 땅이 갈라져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경전에서는 전한다. 교만의 끝에 이른 자의 비극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목을 빛나는 존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승냥이의 무모하고 교만한 행동에 대한 역설과 풍자가 담겨 있다. 사자가 주는 고기를 먹고 몸집이 커지자, 승냥이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착각했다. 그런 승냥이의 허세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다. 동화 속 사자의 말처럼 승냥이는 코끼리의 발에 밟혀 눈부시게 빛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한때 온 나라를 들썩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공적인 직책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문화, 체육계와 여러 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자신은 물론 대통령까지 파면에 이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어찌 보면 동화 속 승냥이처럼 행동하다 자멸에 이른 셈이다.

널리 알려진 이솝 우화 가운데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있다. 당나귀가 사냥꾼들이 말려 놓은 사자 가죽을 쓰고 마을로 들어가 사자 흉내를 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지만,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팬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여우가 말한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 누군지 알겠구나."

당나귀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목소리뿐이겠는가. 아무리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쓴다 해도 당나귀의 큰 귀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자신을 강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착각이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앞서 말한 교만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 돈 중독과 일중독에 빠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로 '강자 동일시'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나를 강자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모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강자에 대한 부러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는 약자한테 엄격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받아들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중독에 빠질 만큼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자위하면서.

여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권력이나 돈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또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강자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동화 속 승냥이가 사자처럼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강자에 대한 부러움과 무력감이 섞여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사자처럼 살면 행복하고 승냥이로 살면 불행한 것일까? 승냥이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 자족하는 삶이 있을 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강자가 돼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본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크 라캉의 지적처럼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던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내 것도 아닌 욕망에 모든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돌아보지 않고 사자를 흉내 내다가 자멸에 이르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그대로 전 우주에 음파로써 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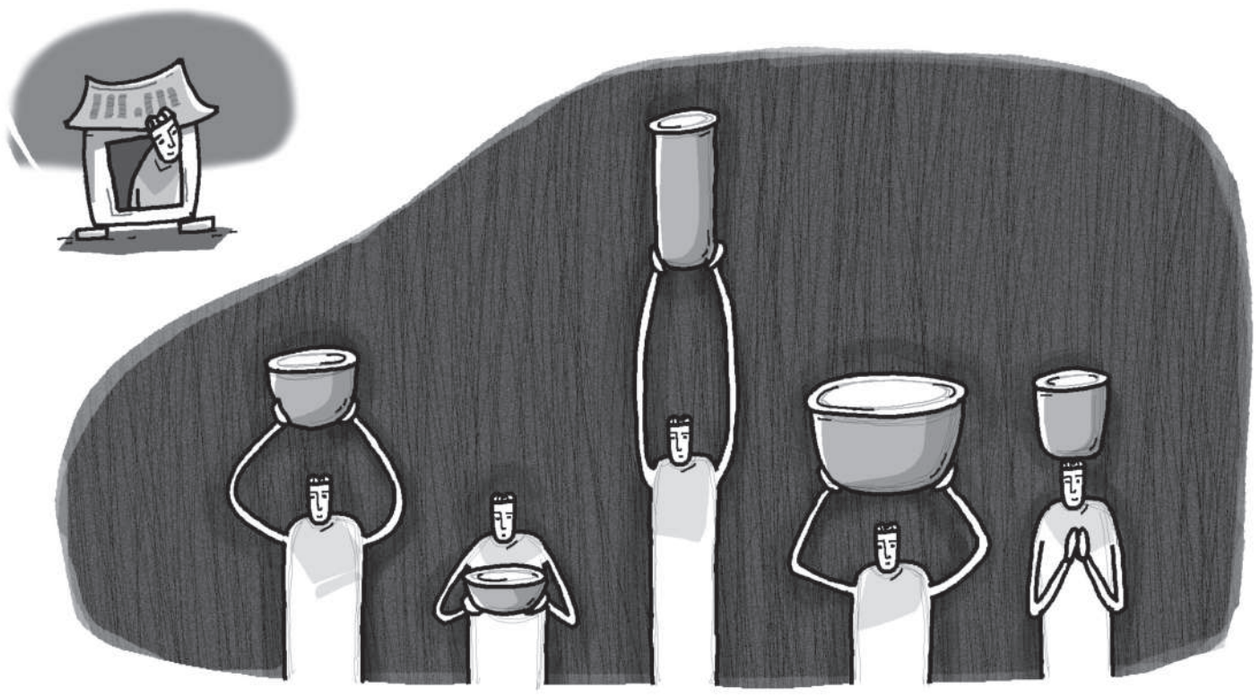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간단하게 이렇게 오계를 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전자에는 모두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유유하고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고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내 마음과 같이 항상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말며, 과음하게 되면 항상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망취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꼿꼿이 내 중심을 지키시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 오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쓰되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참, 마음이다 하면 진짜로 마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쓰는데 어떤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천차만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을 골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근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계를 받고 설법을 듣고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참선이다 하는 것도, 생활이 즉 참선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그치고 드러누워서 죽는다면 지구도 돌아가다가 끝나는 거와 같이, 자기가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이상 모두가 움죽거리고 삽니다. 자도 숨을 쉬고 자고. 야, 24시간 움죽거리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숨 안 쉬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가 숨 쉬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참선이라 이 소립니다. 이 모두가 참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에 지구도 같이 돌아가다가 여러분이 다 했다고 일어나면 지구가 끊어집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즉 말하자면 내 이 생활 아닌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린 이 세계에서도, 야,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형성되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이 오계를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실이다. 그러면 정신계는 또 무엇이냐. 정신계도 진실이다. 그렇다면 양면이 다 우리가 이 계를 받고 진실하게만 하신다면, 이 모습과 이 정신계 마음과 내 육신을 모두 잘 이끌어 가지고 갈 때 남들도, 상대도 잘 이끌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즉 말하자면 걸음을 걷지 않고 함이 없이 걸음을 걷는다, 함이 없는 손이다, 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물 한 컵을 먹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마르니까 물 마실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신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면 바로 이 속의 생명들의 중생들은, 의식들은 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니까, 즉 말하자면 항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같이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계는커녕 단 한 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거 같지만 엄청난 도리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면서도 함이 없는 것, 함이 없으면서 그냥 할 뿐이었다. 그냥 걸으면 걸었을 뿐인데 걸은 사이가 없다. 내가 말은 했는데 말한 사이가 없다. 내가 듣기는 했는데 들은 사이가 영 없다. 이게 모두가 여러분이 진실한 길을 걷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데에 그게 진짜…. 이 길을 그냥 길로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길을 걸어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뒤집어서 걸어 보면 바로 걷는 거를 알게 되는 이런 이치가 있죠.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걸으라고 했다가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거꾸로 다닐 수도 있고 거꾸로 설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그냥 저런 데로 갈 수도 있고 큰 강도 건널 수 있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국에서 서독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이 서독도 올 수 있고 서독에서 한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찰나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고 온다 이러는 거는 사사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치지, 어떻게 근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딴 사람한테 결부가 되겠습니까?

일을 봐야 되니까 아프면 아픈 사람하고 둘이 아니게 돼야 그 병을, 의사로서 그 병을 안에 가서 고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사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아들이 아프다 이럴 때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부모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알기 이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리만리 아주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들한테로 가려도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들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정말이지 하늘같이 가지고 있겠지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찰나에 거기 들어가서 의사가 돼 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하고 또 집이 은행에 다 넘어간다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여하게 해결하면서 너끈히 믿고 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도 정말 즐거운 영락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천당이다 이 소립니다. 이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를 잘 이끌어서 내가 잘 행동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거든지 모두 타파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그게 바로 천당 아니겠습니까.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생 세계, 업보 세계, 유전성 또는 영계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

☞ A24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치도 쉬는 사이 없이 수레가 굴러가는 거와 같다

☞ A23면에서 계속

려면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고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 앞서 잘못된 입력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 입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 가면서 살아나가길 바라는 것이지 나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주머니에서 한 사람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주머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다는 게 벌어지고 산다는 게 벌어지고 아프다는 게 벌어지고,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 하고많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매대기치는 그 현상을 여러분은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내 가슴이 안 아프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고쳐 드리고 잘 살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여러분의 무엇을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 돈을 모으겠다는 거, 그런 것이 만약에 중들 틈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한테는 여러분이 이익을 보지 못하죠. 이익할 수가 없죠. 마음의 음파는 전 우주를 돌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에 다 음파로써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연이다, 무슨 거짓이다 또는 이거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정확합니다, 아주.

옛날에, 다 따 가고 남은 고추 이렇게 붙은 거 하나를 입이라도 축이라고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면서 그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물 한 바가지하고 같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씹으면서 물 몇 모금을 마셨단 말입니다. 내가 먹기 싫을 만큼 마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뭔 생각이 난 줄 아세요? 물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수화풍으로 건더기가 생겨서 형성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지금. 지수화풍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또 죽어서도 지수화풍으로 그냥 모두 나누어져서 흩어진단 말입니다. 물은 물대로 가고 흙은 흙대로 떨어지고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불은 불대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한 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다. 무슨 부자로 살아서 돈을 많이 쓰고 모두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웃을 겁니다.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에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으로써 그 일체 바다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지구의 반밖에는, 이 지구가 물속으로 반밖에는 안 차 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수분이 없으면 못 산다. 공기가 없으면 못 산다. 이 따뜻함이, 온기가 없으면 못 산다. 땅이 없으면 딛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모든 게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이런 결론이죠. 이런 결론이 주어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잘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살았다가는 이 지구에서 벗어나기커녕 오히려 뒤집어쓰고 축생으로 모습을 가지고 날 수도 있고, 아수라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냥 알기 쉽게 이 깡패로 날 수도 있고 또는 진흙땅에 묻혀 있는 생명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떠다니면서 남의 유전이나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 있었다는 것만 알지 죽은 줄은 모르고 자기가 아는 집에 갔어도, 자기가 있었으니까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를 모른 체하거든. 그러니까 '왜 나를 보고도 모른 체하느냐. 넌 참 나쁘다.' 하고 건드리는 게 병이 되는 거죠.

이 모두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참….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애로가 없고 평온하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몽땅 네 뿌리가 하는 거지 네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너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굴려 놔라. 그래야 입력이 된다. 굴려 놔라.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건 한 치도 쉬는 사이가 없이 수레가 굴러가는 거와 같다. 그런데 그 수레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항상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된다면 너무도 사는 게 기쁘고 또 미래로 나가면서 자식들을 길러도 그것이, 하다못해 돌 위에 갖다 세워 놔도 산다. 이거는 부모를 또 한생각으로서 둘 아니게 모두 거기다 놓는다면 조상들도 그저 한도량으로, 부처님 한도량으로 모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재사 지낼 때에 반찬, 국, 밥 이런 걸 왜 안 놓느냐. 사람은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저 어떡하면 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 돈이 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에
>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가 하면
> 한생각으로써 그 일체 바다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떡은 우주의 근본으로 놓고 과일은, 이 꽃공양을 올리는데 꽃이 피어서 지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열려서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축생으로부터 모든 미생물까지도.

그러니 이 뜻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아주 약소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져서 모든 게 내 거 아닌 게 없이 될 때에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자기 앞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영혼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먹에 쥐고 다니진 않아도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각하면 그냥 이루어지고 그럭하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로 우리는 돌진해야 된다.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는 미생물이다, 축생이다, 사람이다, 사람 아닌 또 사람이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데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이런다면 공장에서 모든 물건이 아주 적합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형성되고 내 마음대로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모습을 수천수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될 때엔 너무도 여러분은 평화롭고 너무도 시원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데가 멀다고 그러죠.

그러나 요기서 조 문지방 넘어서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딴 혹성과 이 혹성, 얼른 쉽게 말해서 토성이나 이 지금 지구, 이것이 한 발짝, 한 발짝이 아니라 요 문, 요 문 나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멀어도 먼 게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게 없다. 똑같이 한생각에 그냥 뛰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빨리 알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자손들도, 이게 뭐, 자손들 가르치는 데 돈이 드니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간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키고 나가는 거, 변소에 가서 똥을 눈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참선이구나. 이것도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치구나. 잠을 자는데 숨을 안 쉽니까? 이것도 바로 참선이구나. 그래서 드러눕는 거는 와선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거는 행선이라고 합니다. 앉아 있는 건 좌선이라고 하고요. 서 있는 거는 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그냥 생활이 그대로가 여여하게 참선이 되고 여여하게 사는 진리가 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탤런트와 같이 지금, 전자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 따라서 이 세상에 형성돼서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이 되면 함이 없이 모든 거를 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기저기 몇 수십 리 밖에 찾아다니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순 에너지로만 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속에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모두 '기(氣)'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를 딴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략)

하여튼 이러한 데서 모두 여러분이 발전을 하고, 마음의 지혜가 발전을 해서, 지혜가 커서 보는 것도 심안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듣게 되고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젠 그 말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한바다와 같이 된다면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금 정화가 돼서 청정하게 물이 만들어져서 이 비로 내려올 때, 요만한 풀 한 포기라고 그 비를 안 먹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습니다. 사람이나 이런 초식이나 나무들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 먹고도 남죠.

그러니 이러한 큰마음을 쓰시고 우리가 오계를 설한 오늘, 오계도 그냥 '하지 말라'는 없습니다.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하면 약주가 안되고 망주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타인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라. 이렇다면 밉다 곱다 나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걸 간편하게 마쳤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한 한생각에 우리는 우주를 뒹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두 여러분과 같이 성불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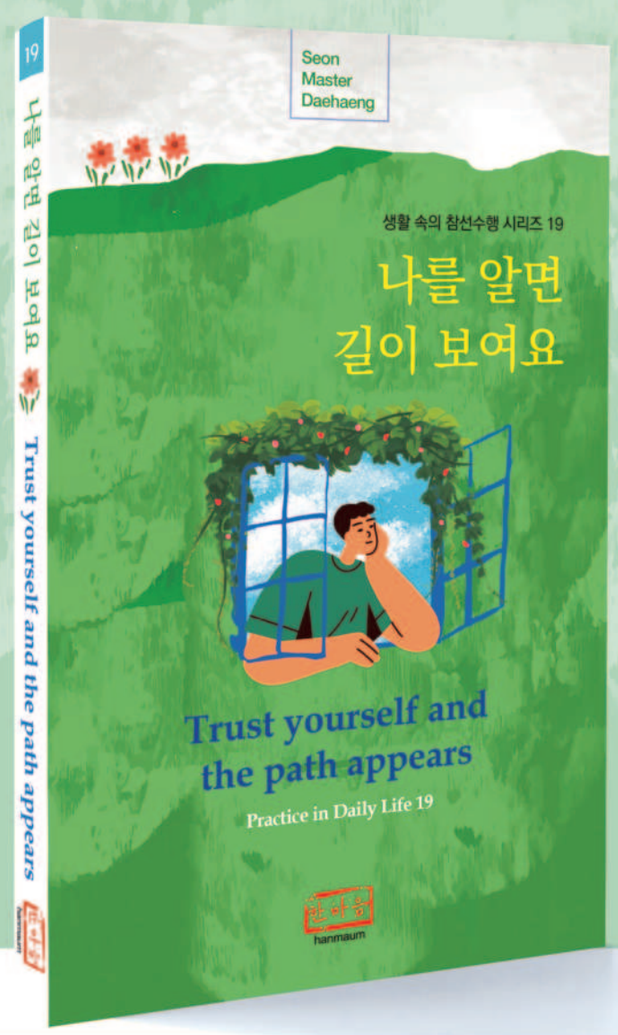
(연비와 음성 공양이 끝나고) 인제 여러분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가 현실에 그냥 여여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미래는 일 초 후가 미래고 일 초 전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살이로 산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양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9년 8월 1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⑱ 사별 후 찾아온 상실감과 고마움

고마움으로 채워가는 온전한 홀로서기

권위의 갑옷과 가족의 상처

상담실을 찾은 김상담 어르신(남·85세)은 공직에서 30년간 근무 후 은퇴한, 외모가 단정하고 매너 있는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실한 삶 같았으나, 그 이면에는 평생 가슴속 새겨진 책임감과 삶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르신의 가정은 과거 해외에서 모은 재산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사촌이 그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한 순간에 집안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은 사회생활 초기부터 월급을 모두 집에 보낼 만큼 평생 절약과 가족 부양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강박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맞물려 집안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표출됐습니다.

불행히도 아들을 사고로 잃는 고통을 겪었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이혼 원인을 아버지에게 돌리며 가족 간의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가장'의 상실감

어르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결혼 초기부터 질환을 앓던 아내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별 직후 우울증과 불안으로 자살 생각까지 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어르신은 매일 옷 하나 챙겨 입기도 버거운 스스로를 보며 그제야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바깥일까지 하며 가정을 훌륭히 이끈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홀로 맞은 명절날, 친정을 먼저 챙기는 자녀 내외와 주변 배려를 지켜보면서 "아내가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가엾게 보고, 초라해진 것 같다"며 위축감을 토로했습니다.

어르신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조차 "자녀들이 다 챙겨 주니 내가 할 필요가 없다"며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당연한 보살핌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일방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견디며 보살핌의 책임을 다하느라 심리적 소진을 겪고,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자녀들의 깊은 고통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상담 초기, 어르신은 가족과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는 강한 방어기제를 보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어르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자의 변함없는 지지와 프로그램 활동이 이어지며, 견고했던 마음의 벽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릴 적 동생과의

자신감 상실과 위축, 아내 사별 후 극심

가부장적 권위와 책임감에 대한 성찰

상호의존의 연기 자각 · 아상 내려놓기

추억을 얘기하며,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던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어르신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기 생각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 짓고 당연시하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스스로 깨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자녀의 돌봄과 관심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태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고마움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만남에서도 화를 누르고 부딪힘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동네 마트의 위치를 물으며 자립을 시도하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규칙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등 어르신은 비로소 주체적이고 평안한 홀로서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서로 기대어 선 삶의 연기(緣起) 깨닫기

어르신은 평생 공직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거목처럼 홀로 우뚝 서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상호의존의 진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묶음의 갈대가 서로를 맞대어 의지하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존재하느니라. 만일 한쪽 갈대를 치워버리면 다른 갈대 역시 쓰러지고 마느니라."

어르신은 자신이 기둥처럼 가족을 지탱했다고 여겼기에 집안에서는 일방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아내의 희생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옷 한 벌조차 혼자 챙겨 입지 못하고 깊이 휘청거리는 스스로를 마주하며, 어르신은 가슴 시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홀로 강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내라는 또 하나의 갈대 묶음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뒷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가부장의 갑옷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돌봄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생각을 거두고 "고맙다"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하심(下心)이야말로,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연기의 참된 이치를 깨닫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배우며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홀로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㊷ 수능 전날 약국을 찾은 은밀한 이유

시험 당일 첫 복용 피해야 할 약

"우황청심원 하나 주세요."

"수능 치시나 보네요. 자녀분이 우황청심원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뇨, 제가 시험 치는데요."

"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엥? 저, 고3인데요."

"아이고, 저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까워지면 약국에는 우황청심원을 찾는 손님이 부쩍 많아진다. 특히 수능 전날이 그렇다.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이 우황청심원이 좋은지, 안정액이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한 천왕보심단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도 단골 질문 중 하나다. 이럴 때 약사로서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우황청심원은 두근거림이나 정신적 불안 등에 사용하는 약이고, 천왕보심단 역시 불안, 초조, 두근거림 등에 사용하는 약이 맞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을 수능 당일이나 수능 전날 단 한 번 복용했을 때 시험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두 약 모두 불안·두근거림 등 증상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이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효능·효과가 허가돼 있다는 사실과 건강한 수험생이 시험 직전 한 번 복용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두 약 복용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부작용으로 졸음이나 어지러움, 위장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험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능 전날 갑자기 긴장된다며 처음 이 약을 찾는 학생에게는 선뜻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이전에 시험을 앞두고 우황청심원이나 천왕보심단을 먹어본 적은 있는지, 그때 졸리거나 속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주의점을 알려준다.

평소 시험만 앞두면 심하게 긴장하는 학생이라면 중요한 시험이 닥치기 전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복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모의고사처럼 부담이 덜한 날 미리 복용해 보고 불편한 이상 반응은 없는지, 실제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뒤따라 나올 질문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래서 둘 중 어떤 게 좋아요?"

여기서 약사들은 또 고민에 빠진다. 두 제품의 약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황청심원은 두근거림과 정신적 불안 등에 사용하는 약이다.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게 떨리는 증상을 호소할 때 복용한다. 반면 천왕보심단은 불안, 초조, 불면, 두근거림 등에 사용하는 약으로, 평소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갑작스런 긴장 · 두근거림엔 우황청심원

지속되는 불안 · 초조엔 천왕보심단 고려

부작용 · 증상 따라 약사 상담 · 진료 추천

때 복용할 수 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갑작스러운 긴장과 두근거림에는 우황청심원을, 평소부터 이어지는 불안과 초조, 불면에는 천왕보심단의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일 뿐, 어느 한쪽이 특정한 시험 불안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천왕보심단은 불면이나 지속적인 불안 증상에 사용하기도 하므로, 평소 이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시험 직전보다 미리 약국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무조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뜻은 아니며, 복용 기간 역시 개인 증상의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두 제품 모두 건강한 고등학생이 시험 직전에 한 번 먹는다고 긴장이 확실하게 풀린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고,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러움, 소화불량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시험 때 가볍게 긴장하는 학생이라면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 보자. 시험 전날엔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고, 평소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 날 두근거림과 손 떨림이 유난히 심하다면 병원 진료도 추천한다. 경우에 따라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약 역시 시험 당일 처음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평소 불면이나 불안, 초조가 심하다면 몇 달 전부터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천왕보심단을 비롯한 약물의 복용 여부도 그 과정에서 함께 상담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시험 당일 난생처음 우황청심원을 먹어보겠다는 학생이 찾아온다면 일단은 말리고 싶다.

아마 그런 학생에게 우황청심원은 막상 사용할 일은 없더라도 품속에 하나쯤 지니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은장도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은 은장도와 달라서, 막상 꺼내 썼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른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시험 당일 처음 먹는 약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지는 말자. 그 은장도를 꺼낼 일이 없도록 필자도 함께 기도하겠다.

시험을 앞둔 주말, 잠시 집 근처 사찰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산책하며 기도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것이다. 어쩌면 수험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시는 안정제 한 병보다는 그동안 충분히 노력해 왔다는 믿음과 스스로 다독이는 마음 한 조각일지도 모르겠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우리 복지관은 지금 19.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커피 찌꺼기, 지역 사회로 '순환'



'Re사이클 We사이클' 참가자가 직접 만든 커피박 키링과 포장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은씨(가명)는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도 잊은 채 키링이 담긴 가방을 건넨다. 카페 사장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 찌꺼기를 다시 내어준다. 정은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친 뒤, 커피 찌꺼기가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센터로 돌아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 기관이다. '보호자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센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는 센터, 지역사회 속 당사자의 삶이 있는 센터, 당사자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센터'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Re사이클 We사이클'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구 '복지이음' 공모에 선정되면서 'Re사이클 We사이클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은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에서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가 나오고, 이를 다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흥미를 보였다. 지역 카페에서 수거한 커피 찌꺼기는 '커피버스기계'를 거쳐 점토로 만들어진다. 이후 틀을 활용해 모양을 만들어내면 키링과 자석 등의 공예품으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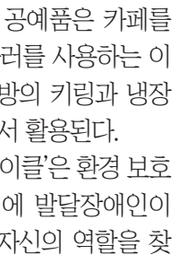
공예품은 한 가지 틀을 사용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용자들이 저마다 원하는 색을 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완성한다.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시기에는 더욱 다양한 모양의 틀을 활용해 만드는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완성된 공예품은 포장 과정을 거쳐 커피 찌꺼기를 제공한 카페로 돌아간다. 버려질 뻔한 커피 찌꺼기가 이용자들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공예품으로 바뀌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예품은 카페를 찾은 주민 중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전달돼 가방의 키링과 냉장고 자석 등 일상에서 활용된다.

'Re사이클 We사이클'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자들은 공예품 제작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작품을 카페에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기쁨도 느낀다.

센터는 현재 중구 중림동 카페 5곳과 협력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카페들도 장애인들이 주민들과 만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해당 사업의 2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커피 찌꺼기 활용 제작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조현아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팀 교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⑨ 만다라와 명상의 만남

마음을 보고 마음을 그리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남산 충정사에서는 가을맞이 '남산-숨, 쉼' 선명상 클래스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루마인드 만다라 명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색과 형태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었다.

일요법문에서 신도들에게 종종 "지금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오늘의 지금은 잠시 뒤 과거가 되고, 그렇게 쌓인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육조단경〉의 무주(無住)에 대한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혜능은 "염념부주(念念不住), 전념(前念)、금념(今念)、후념(後念), 염념상속(念念相續), 무유단절(無有斷絕)"이라 했다.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앞생각과 지금 생각, 뒤의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어느 생각에도 붙잡혀 머물지 않는 것이 무주라는 가르침이다. 이어 "한 생각이 머물면 생각마다 머물게 되어 속박이 된다"고 설명하고, 모든 법 위에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을 때 얽매임이 없다고 말한다.

만다라 명상도 바로 이러한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됐다. 명상으로 현재의 몸과 마음을 살핀 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과 기억을 색채와 형태, 상징으로 원 안에 담아본다. 신희숙 명상 안내자는 명상이 현재 마음을 알아차리고 성찰하게 하는 틀이라면, 만다라 미술은 그 내면 경험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다시 바라보고 의미화하도록 돕는 표현의 통로라고 설명한다.

색과 형태로 현재 마음 표현하는 시간
주의 집중·파편화된 경험 재연결 과정
과거·미래 벗어나 지금의 나로 살게 해

원 안에 무엇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밝은색도, 어두운색도 있었으며, 가득 채워진 자리와 비어 있는 자리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 바라보는 일이었다. 만다라의 원형 구조는 흩어진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경계 안에 담아내고, 산만한 마음을 현재의 자리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정서적 '담아냄'과 주의 집중, 그리고 파편화된 경험을 다시 연결해 보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행 역시 마음속 생각을 모두 없애는 일이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찾아오면 찾아온 줄 알되 거기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이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나는 다시 내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남산-숨, 쉼'의 만다라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잠시 멈추어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원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 원 안에서 각자는 잊고 있던 자신의 감각과 마음의 빛을 다시 만났다. 지나간 생각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의 한 호흡과 한 마음을 온전히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이번 가을 함께 나누었던 쉼이자 수행의 의미였다.

지금을 잘 지내는 일이 결국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생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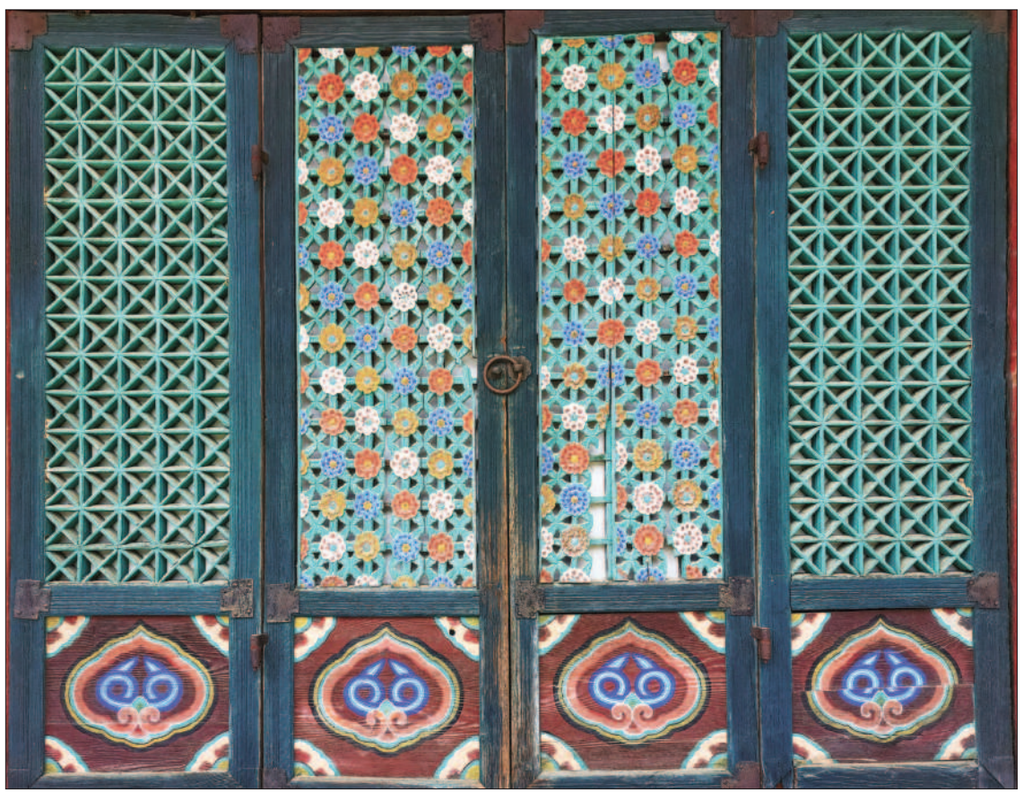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㊱ 어떤 시

나의 할머니는 '문맹'이었지만 빼어난 '시인'이었다. 특히 자연의 목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탁월했다.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할머니는 곧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지력에 감탄하는 어린 손녀에게 할머니는 뒤뜰의 대나무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나무밭의 바람 소리를 잘 들어 봐. 비가 오기 전에는 바삐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들려."

예순 살에 홀로 된 나의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집안은 물론 동네의 어른으로 사셨다. 상당수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논을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상 협동농장 같았다. 그 시절에는 주인과 소작인이 수확물을 절반씩 나눴다. 그것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묵갈림'이라 했다. 볏단을 나눈다는 뜻이다. 그런데 씨앗과 품삯, 비료, 농약 등에 들어가는 돈을 소작인이 부담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주인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었다. 내 할머니의 '묵갈림'은 그 반대였다.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은 전면 세 칸의 맞배집이다. 칸마다 네 짝씩 12개의 문 가운데 맨 안쪽 두 짝만 꽃살문이다. 나머지 문살은 모두 촘촘히 견실하게 짜인 격자빗살이다. 그렇게 절제된 장엄이어서 더 아름답다. 내 눈에는 꽃살문을 돋보이게 하는 격자빗살문이야말로 정녕 꽃이다. 한 편의 시도 읽은 적이 없는 내 할머니의 삶이 한 편의 시였던 것처럼.

손영자 작가



남장사 극락보전.



사람 키우는 일이 가장 큰 불사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발심한 한 사람이 수행자로 자라기까지, 그 곁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JustBe 승가장학회' 창립은 이 물음에서 시작됐다. 출가의 뜻을 낸 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배움과 수행을 이어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뒷받침하자는 발원이다.

출가자 감소는 조계종단만의 고민이 아니다. 가톨릭 사제와 원불교 교무를 지망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도 보듯, 종교에 삶을 바치려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은 종교계가 마주한 과제다. 그러나 출가자의 숫자만으로 불교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스스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그 지혜와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삶이 출가의 본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불교의 문으로 이끌 것인가가 아니라, 그 문을 연 이들이 어떤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느냐이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불교도 많은 불사를 이뤘다. 천년고찰을 중창하고 국내외에 새로운 전법도량을 세웠다. 선배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가 원력으로 일군 소중한 삼보정재다. 이 도량들이 미래세대에게도 살아 있는 의지처가 되려면 그곳에서 수행하고 세상과 소통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인재불사에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일 때다.

출가자 감소 시대, 성장 지원 더욱 절실
미래세대 수행자 돕는 승가장학회 창립
후학들이 원력 펼칠 바탕 마련 인재불사

나는 미국에서 불교를 만나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접했다. 이후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해인사 강원과 율원에서 전통의 기초를 배웠다. 그 과정에서 세운 중심은 늘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었다. 전통을 잇는 힘도 그 근본정신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산중에서 도심으로, 다시 디지털 공간으로 만남의 경계가 넓어지는 시대다. 수행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방편은 새로워질 수 있다. 홍대선원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참선 도량을 접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행길에 잠시 머문 청년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길'을 만나기를 바랐다.

선배 스님들이 일군 뉴욕 도량을 이어가고 히말라야 순례길을 조성하려는 뜻도 같은 방향에 있다. 후학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삶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원력을 펼칠 바탕을 마련하고 싶다.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서 익숙한 틀을 넘어서는 활발발한 용기, 그 힘으로 자신과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는 수행자를 기다린다.

홍대 한복판에도 '길'을 찾는 청년들이 찾아왔다. 함께 살며 부딪히고 서로를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청년 12명이 인연을 맺어 발심출가를 결심했다. 고마움과 함께 선배로서의 책임을 절감한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수행으로 자라도록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받쳐주는 일이 이제 우리의 몫이다.

승가장학회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교육·수행을 꾸준히 지원하고 어려울 때 기댈 도반이 되어주는 일이다. 후학에게 든든한 선배가 되고 후학은 어른을 믿고 따르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화합승가를 꿈꾼다.

한 사람을 길러내는 정성이 불법승 삼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 이 인재불사에 사부대중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청한다.

병역 혜택 논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뜻밖에도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몇몇 선수들이 올린 SNS가 계기였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상당한 시간과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병역 혜택'만을 생각했다는 이들의 발언은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과 불편함을 안겼다.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는 1973년 시작됐다. 당시 한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고 북한과도 체제 경쟁 중이었다. 국제무대에서의 성취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업적으로 인정됐다.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됐다. 남북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 제도는 여전히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논리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병역 혜택은 체육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 분야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도 오래됐다. 병역 혜택 대상 대회의 권위와 국제성,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까. 체육 분야는 주요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 개인의 병역 상황까지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지만, 예술 분야는 그렇지 않다. 같은 제도이지만, 무엇이 얼마나 알려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공정 감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체육 분야 병역 특례에만 민감한 반응
파편적 정보 바탕 분노에 질문 필요해
화쟁의 지혜로 편견 넘어 전체 살펴야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언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개인의 경험은 제한돼 있고, 언론도 모든 사실을 똑같은 비중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는 사건은 내 삶 깊숙이 자리 잡지만,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건들은 존재조차 희미해진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파편적인 정보들이 '현실'이고, 그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그 옳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공정'이나 '정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확신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그렇기에 '우리의 분노는 충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불교가 한쪽 견해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다른 조건과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화쟁은 각자의 주장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견해를 전체 진실로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사안의 전체 모습을 보려는 노력에 가깝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피기도 전에 분노가 먼저 커지고, 곧바로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분노가 크다고 그 판단까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태도가 요청된다.

社 說

재난의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다. 대형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재난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오랜 상처를 남긴다. 재난을 목도하는 이들도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2주년을 맞아 '재난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특집 기획을 마련했다. 역사 속 재난에서 불교가 맡았던 역할을 돌아보고, 오늘날 불교계의 대응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은 생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생명존중과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상호의 존성을 강조해 온 불교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창간 32주년 '재난시대와 불교' 특집호
시대 과제 짚고 실천 이끄는 언론 될 것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각 사찰과 단체는 환경보호 활동과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이 개별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종단과 교구, 사찰과 불교단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재난 문제를 불교의 수행과 신행,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자비와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재난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AI 공모전은 기술을 매개로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표현하고 더 많은 대중과 나누고자 한 시도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자가 주제를 고민하고 장면을 구성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기술은 창작을 돕는 도구일 수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를 전할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재난'과 'AI'라는 두 주제는 시대의 변화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재난 앞에서는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 앞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의 유산으로 머물 때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생명력을 얻는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 32년 동안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묻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교계의 실천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과제에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시대가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불교가 응답해야 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그 답을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 창간 32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다시 새겨야 할 언론의 소명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효 능
류기석
최종남
허대형
감 사 최인귀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대 중 일 주, 효 성
일 월, 수 담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차 장 송 원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현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종무소 직원

총무실장 정태우(일소)
관리과장 최진호(무착)
경리계장 성진희(소담)
사무주임 신다은(소명)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재난시대와 불교

현대불교 32th 1994~2026
제 1598 호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B1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재난 고통 치유한 불교
자비로 일상 이어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등의 재해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길이 멎고 물이 빠진 뒤다. 재난의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돌아갈 집을 잃은 주민에게는 오늘을 버틸 끼니와 잠자리가 필요하고, 가족을 떠나보낸 이에게는 슬픔을 견딜 시간이 필요하다.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과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산불과 집중호우, 가뭄에 더해 지진과 감염병, 사회적 참사까지. 재난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묻고 있다. 이때 불교의 자비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가.

불교는 오랜 시간 재난을 겪는 이들의 곁에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가뭄과 질병,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의례가 봉행됐고,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조선시대에도 스님들은 급식과 구료, 시신 수습에 참여했다. 수륙재를 통해 망자를 추모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안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1925년 을축대홍수 당시 봉은사 주지 청호 스님이 배를 마련해 주민들을 구하고 사찰에 머물게 한 일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준다. 재난 구호의 역사에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나란히 자리한다.

그 바탕에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있다. 삶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재난의 고통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자비는 그 연결을 구체적인 도움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오늘날 그 실천은 국내외 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과 수해 대피소에 생필품을 전하고,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식수를 지원하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사찰과 문화유산이 재난의 피해를 입는 가운데서도 종단과 사찰, 복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국경 밖에서도 자비의 손길은 이어졌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고,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한 뒤 생활 여건을 보완했다. 로터스월드는 현지 단체와 협력해 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더프라미스는 아동의 마음 회복과 구호 활동가의 소진 예방까지 살폈다. 재난의 규모만큼 피해자의 생활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려면 따뜻한 마음을 구체적인 역량으로 연결할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 나선 수행자와 전문 인력이 적절한 역할을 찾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험과 협력 관계가 축적돼야 한다. 개인의 원력에 기대 온 돌봄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인력 연결, 사후 지원 체계를 갖추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종단과 사찰, 구호단체가 평소 협력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와 접점을 넓혀야 한다. 누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준비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마음 돌봄의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 재난을 겪은 이에게는 안전과 식사, 충분한 휴식이 먼저일 수 있다. 고통을 전생의 업으로 단정하거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재촉하는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찰의 숙박과 음식, 휴식 환경을 활용해 피해자와 봉사자의 회복을 돕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재난시대에서 불교의 역할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한마음선원의 EM 보급과 교육, 상불사의 텃밭 나눔, 도림사의 폐현수막 활용 등은 소비와 생활습관을 바꾸는 실천이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한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자원을 아끼고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기후·생태 위험을 줄이는 일 역시 재난시대에 필요한 자비행이다.

재난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상을 꾸릴 때까지 함께할 준비가 돼 있는가. 고통의 현장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오늘의 한국불교가 답해야 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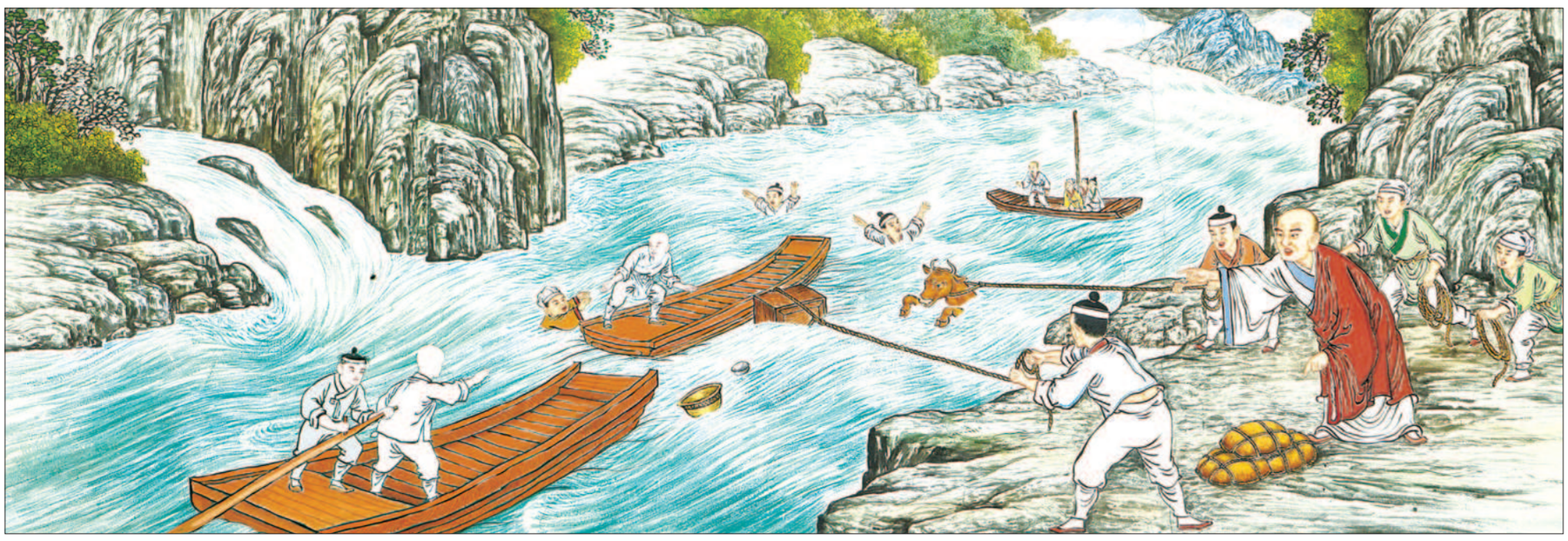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배 띄우고 밥 지어 구제…불교, 민중 곁에 있었다

재난시대와 불교

한국불교 재난 · 재해 구호사

가뭄 극복 기우제, 왕실 치병 등
삼국시대에는 불교 의례 동원
고려시대, 사찰서 구호 활동해
자선 위한 사찰 '보통원' 설치
조선시대에도 급식 · 구호 이어져
봉은사 청호 스님, 을축대홍수서
708명 구제…공덕비 조성 · 선양



을축년(1925년) 한강 대홍수 당시 청호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의 구호 모습을 그린 봉은사 법왕루 외벽 벽화. 청호 스님과 대중들은 목선 5척을 구입해 고립된 마을 주민 708명의 목숨을 구했다. 사진 제공=봉은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25년 7월 6일 시작된 비는 여느 해 장마와 달랐다. 며칠 내리다가 말겠지 했던 비는 장장 보름 동안 이어졌고 한강은 범람했다. 20세기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을축대홍수'다. 특히 저지대였던 한양의 뚝섬 일대는 상황이 심각했다. 7월 16~17일 집중호우로 용산 제방이 무너졌고 오늘날 송파·강남 일원의 마을들이 침수됐다.

물에 갇힌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봉은사 주지 청호 학밀 스님이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를 마련한 스님은 목선 세 척으로 부리 주민 114명을 구조해 절에 머물게 했고, 18일에는 배 두 척을 더 사들여 잠실 주민들을 구했다. 구조된 이들이 몸을 의탁한 곳은 봉은사였다.

신문 등의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청호 스님이 구호한 이들은 708명에 달한다. 스님의 구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구호받은 주민들의 발의로 기념비가 세워졌고, 1929년 5월 27일 봉은사에서 제막식이 열렸다. 홍수 현장의 구조와 사찰의 이재민 수용은 신문 기사와 기념비에 각각 기록됐다.

이처럼 불교가 재난 재해에서 민중을 위해 구호하고 마음을 돌봤던 것은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불교가 재난과 질병에 대응한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사료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뭄에 비를 청하는 기우제, 왕족의 회복을 비는 치병 법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추모 의례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2년(600) 조에는 큰 가뭄이 들자 왕이 칠악사에 행차해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국왕이 직접 사찰을 찾아 비를 청한 것이다. 가뭄에 대응하는 왕실 의례의 장소로 사찰이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의 질병에도 불교 의례가 동원됐다. 〈삼국사기〉 권5에 따르면 선덕여왕 5년(636) 3월, 왕의 병에 의술과 기도가 효험을 보이지 않자 황룡사에서 백고좌 법회를 봉행하고 승려들을 모아 〈인왕경〉을 강론하게 했으며 100명의 출가를 허락했다. 나라의 안녕과 재난 방지를 설하는 경전을 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법회에서 봉독한 것으로 왕실 치병을 위한 대표적 의례 기록이다.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의례도 있었다.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3년(572) 10월 20일조에는 전사한 사졸들을 위해 외사(外寺)에서 팔관연회를 열고 7일 만에 마쳤다고 적혀 있다. 권44 거칠부 열전에는 진흥왕 12년(551) 고구려에서 온 혜량을 신라가 승통으로 삼았으며, 이때 백좌강회와 팔관의 법이 시작됐다고 전한다. 이처럼 기우제에는 가뭄, 백고좌회에는 왕의 질병, 팔관연회에는 전사한 병사들이 각각 연결돼 있다.

고려시대 기록은 좀 더 구체적이다. 사찰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한 장소와 시기, 담당자까지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려 불교계의 급식 활동은 혜소 국사 정현의 행적에 남아 있다. 정현은 정종 10년(1044) 광제사 앞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이듬해인 1045년에는 삼각산에 사현사를 지어 길손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머물도록 했다. 이에 정종은 홍제원과 서인관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그의 생애를 전하는 자료는 문종 14년(1060) 칠장사에 세운 혜소국사비다. 왕명으로 김현이 비문을 지었으며, 정현이 활동하던 시대와 가까운 때에 건립됐다.

홍수로 농사를 망쳤을 때 사찰 주변에 급식소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 〈고려사〉 권80 '식화지' 진휼조에 따르면 문종 18년(1064) 3월, 왕은 전년의 홍수로 가을 곡식이 피해를 입었다며 백성을 서둘러 구휼하도록 명했다. 담당자는 태복경 민창소였으며 같은 달부터 5월까지 개국사 남쪽에 음식을 준비해 곤궁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재해가 발생한 뒤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식량 부족에 대응하면서 급식 장소와 운영 기간을 지정한 것이다.

같은 해 4월에는 임진강의 보통원(구제와 자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사찰)에 죽과 채소를 마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급식 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였고, 대상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었다. 문종 25년(1071) 12월에는 현덕궁의 쌀 500석을 내어 보통원에서 곤궁한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숙종 6년(1101)에는 보통원에서 길손에게 석 달 동안 음식을 주고, 제위보에서는 가난해 생존하기 어려운 백성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하도록 했다. 사찰 급식과 함께 시행된 국가의 빈민 구호 조치들이다.

개국사는 기근과 전염병이 겹친 상황에서도 급식 장소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고려사〉 권17 의종 6년(1152) 6월조에는 개국사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과 역질에 걸린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기록돼 있다. 구호 대상에 굶주린 이와 병든 이가 함께 포함됐다.

고려 말에는 사찰 안에 구호 업무를 맡는 기구가 설치됐다. 〈고려사〉 권80 공민왕 3년(1354) 6월조에 따르면 흉년이 들자 연복사에 진제색을 두고 유비창의 쌀 500석으로 죽을 쑤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 진제색은 진휼을 담당한 기구였다. 같은 기사에는 유비창의 곡물을 낮은 가격으로 백성에게 판매한 조치도 함께 기록돼 있다.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한 조선에서도 승려와 사찰의 급식·구호는 이어졌다. 〈세종실록〉 세종 4년(1422) 9월 10일조에는 기근을 피해 서울로 들어와 저자에서 구걸하는 백성들을 위해 흥복사에 구료소를 설치한 일이 나온다. 관원 윤성지와 승려 탄선이 죽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사찰에 마련한 구호 공간에서 관원과 승려가 함께 급식을 담당한 사례다.

탄선 스님은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는 일에도 참여했다. 같은 해 1월 15일 실록에는 도성을 수축하면서 동서에 구료소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조 한상덕에게 의원 60명을, 탄선 스님에게 스님 300명을 거느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이 구료할 대상은 공사에 동원된 군인 가운데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이었다. 급식뿐 아니라 국가 공사 현장의 환자 돌봄에도 스님들이 배치됐던 것이다.

사망자의 시신을 거두는 일도 스님의 소임이었다. 세종 9년(1427) 9월 1일에는 매골승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동·서활인원에 8명씩 소속시키는 사목이 마련됐다. 이들은 도성의 오부와 성 밖 10리를 나눠 맡았다. 월급과 소금·장, 봄가을 면포 지급 규정도 포함됐다.

활인원 관원은 이들의 근태를 살피고, 매장을 가장 많이 한 스님 한 명에게 해마다 관직을 주도록 했다. 사헌부와 한성부가 매장 업무와 활인원 관원의 감독 상태를 조사하는 조항도 뒀다. 스님의 시신 수습·매장 업무가 국가의 인력 배치와 보수 규정 안에 편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망자를 위한 의례는 수륙재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태조 6년(1397) 진관사에 조성된 수륙사는 국가가 수륙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었다. 권근의 〈진관사수륙사조성기〉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죽은 뒤 제사를 받지 못하는 신하와 백성을 염려한 태조의 당부가 실려 있다. 선대의 명복을 빌고 중생에게도 복이 미치게 하려는 취지였다. 상·중·하 삼단과 욕실, 부엌, 곳간 등을 갖춘 전체 59칸의 시설은 그해 9월 완공됐다.

수륙재가 산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한 의례로 논의된 기록도 있다. 〈문종실록〉 문종 원년(1451) 9월 18일조다. 경기 지방에 질병이 퍼지자 수륙재를 베풀도록 한 일을 두고 사헌부 집의 박팽년이 반대했다. 의례로 질병을 구료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종은 "자신의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심이 흉흉하고 답답해하므로 그 마음을 위안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종은 백성의 뜻을 따라 마음의 위안을 주려 한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확장돼 이어졌다. 한국불교계 구호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의 사례만 살펴봐도 조계종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구호금 2억원을 전달했고, 아름다운동행은 이재민 임시주거단지에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차양막과 식료품 지원을 이어갔다.

2023년 모로코 지진 때는 국제합동구호단을 파견해 겨울용 텐트 150동, 책가방 500개, 위생키트 500세트 등을 전했으며 올해 9월 네팔 대홍수에도 1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호가 진행돼 둔체 850가구에 식료품 키트, 베트라와티에 복구물품 300세트가 전달됐다.

또한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는 2024년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아동친화공간을 마련해 유가족의 아이들이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도림 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불교…이웃 곁 지키다

재난시대와 불교

국내 재난 구호 활동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복구 지원
주민 위로와 사찰·지역 회복 도와
구호물품·급식·생필품 지원까지
일회성 지원 넘어 현장 중심 자비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해 3월 2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를 방문한 모습.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지난해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은 지난해 7월 충청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붕괴된 선수암 차고지 현장을 찾았다.



조계종은 지난해 9월 8일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70톤을 긴급 지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을 찾았다.

재난은 예고 없이 일상을 무너뜨린다. 산불은 삶의 터전과 문화유산을 위협하고 집중호우는 주택과 농경지를 휩쓸며 가뭄은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마저 앗아간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너진 집과 훼손된 산하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이 남는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산불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마을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생필품과 식수를 지원했다. 대형 참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피해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살피며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 산불과 경남 산청·충청 지역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불교계의 현장 대응도 이어졌다. 사찰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부터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까지 활동 범위도 다양했다. 재난의 양상과 피해 규모는 달랐지만, 고통받는 이웃의 곁을 지키며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방향은 같았다.

산불 속 문화유산 지키고 이재민 도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림과 주거지를 넘어 지역 불교문화유산에도 위협이 됐다. 불길이 사찰로 번질 위험이 커지자 의성 운람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은 아미타삼존불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주요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불길이 사찰을 덮치기 전에 문화유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재난 현장에서 불교계의 대응은 문화유산 보호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구호 활동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3월 26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임원 스님들과 함께 산불 피해가 컸던 고운사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는 기관과 사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종단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했다. 산청 단성중학교를 비롯해 단성초등학교와 보건소, 휴양림 등 6개 대피소에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재난 직후 대피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활동이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와 자비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 임원 스님들은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성금 4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전국 5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종단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을 전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재난 대응에서 불교계의 역할을 보여준다. 사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종단과 사찰,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구호에 나섰다.

수해 현장 살피고 복구 지원 약속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 유실, 건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불교계는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7월 24일 경남 산청에 이어 충남 예산 수덕사를 방문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상황을 확인하고 종단 차원의 복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수덕사에서는 산내 암자인 정혜사의 진입로가 산사태와 도로 유실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선수암에서는 차고지 붕괴로 차량이 파손됐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뒤편 옹벽도 무너졌다. 근역성보박물관 인근 사방보에는 토사가 유입됐다. 진우 스님은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단장 묘장 스님)도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 7월 21일 경남 산청에 파견된 구호단은 율곡사와 인근 마을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화장지와 비누, 치약, 칫솔, 티셔츠 등을 담은 긴급구호 키트 100개를 마련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생필품 지원은 재난 직후 피해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방문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후속 지원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찰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난 이후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가뭄 재난에 생수 3만5000병 지원

불교계의 재난 지원은 산불과 수해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을 겪은 강릉에도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조계종은 9월 8일 강릉시청을 통해 감로수 2리터 생수 3만5000병 규모인 생수 70톤을 지원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가뭄은 산불이나 홍수처럼 피해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을 장기간 위협한다. 불교계의 생수 지원은 재난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현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은 재난 구호의 기본이지만 그 의미는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자비 실천의 한 방식이기도 했다.

참사 현장서 추모·유가족 지원

불교계의 현장 대응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서도 이어졌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자 스님들은 무안국제공항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참사 다음 날인 12월 30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도를 올린 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2025년 1월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종단을 넘어 애도의 뜻을 모았다.

추모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도 펼쳐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참사 발생 직후 대응팀을 구성하고 12월 30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해 공항 게이트 앞에 '자비의 간식'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에서는 마스크와 생수, 핫팩, 초코파이, 초코바 등을 제공했고, 다음해 1월 6일까지 운영됐다.

재단 산하 광주전남지역 복지관 관계자들도 지원에 동참해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을 도왔다. 이날 전국교구본사에서 모인 스님들도 분향소를 참배하고 부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재난과 참사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은 물품과 비용만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을 함께 나누고, 긴 시간 현장을 지키는 유가족과 추모객의 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불교계의 추모 기도와 현장 지원은 물질적 구호와 함께 정서적 돌봄이 재난 대응의 한 축임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과제로

국내 재난 현장에서 이어진 불교계의 활동 공통점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으로 직접 향했다는 데 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살핀 뒤 구호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재난 대응의 한 주체로 역할을 해왔다. 종단과 사찰,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은 점도 주목된다.

활동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재난 구호가 성금과 물품 전달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긴급구호단 파견과 현장 급식, 피해 상황 점검,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한 지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물질적 구호와 함께 추모와 위로를 통해 고통을 나누는 활동 역시 불교계 재난 대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는 가운데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현장 활동은 자비가 개인의 수행과 신행을 넘어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건네고 회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 고통받는 중생의 곁을 지키려는 불교의 오랜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방장 향우 명신
수좌 현덕
주지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선 원

일체게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합장

참다운 수행자라면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행선사 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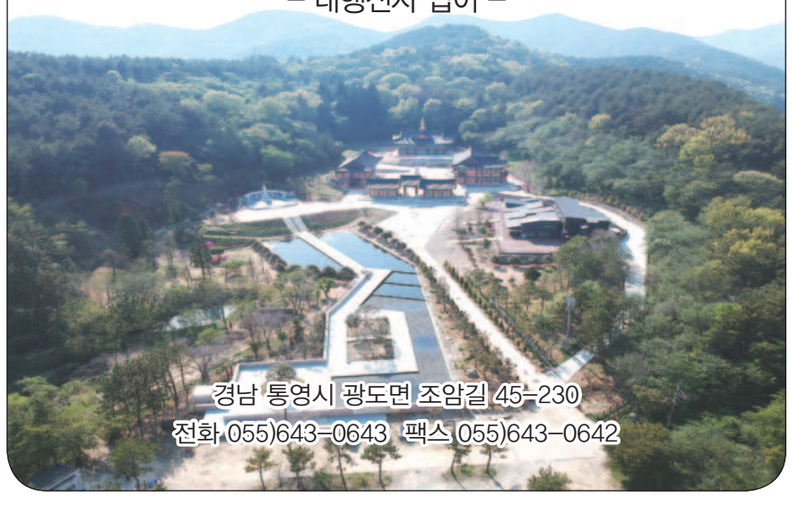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 일동

마음 안으로 낱낱이 돌려놓으면
거기에서 참자기가 길잡이가 된다
- 대행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구호부터 마음 회복…국경 넘은 자비 손길

재난시대와 불교 | 해외 재난 구호 활동

한국 불교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난에도 너와 나의 고통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동체대비 정신으로 자비행을 펼쳐왔다.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무너진 생활 기반을 복구하는 한편, 재난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긴급구호단

피해 현장 조사로 맞춤형 지원

재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호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상황과 이재민들의 생활 여건을 조사했으며, 긴급 모금을 통해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이 올해 8월 발생한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8월 네팔에서 대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자 조계종은 곧바로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긴급구호단(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과 베트라와티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본대 파견에 앞서 9월 5일에는 본대의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견했다. 선발대는 현지 NGO와 함께 피해 현황과 구호 수요를 조사했으며, 9월 8일 본대와 합류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선발대와 본대를 나눠 사전 조사와 물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둔체 지역 700가구에 쌀과 렌틸콩, 식용유, 과자 등 20일분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고 툴로 바르쿠 마을 150가구에도 생필품을 전달했다. 베트라와티 마을에서는 홍수 잔해를 치우는 데 필요한 철거 공구 등 복구 물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2023년 9월 모로코 지진 당시에도 긴급구호단은 즉시 현장을 찾아 임그달군 150가구에 이중 재봉과 방수 기능을 갖춘 겨울용 텐트를 전달하고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책가방과 위생용품 500세트를 선물했다.

아름다운동행

일상 회복·생활 기반 복구에 최선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복구가 절실하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은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 후속 지원을 이어왔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하자 당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왼쪽)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컨테이너 100동을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인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튀르키예 주정부로부터 임시 거처 지원을 요청받은 튀르키예한인회와 협약을 맺고 임시 거주처인 '한국마을'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후 현지 NGO 등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 한국마을에는 56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과 공동 세탁실, 보육시설, 강당 등이 조성됐다.

주거 공간을 마련한 뒤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공용 식당 대신 각 가구가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인덕션 370대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건·복구가 더디게 진행돼 주거 환경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을 다시 찾아 이재민들의 생활 터전을 점검했다. 여름철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전체 가구에 철제 차양막을 설치했으며, 올해 7월 4일에는 공용 음수대를 건립했다.

지난해 3월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도 찾아 구호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오지 마을 12곳을 선정해 식료품, 태양광 램프 전달과 관수 시설, 대형 정수기 설치를 도왔다.

로터스월드

피해 주민 만나 위로 · 희망 전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에서 의료·주거 등 인간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 온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재난 현장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물품 전달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지난해 3월 미얀마 지진으로 아내와 누나를 잃은 소모이 씨에게 위로를 건넸다.

로터스월드는 지난해 3월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 네피도 지역의 피해 주민들을 찾아 긴급구호에 나섰다.

지진 발생 직후 모금을 시작하고 현지 봉사 단체 '포우바뗄렛야'와 함께 피해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 이후 지원이 시급한 지당께 마을과 삔마나 마을을 대상으로 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쌀, 식용유, 라면, 돗자리, 의류 등 구호물품 250세트를 피해 가구에 전달했다.

지당께 마을은 해당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하고 50가구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가족을 잃고 나무로 급히 지은 판잣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모이 씨를 만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관 스님은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온전히 그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로터스월드는 생계와 수행 여건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 국가의 사찰도 지원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남방불교 국가의 탁발·공양이 어려워짐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7차례에 걸쳐 53곳의 사찰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더프라미스

물적 지원 넘어 마음 회복 도와

재난은 주거지와 생계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 특히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 변화에 취약한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가 올해 6월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했다. 사진=더프라미스

2008년 설립된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재난 약자'에 주목해 재난 피해자들의 마음 회복 활동을 돕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올해 6월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를 파견했다. 이지스는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최대 피해 지역인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이재민 캠프에서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했다.

대피소 생활로 배움과 놀이 공간을 잃은 아동을 위해 이재민 대피소와 학교에 '아동친화공간' 2곳을 운영하고, 3곳의 신설을 지원했다. 아동친화공간에서는 놀이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 고무찰흙, 스트레스볼 등으로 구성한 마음돌봄 키트 100개도 전달했다.

지원은 재난 피해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수색대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현지 NGO '조나이켈 볼리바르'에는 식재료를 지원했고, 아이들을 돕는 현지 봉사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워크숍도 진행했다. 재난 약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는 '돕는 이'들의 정서적 부담까지 살핀 것이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로힝야 난민캠프에서도 전쟁 위험에 노출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 활동과 정서 회복 강의를 진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재난시대와 불교

지구 살리는 실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진 자리에는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고통이 뒤따른다.

불교는 일찍부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을 설해 왔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인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실천적 지침이 된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일상의 작은 변화는 공동체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찰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현될 때, 자비는 모든 생명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된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행하는 단체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쌀뜨물서 시작한 지구사랑…공생 환경교육으로 잇다

EM 지구사랑작은실천

생활 속 환경정화

2004년 EM 발효액 활용 시작
발효기 보급 생활 속 실천 확산
탄소중립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도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무심코 흘려보내던 쌀뜨물을 발효해 생활 속 환경정화에 활용하고 그 경험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하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가르치는 불교계 환경운동이 있다. 한마음선원의 'EM지구사랑작은실천'이다.

환경운동은 대행 스님의 공생(共生)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2004년 쌀뜨물을 이엠(EM·유용미생물군)으로 발효해 생활 속 환경정화에 활용하기 시작한 한마음선원은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활용법을 보급하며 환경 실천의 범위를 넓혀 왔다. 시작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쌀뜨물이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뜨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대신 발효시켜 다시 활용하는 작은 시도가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2010년에는 EM 쌀뜨물 발효기를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에는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13명의 대중 스님이 참여하는 승가결사체로 'EM지구사랑작은실천'을 발족했다. 이후 2019년 대구·포항지부, 2020년 강릉지부, 2021년 진주·광주·제주·공주지부가 설립되며 전국 단위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자체 연구·개발한 EM 스마트 발효기는 특허를 취득했고 필요한 지역공동체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직접 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대행 스님은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현이요, 진실한 실천이 도입이다"



EM 활용에서 시작된 환경 실천은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직원역량강화연수 모습.

고 강조한 가르침을 환경운동의 방향으로 삼아 왔다. 환경보호를 구호나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수행의 연장이라는 의미다.

환경 실천은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 대상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이어 왔다.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배우도록 영역을 넓힌 것이다.

교육에서는 환경문제가 멀리 있는 거대한 의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과 물, 음식, 생활습관과 연결돼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교에서 배운 환경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행동을 강조한다.

한마음선원과 함께 불교계 환경운동과의 연대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은 2021년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로 등록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빈그릇운동과 EM 활용 등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됐으며 2024년에는 EM 보급과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증진 활동으로 환경상을 받았다. 지구사랑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설립된 것도 큰 성과다.

기후위기는 한 번의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이어 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하며, 이를 지속할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 참여 인원뿐 아니라 교육 이후 생활습관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실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앞으로 살펴야 할 과제다.

쌀뜨물을 다시 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 이들의 환경운동이 교육과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공생의 가르침은 오늘의 환경문제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은호 기자

"쓰레기 직접 줍고 나면 생각도 달라져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찰정화 활동

만경사 · 보은사 등 24곳서 활동
녹색불교교육으로 '환경보살 양성'
"환경보호는 결국 생명 지키는 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해청 스님이 강조하는 불교환경운동은 '실천'이다.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채식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서 출발한다. 그 바탕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불교의 연기와 생명존중 사상이 자리한다.

2008년 창립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기치로 환경교육과 생태순례, 환경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불교적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담론에 머물게 하지 않고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찰 환경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 '플로깅라이프'이다.

"사찰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바위틈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살펴보면 오래된 쓰레기가 많습니다. 직접 줍고 나면 참가자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환경정화활동은 24회까지 이어졌다. 올해도 만경사와 보은사, 원효사 등을 찾아 도량과 주변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도심까지 넓혀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도 플로깅을 진행했다.

해청 스님은 정화활동이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108배를 하듯 환경정화도 몸으로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기는지를 생각하고, 소비와 생활방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생명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찰 환경개선 활동인 '플로깅라이프'는 우리가 다니는 사찰부터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해 24회까지 이어졌다. 사진은 원효사 정화 활동 후 기념촬영.

환경실천을 지속시키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환경연대는 녹색불교아카데미와 녹색불교경전학교를 운영하며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명과 자연을 바라보는 '환경보살'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회원들은 '플로깅라이프'를 비롯해 생태문화기행 '산애들애', 대중공양모임 '초록세상' 등 소모임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으로 이어간다.

생활 속 변화도 강조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종이팩 분리배출, 채식 캠페인 등을 펼친다. 복날에는 '복날채식 캠페인'을 통해 공장식 축산과 탄소배출 문제를 알리고 있다.

사찰과 개인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은 산과 강으로 이어졌다. 6월에는 전국 불교환경단체들과 '제2회 영산강 생명살림순례'를 진행했다. 죽산보에서 광주까지 영산강을 따라 걸으며 강의 생명과 4대강 재자연화를 되새겼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넓혀가고 있다. 제56주년 지구의날 광주행사를 주관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탈핵 등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청 스님은 기후위기 시대 불자들에게 '조금 불편한 삶'을 제안한다. 덜 쓰고, 아껴 쓰고, 육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린 자연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합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이어온 18년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생명을 살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답을 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행동에서 찾고 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일상에서 행하는 자비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7-7호 법인등록 194621-*******)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종회의장 법륜

승정원장	월해	호법원장	해월
감찰원장	성호	교육원장	영호
포교원장	덕해	포교부장	장문
호법부장	문경	서울교구원장	법혜
감찰부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천호
대전교구원장	수진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입종사찰 : 전남 동산사 무명스님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108종도일동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먹거리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구 지키는 실천

상불사

유기농 텃밭 무료 분양

정문 450 · 후문 250평 규모로
한 가구 4평씩…20가구 참여
“기후행동, 지금 당장 나부터”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사찰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며 일상 속 환경 실천을 이끌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먹거리를 직접 기르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며 남은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서도 가능하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는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사찰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며 이같은 일상 속 환경 실천을 이끌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자연과 상생하는 가치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상불사 텃밭은 동효 스님이 2005년 주지를 맡은 뒤 3년 여가 지나 시작됐다. 사찰이 가진 공간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였다.

동효 스님은 “앞서 주지를 맡으셨던 아버지 스님께서 큰 도량을 마련하셨는데, 그 뜻이 우리만 잘살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지역과 나라, 나아가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텃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불사는 정문을 올라오면 만나는 450평 규모의 밭과 후문 쪽 250평 규모의 밭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가구당 4평씩 분양하며, 현재 20가구가 참여한다. 불자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농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바쁜 일상으로 밭을 돌보기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해 사찰이 관리와 재배 안내도 돕고 있다.

텃밭에서는 계절에 따라 깨, 가지, 고추, 파,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른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배추와 무를 심어 다음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수확물은 가정에서 먹거나 사찰음식 재료로 활용한다. 참여자들은 텃밭을 무료로 분양받는 대신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시금을 내는데, 이렇게 모인 보시금은 지역 불자 자녀 장학금과 이웃돕기에 쓰인다. 먹거리를 기르고 나누는 일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5살 강별하 아동에게 제공된 텃밭.

동효 스님은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길러 식탁에 올려보면 한 끼의 음식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텃밭은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자, 함께 땀 흘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텃밭의 의미도 더욱 깊이 새기게 됐다.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낭비를 줄이는 태도가 생명을 존중하고 식재료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찰음식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것”이라며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 먹으며 채식을 지향하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상불사는 텃밭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불자들에게 개인 가방과 ‘떡통’을 지참하도록 권하고, 공양은 뷔페식으로 준비해 각자 먹을 만큼만 담도록 한다. 식사 후에는 자신이 먹은 그릇을 직접 설거지하도록 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2020년에는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도 맺고 물과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실천 등 다양한 생명살림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상불사는 보유한 임야와 숲을 활용해 자연을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사찰 주변의 숲에 사는 생명들을 찾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동효 스님은 “기후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나부터 실천하면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불사의 텃밭이 한 사람의 식탁을 넘어 지역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넓혀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위한 상불사, 나라를 위한 상불사, 전 세계를 위한 상불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내영 기자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지구 살리는 ‘수리보살’

도림사

자원순환 실천 도량

버려진 현수막 · 신문지는
가방 · 봉투로 업사이클링
“건강한 지구를 후대에”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과 신도들이 완성한 폐현수막 가방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것들을 고쳐 쓰고 되살리며 지구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도심 속 ‘수리보살(修理菩薩)’ 도림사가 불교 녹색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인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의 환경운동은 오직 실천이다. 망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만물에 깃든 불성을 일깨워 귀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일상의 바느질이 곧 정찬 스님에게는 수행이다.

도림사를 대표하는 자원순환 실천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 활용)한 ‘지구사랑가방’ 제작이다. 매립이나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찬 스님과 신도들은 수거한 폐현수막을 고무대야에 담아 인체에 무해한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섞어 직접 발로 밟아 세탁한다. 자연 햇볕에 바짝 건조하고 정성스레 닦아낸 천은 재단과 재봉 과정을 거쳐 튼튼한 가방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3년 6개월간 도림사 사부대중의 손끝에서 완성된 가방만 9000개가 넘는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준비물 가방, 직장인 노트북 가방, 어르신 약 봉투 가방 등 쓰임새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된 가방들은 지역 복지관과 초등학교, 요양병원 등에 무상으로 배포됐다. 명절 선물 포장재로도 쓰이며 일상 속 환경 교육 도구 역할도 해내고 있다.

자원순환 불사는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 풍경도 바꾸고 있다. 법회를 마친 도림사 사부대중은 다 쓴 신문지를 접어 친환경 봉투를 만든다. 종이접기 방식만으로 뚝딱 만들어진 신문지 봉투는 1만 개를 훌쩍 넘어 인근 동래시장 내 과일 가게와 참기름 가게 등에 전달됐다. 특히 시장 내 참기름 가게에는 신문지 접는 방법을 직접 전수해 상인들이 자발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손님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신문지 봉투를 덧대어 물건을 담아주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신문지로 친환경 봉투를 만들고 있는 모습.

가정 내 방치된 낡은 보자기를 묶어 다회용 장바구니나 천 주머니로 활용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명절 사찰 나눔 물품을 포장할 때 일회용 비닐 대신 보자기 주머니를 사용해 쓰레기 배출을 원천 차단한다. 나아가 선별장에서도 골칫거리인 소형 폐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in 부산’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며 지역 내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도림사의 환경 실천은 교육과 지역사회 정화 활동으로도 활발히 확산하고 있다. 정찬 스님은 부산 서구와 부산진구, 영도구 등에 위치한 복지법인 등을 찾아 강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사부대중과 함께 마안산 사적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도심 속 숲 정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도림사의 생태적 행보는 사찰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플라스틱 연등 대신 분해가 쉬운 친환경 한지등을 밝힌다.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기른 수세미를 천연 수세미로 가공해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낙엽과 섞어 자연 퇴비로 환원한다. 사찰 내 비닐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다회용기인 ‘떡통’과 개인 텀블러 지참을 생활화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유공 부산시장 표창을 민간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끊임없이 비우고 다시 쓰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온 정찬 스님은 환경 운동이 불교의 본질적인 수행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거듭 역설했다.

정찬 스님은 “무심코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시 모아 정성껏 쓰면 소중한 자원이자 훌륭한 공양이 된다”며 “부처님께서 일체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셨듯 낡고 버려진 물건 하나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화려한 빌딩이나 돈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지구뿐”이라며 “죽어서 아득한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극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佛母山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052) 212-7000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쾌적한 최신시설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 정토사 불교대학/ 대학원 1997년 개교 ☎(052) 274-3800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경전반: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신행/ 문화교실 ☎(052) 258-9944
초하루,보름,지장재일,관음재일, 다라니 기도, 금강경 독송, 법화경 전독기도
어린이회, 청년회, 신도회, 동문회,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야간합창단, 민화, 한국화, 마인드케어명상, 오카리나, 간화선 수행, 심념처 명상반 등

◉ 장학 봉사 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052) 260-0707

울산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남 정
총 무 지 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교육·인력 잇는 돌봄체계 마련해야

재난시대와 불교

전문가 제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재난 현장 지원을 위해선 사전 교육과 전문 인력 연결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은 조계종이 2017년 4월 10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목포 신항을 방문한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재난 현장서 확인한 불교계 대응 아쉬움
고통에 섣부른 해석 대신 '경청' 자세
사찰 활용해 피해자 · 봉사자 마음 돌봄
지속가능한 불교 지원 체계 마련 필요

2014년 4월, 나는 화면 속 세월호의 뱃머리가 바다 위로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일상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배는 가라앉고, 시간이 흘러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답답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 뒤에는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손길을 보탤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혼자 현장에 갈 엄두도 용기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불교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심리상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스에 자원봉사를 신청해 스님들과 조를 짜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일을 맡게 됐다. 희생자의 평안을 빌고 가족들의 곁에 함께하는 일도 소중한 역할이다. 다만 가족들이 원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찾지 못했다.

그때 현장에서 천주교 봉사자들이 수습된 희생자의 몸을 정성껏 닦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고 가족 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적극적인 돌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깊이 감동했다.

얼마 전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유연 스님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홀로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한다. 시신 확인실 앞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주변의 휴지를 주웠다고 한다. 지나가던 가족이 스님을 붙잡고 울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걷기도 했다. 훗날에도 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광화문에서는 유가족 곁에 앉아 있거나 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나 역시 광화문 추모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그때마다 혼자였다. 여럿이 함께 와서 추모하는 수녀님들을 보면 부러웠다. 그럴 때 서로 연결됐더라면 조금 더 든든하게 함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팽목항 인근 사찰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전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을 만났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는 이도, 나처럼 잠시 다녀가는 이도 있었다. 밤늦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현장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불교의 자비는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나의 질문은 '현장에 가고 싶은 스님은 무엇을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와 연결돼야 하는가'였다. 승려 교육 과정에서 재난 발생 시 맡을 수 있는 역할과 피해자의 권리, 자원봉사의 원칙, 종단 안팎의 협력 기관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는 현장 지원을, 누군가는 오랜 애도와 추모를, 또 누군가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반복되고 고통은 오래간다. 재난 지원은 각자의 원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돌봄을 오래 이어가기도 어렵다.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린 것은 2017년 포항 지진 때였다. 당시 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원불교에서 심리 지원을 맡은 교무님이 전화해 현장에서 활동할 심리상담 인력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수강생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중 몇 사람이 원불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작은 연결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셈이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도 상담 부스를 열어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조계종 부스 담당자에게도 연락이 왔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조만간 만나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애쓴 이들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현장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축적할 수는 없을까. 팽목항에서부터 품어 온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는 일조차 어려웠던 시기,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들을 연결해 전화 상담으로 심리 지원을 했다. 나도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무료 전화 상담에 참여했다.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조직이 사람과 전문성을 연결하면 마음을 돌볼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했다.

세월호와 포항 지진, 코로나19를 거치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을 잇는 일은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서는 오래갈 수 없다. 평소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역할을 정해 두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의 필요에 맞춰 인력을 연결하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경험을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명진 스님의 영결식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추도사를 들었다. 명진 스님은 유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곁을 지켰으며, 필요한 재봉틀과 청소기 등을 챙겨 주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팽목항으로 향했던 2014년을 돌아보았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심리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재난 직후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물과 식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돕는 일이 먼저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재촉하거나 울음을 멈추라고 해서도 안 된다.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반응을 수행이 부족한 탓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려면 안전과 신뢰, 시간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원할 때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재난 앞에서 불자들이 특히 삼가야 할 말이 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에게는 이런 말은 슬픔에 죄책감까지 더할 수 있다. 나 역시 공부하며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때 "스님 복이 그거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미 버거운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

〈쌍윳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과거 업의 결과로 돌리는 견해를 바로잡는다. 몸의 상태와 계절, 불운, 외부의 가해, 업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이 재난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발생 조건 가운데 업이 하나로 언급된다고 해서 고통의 일정 부분만 업 때문이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눈앞의 고통을 전생의 업 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먼저 업이나 인과를 물을 때도 불행의 원인을 아는 듯 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마음이 무거우시군요"라며 그 심정을 헤아리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과법은 타인의 불행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슬픔에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가족은 울고, 어떤 가족은 분노하며, 또 어떤 가족은 당장 해야 할 일을 담담히 처리한다. 그들에게 "마음을 내려놓으라"거나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재촉하기보다 각자가 겪는 마음을 살펴야 한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도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일상의 작은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돌봄은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몸을 돌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것이다. 잠시 쉴 곳을 마련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사찰의 숲길을 걸으며 쉬고, 사찰음식으로 몸을 돌보고, 따뜻한 방에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돌봄을 개인의 인연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재난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된 사찰이나 불교계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면 사찰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사찰에서는 숙박과 식사,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봉사한 사람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재난 지원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봉사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면, 봉사자들이 다음에도 건강하게 현장에 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목탁을 치며 서 있던 팽목항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재봉틀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불자의 마음 돌봄은 자신이나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대하거나 섣불리 해석하지 않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돌봄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앞에서 불교의 자비가 오래도록 힘을 발휘하려면,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와 연결이 필요하다.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AI 현대불교신문 영상 공모전

수상작 재생목록 바로가기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

81작품 응모…대상 없이 12작품 선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주최한 '2026 현대불교신문 초심이 AI 영상 공모전'이 높은 호응 속에 회향했다.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현대불교신문 마스코트 '초심이' IP를 활용해 AI 창작 영상을 발굴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1작품이 응모해 불교의 AI 미디어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심사 결과 대상 없이 총 12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지호의 '출근하다 불며든 썰', 양채원의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강동호의 '홀로 핀 꽃은 없습니다', 이은진의 '연(緣)이 닿다', 이채원·이현지 '오늘의 작은 깨달음', 김유나 '상황은 하나, 상상은 백 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최대한·노광현·안형준·김태균·이채빈·남윤영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혜장 스님(동국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은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AI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제작자가 주관을 갖고 원하는 주제와 장면을 구체적으로 연출했다"면서 "AI라는 도구에 매몰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우수상



신지호

'출근하다 불며든 썰'

거창한 실천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순간들이 불교적 가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타인을 미워하거나 번뇌에 빠질 수 있지만, 작은 용서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그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담고자 했습니다.



양채원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에서도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건넸던 따뜻한 마음만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건네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품을 본 모든 분이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수상



강동호 '홀로 핀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는 결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함께하는 꽃, 친구의 웃음,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해준 마음들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알아차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초심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보는 이들도 자신을 둘러싼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은 감사를 느끼길 바랍니다.



이은진 '연(緣)이 닿다'

내가 베푼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불교의 인연과 순환의 가르침을, 거창한 설법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 하나가 오가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나눈 자비는 줄지 않고, 돌고 돌아 내 마음의 온기로 돌아왔다"는 마지막 자막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채원 · 이현지

'오늘의 작은 깨달음'

행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빼앗겨 알아보지 못했을 뿐. 잠시 멈춰서 보면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김유나

'상황은 하나, 상상은 백 개!'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나의 100가지 망상과 집착으로 채우고는 화내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화는 삼독 중 하나로, 화는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불태웁니다. 100가지 상상으로 화를 키우는 대신, 잠시 멈춰 사실을 바라보며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인지 냉철하게 바라보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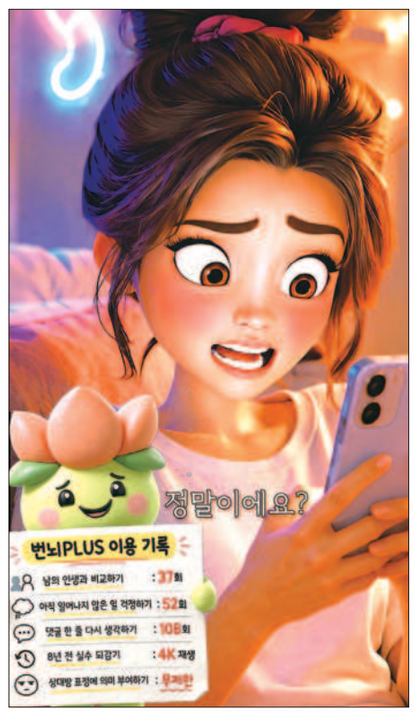
노광현 '마음이 머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배려, 나눔, 명상'의 가치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담아냈습니다. 작은 행동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초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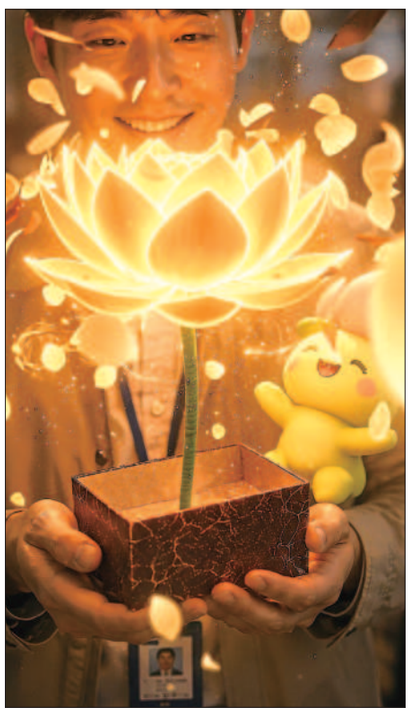
이채빈 '초심이와 처염상정'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 즉 '처염상정'의 의미를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청정함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지켜가는 삶의 자세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윤영 '번뇌PLUS, 해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걱정이 떠오르는 것 자체보다,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비교처럼 반복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갈지, 잠시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형준 '화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받은 화를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작은 선택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곧 '일상의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초심이와 함께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김태균 '번뇌가 사라지는 90초 힐링'

하루 동안 쌓인 어지러운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맑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가꾸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지나온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최대한 '초심이와 함께 빛을 켜요'

일상 속 불교의 가치를 초심이가 등을 전달하면서 알리는 영상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초심이가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빛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상자 소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양채원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숏츠 영상 통해 자신 돌아봤으면"

"영상을 본 분들이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AI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채원 씨는 작품 제작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광고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 1학년 양 씨는 중학생 때부터 영상 제작을 배워왔다. 기획부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까지 홀로 맡은 양 씨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는 하루 정도가 걸렸지만,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기획하는 데 일주일 이상을 들였다"며 "불교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공부한 시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불자는 아니지만 평소 사찰의 차분한 분위기와 불교의 좋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온 양 씨. 그는 "작품을 준비하며 불교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신지호 씨는 영상·애니메이션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 3학년으로 공모전 정보 사이트에서 소식을 접한 뒤 응모했다.

신 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며 불교를 많이 알게 됐고, 초심이를 활용한 AI 영상 제작 실력도 늘었다"면서 "상을 받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품에서 AI 특유의 느낌을 줄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밝힌 신 씨는 "다른 작품과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2D 캐릭터에 직접 촬영한 실사 배경을 결합했다"며 "젊은 세대가 AI 영상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줄이려고 일부러 찌글찌글한 느낌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종교는 없지만 평소 불교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산을 찾을 때면 사찰에도 들렀다는 그는 "앞으로도 영상과 관련된 일을 이어가고 싶다"며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신지호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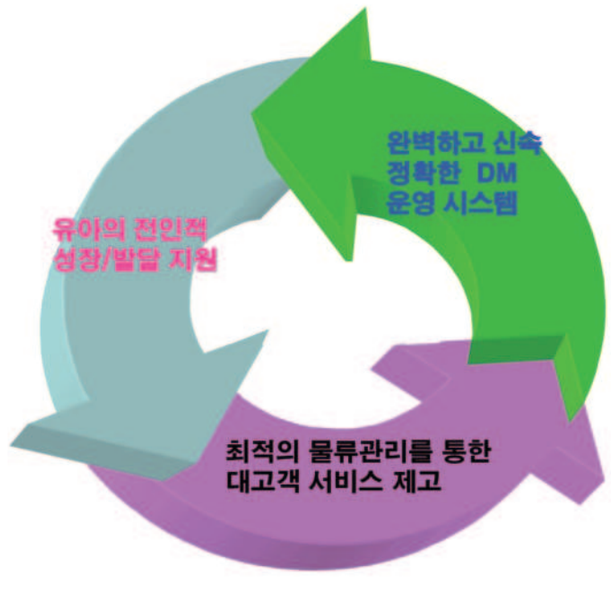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불기 2570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대화합으로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신현준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gmail.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4107CHN,
Tucumá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08-2894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Rd, Bangkok10110,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61-413-70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